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1960~1970년대 수원



contents

제19권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 1960~1970년대 수원

제1부	격변하는 정치와 총력안보체제	004
	4 · 19 5 · 16 그리고 군인들의 정치	006
	선거,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022
	반공과 총력안보	038
	월남으로 간 그들	062
	維新, 그 끝	078

제2부	'성장제일주의' 경제개발	088
	압축적 공업화	090
	식량 자급을 위한 '총력생산'	110
	경부고속도로	126

제3부	동원의 시대, 통제된 일상	146
	새마을 바람, 동원의 물결	148
	캠페인의 시대	168
	통제 그리고 강요된 일상	180

제4부	'Metropolis'를 향하여	196
	경기도청을 수원으로	198
	도시의 틀을 갖추다	212
	도시민으로 산다는 것	234
	화성 복원	258

제5부	흘어지고 스며들다	270
-----	-----------	-----

논고	근대화의 스펙터클 : 개발연대의 이미지 정치	318
----	--------------------------	-----

01

격변하는 정치와 총력안보체제



4 · 19 5 · 16, 그리고 군인들의 정치
선거,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반공과 총력안보
월남으로 간 그들
維新, 그 끝



4·19 5·16, 그리고 군인들의 정치

육군 37사단을 방문하고 귀경하면서 수원역에 잠시 내린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이다. 그러나 1년 후 4·19혁명이 일어나고 이승만은 하야하였다.





수원역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환영하는 수원시민들(1959년, 국가기록원 소장)



수원농고생 300여 명은 “학원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격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 유세장인 공설운동장까지 가두시위를 하다가 경찰에게 강제 해산되었다.



경찰의 저지를 뚫고 달리는 수원농고 시위대(동아일보사 소장)



민주당 수원 유세장인 공설운동장에서 장면 부통령의 선거 연설을 환영하는 수원농고생들(조선일보사 소장)





학생들과 시민들은 4·19혁명을 통해 이승만 독재를 종식시켰다. 그러나 1년 후 1961년 군인들은 5·16군사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군사정권을 세웠다.

수원시를 시찰 중인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1962년, 국가기록원 소장)



수원시청에서 이백일 시장의 업무보고를 받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1962년, 국가기록원 소장)



종합원호원을 방문한 박정희 국가최고재건회의 의장(1962년, 조원동, 국가기록원 소장)





국회의원 이병희와 전임 수원시장 이백일이 경기도청 이전 수원시민 환영회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5·16군사쿠데타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병희 중령(좌)과 이백일 대령(중)은 각각 수원 국회의원과 시장을 지냈다.
(1963년, 매산초등학교, 이병희 유족 제공)



매산국민학교에서 열린 시국강연회에 참석한 김종필 민주공화당 총재와 이병희 국회의원(1965년, 국가기록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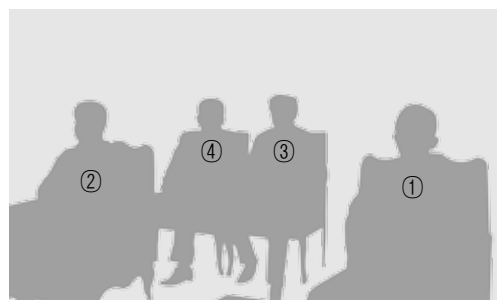
군사쿠테타 동지에서 정치적 동반자로 이어지는 이병희와 김종필(팔달문 부근, 이병희 유족 제공)



최고 권력자의 지원(1971년, 이병희 유족 제공)



살아 있는 권력을 업고 살아 있는 권력이 되다.(1971년, 국가기록원 소장)



- ① 박정희(대통령)
- ② 김종필(국무총리)
- ③ 이병희(제1무임소장관)
- ④ 민관식(문교부장관)

유신정권 권력자들의 자리(이병희 유족 제공)





선거,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1963년 박정희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수원에서 28.4%를 득표하는 데 그쳐 65.5%를 득표한 윤보선 후보와 큰 격차를 보였다. 이 선거에서 수원은 ‘야당도시’라는 정치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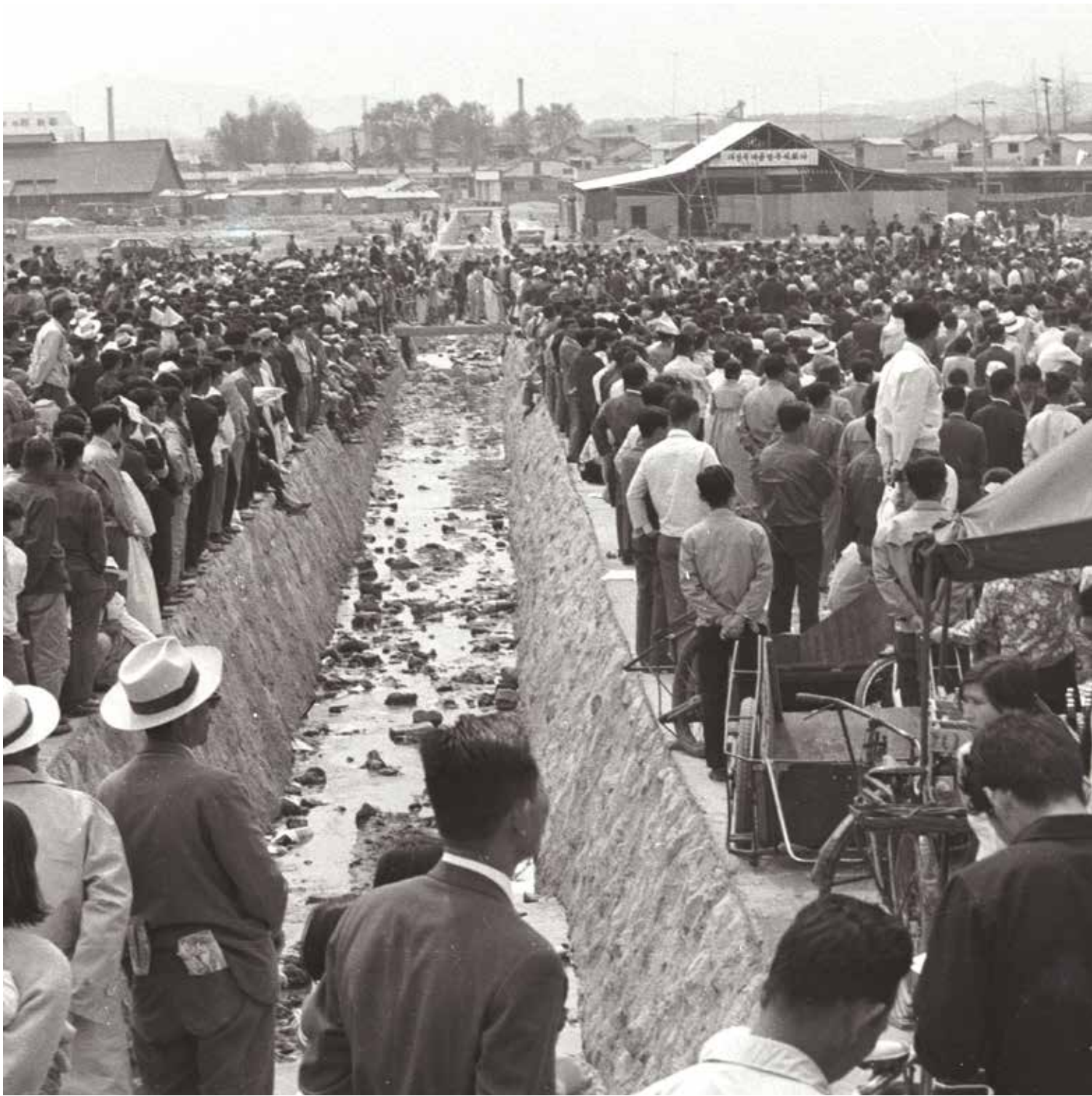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1963년, 이병희 유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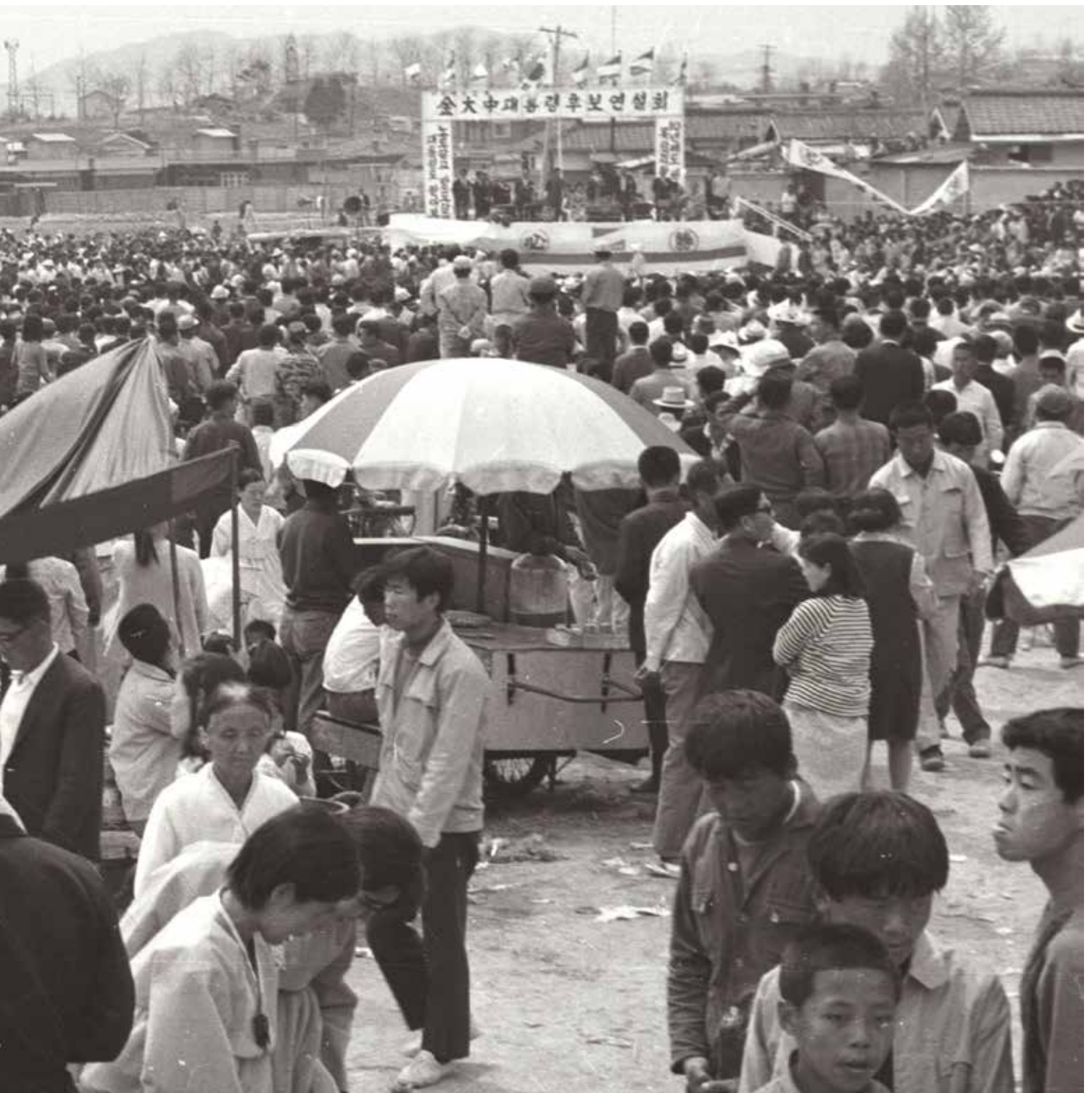
그대로 둘 것이냐? 1971년 대통령선거 기호 1번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의 선거 유세(수원공설운동장, 수원시청 소장)



박정희 후보와 신민당 김대중 후보의 양자 대결 양상으로 치러진 이 선거에서 박정희는 김대중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수원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54.8% 득표해 44.2%를 얻은 박정희 후보를 10.6% 차이로 앞서는 결과를 보였다.



갈아엮을 것이냐? 1971년 대통령선거 기호 2번 신민당 김대중 후보의 수원 지역 선거 유세(수원시청 소장)



이 선거를 끝으로 16년간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다. 대통령직선제는 1987년 수많은 시민들의 피와 희생을 대가로 다시 부활하였다.



쿠데타 주도세력들은 민정이양을 위해 민주공화당을 조직하여 정치활동을 본격화하였고 군부 인사들이 권력을 장악해 갔다.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병희(1963년, 팔달문, 이병희 유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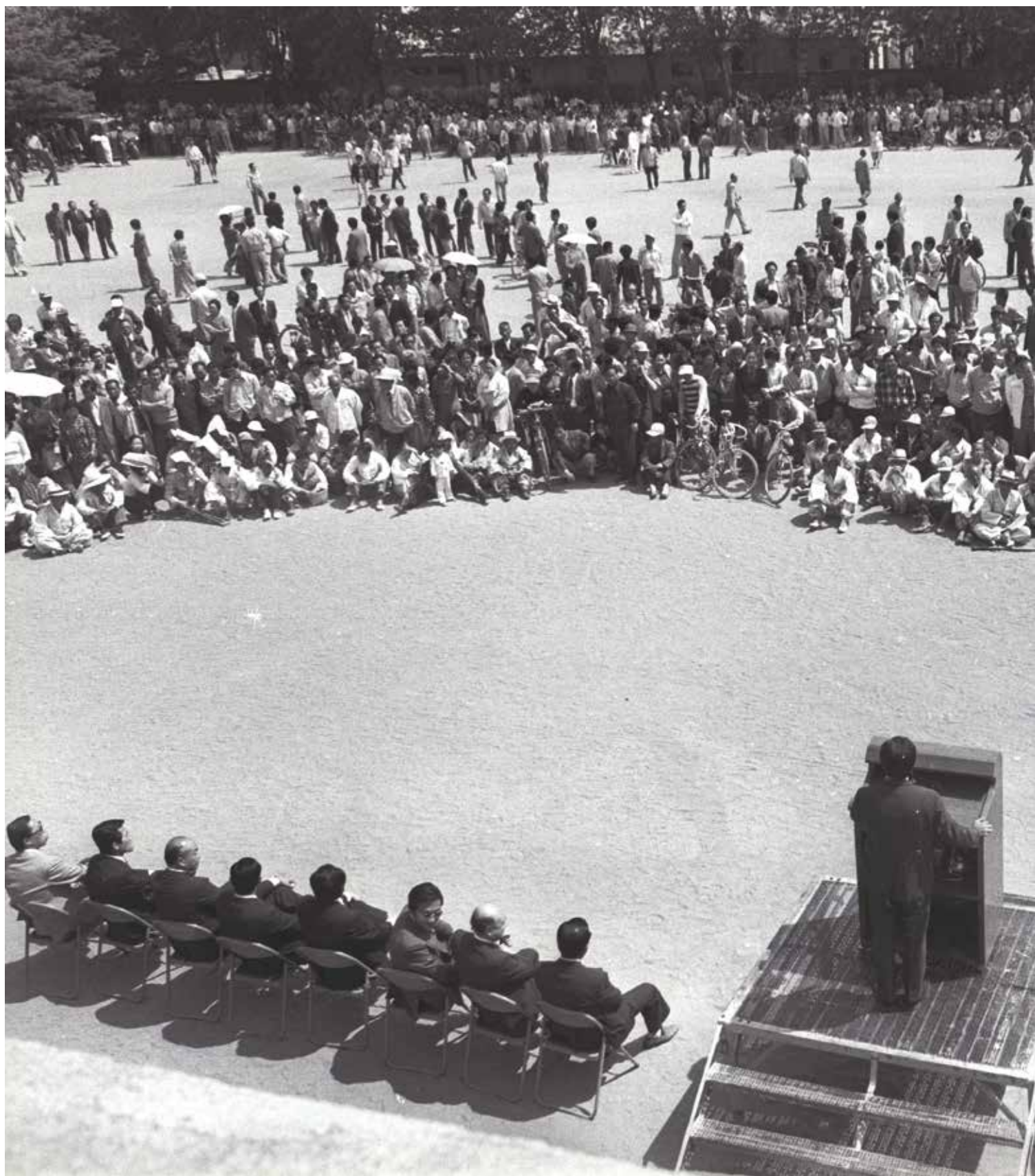
영동시장에 걸린 신민당 국회의원 후보 김상돈 환영 현수막(1971년, 황옥성 제공)



1978년 수원·화성 지역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수원시청 소장)



시내 중심가에 내걸린 국회의원 후보자 현수막(1978년, 팔달문 밖, 수원시청 소장)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의 자리(1978년, 수원시청 소장)



제8대 국회의원 선거 화서동 투표구 투표소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경기도지사 일행(1971년 5월 25일, 화서농민회관,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소중한 한 표, 국민의 권리(1978년 12월 12일, 국회의원 선거, 수원시청 소장)





개표에 쏠린 관심(1978년 5월 19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수원시청 소장)

반공과 총력안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소년 이승복은 1970년대 반공정신의 상징으로 신화화되었다.

반공소년 이승복의 신화는 반공주의가

박정희 체제의 중요한 작동 원리임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전쟁 상징물이 등장한 제7회 화홍문화제 퍼레이드(1970년, 수원시청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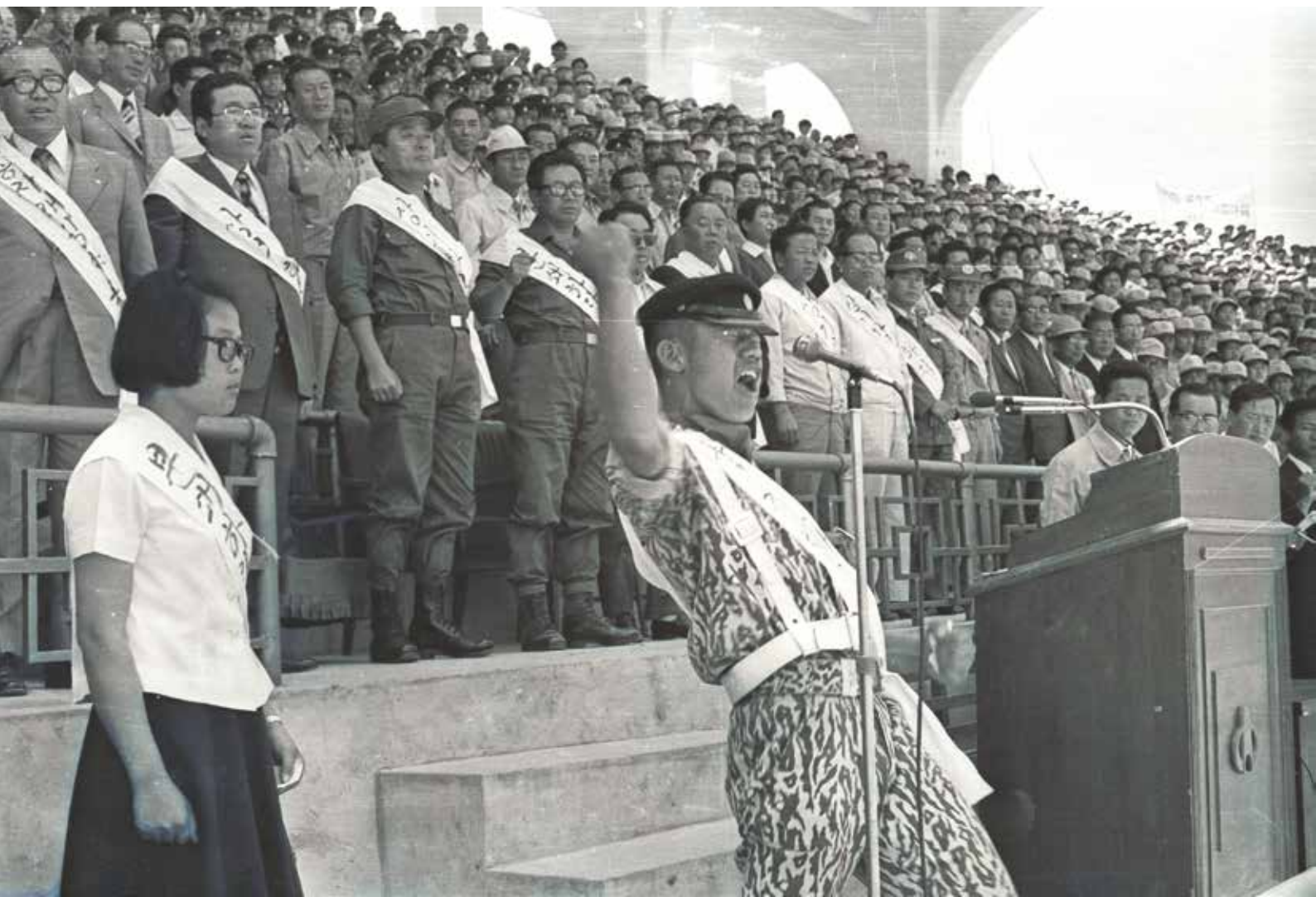
일상화된 반공궐기대회(1974년, 수원역 광장, 수원시청 소장)



수원역 앞에서 열린 북괴 만행규탄 수원시민 · 화성군민 쫓기대회(1974년, 수원시청 소장)



김일성 화형식(1980년,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시청 소장)



북한의 재침 아욕을 분쇄하자는 격한 외침(1974년 6월 25일,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시청 소장)



혈서를 쓰는 꺾기대회 참가자(1979년, 수원시청 소장)



팔달문 근처 도로에 설치한 반공 홍보물(1969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동네 골목 담벼락에 전시된 남한의 경제 성장 홍보물 '6·25의 참상과 우리의 발전상'(1977년, 수원시청 소장)





총력안보(1977년,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시청 소장)



수원시 고교 교련대회 M1 분해결합 경연(1973년 5월 22일, 수원시청 소장)



“학생들 손에 총을”(1978년 6월 22일,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시청 소장)



광고 예비군훈련장 사격훈련(1977년, 수원시청 소장)



예비군훈련(1980년, 수원시청 소장)

수원역 민방위훈련(1978년 1월 15일, 수원시청 소장)



민방위훈련 임시 대피소(1976년 2월 15일, 수원상공회의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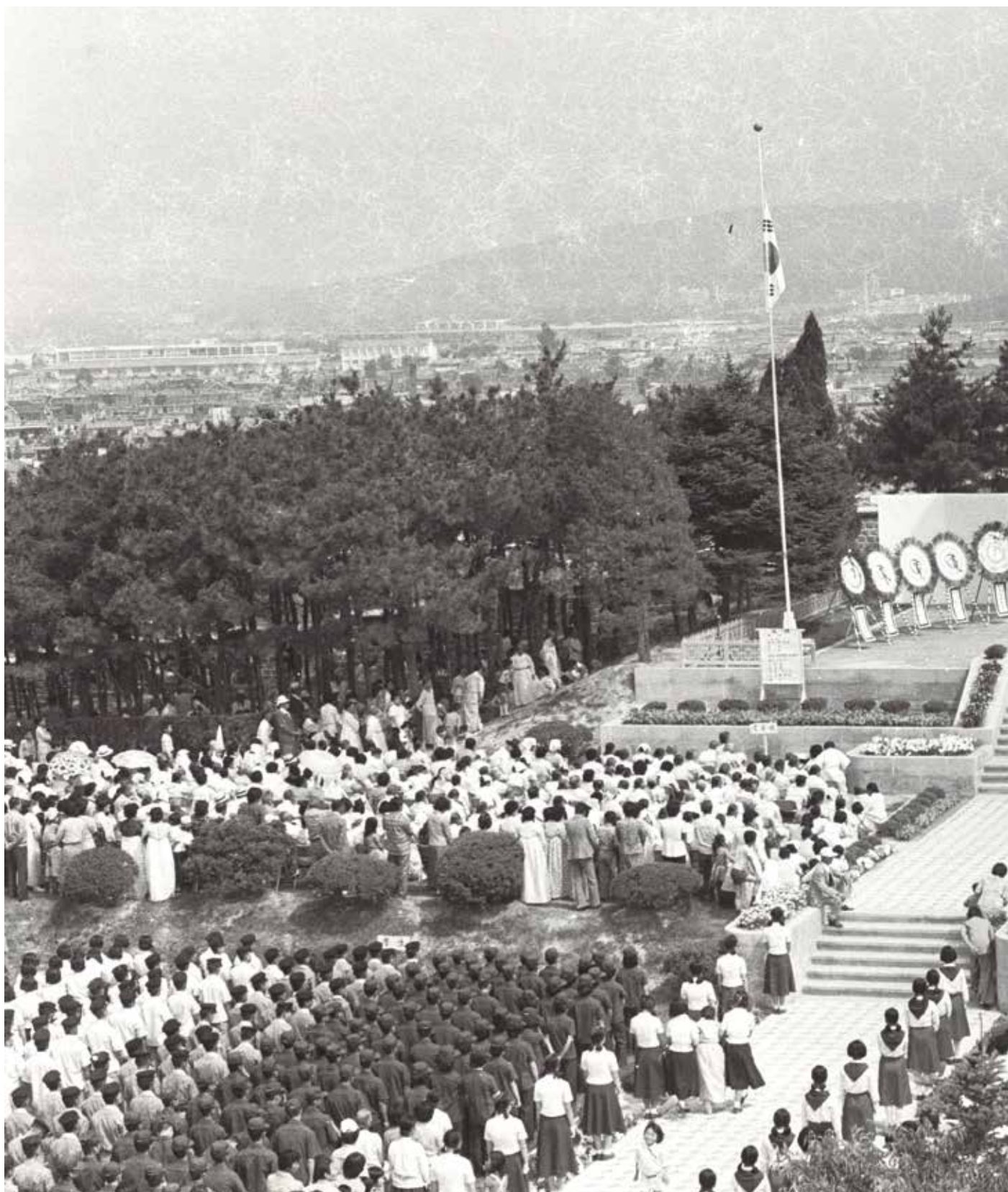
수원 정양원을 방문한 송요찬 내각수반(1961년, 국가기록원 소장)



수원시 출신 전몰장병 합동묘지(1970년, 연무동, 수원시청 소장)



팔달산에 건립된 전몰군경 위령탑(1970년, 수원시청 소장)





충혼탑에서 거행된 현충일 추념식(1978년 6월 6일, 매향동, 수원시청 소장)

월남으로 간 그들

박정희 정권은 1965년 1월 베트남 파병을 결정하였는데,
베트남을 ‘냉전의 전장’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을 철수 내지 감축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얻음으로써
남한의 안보 보장 및 경제적·군사적 원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베트남 다낭 부두에 내린 한국의 파병 부대원들(1971년, 신수봉 제공)



베트남 다낭 부두에서 열린 한국군 환영회(1971년, 신수봉 제공)



파월 한국군의 임무수행(1971년, 신수봉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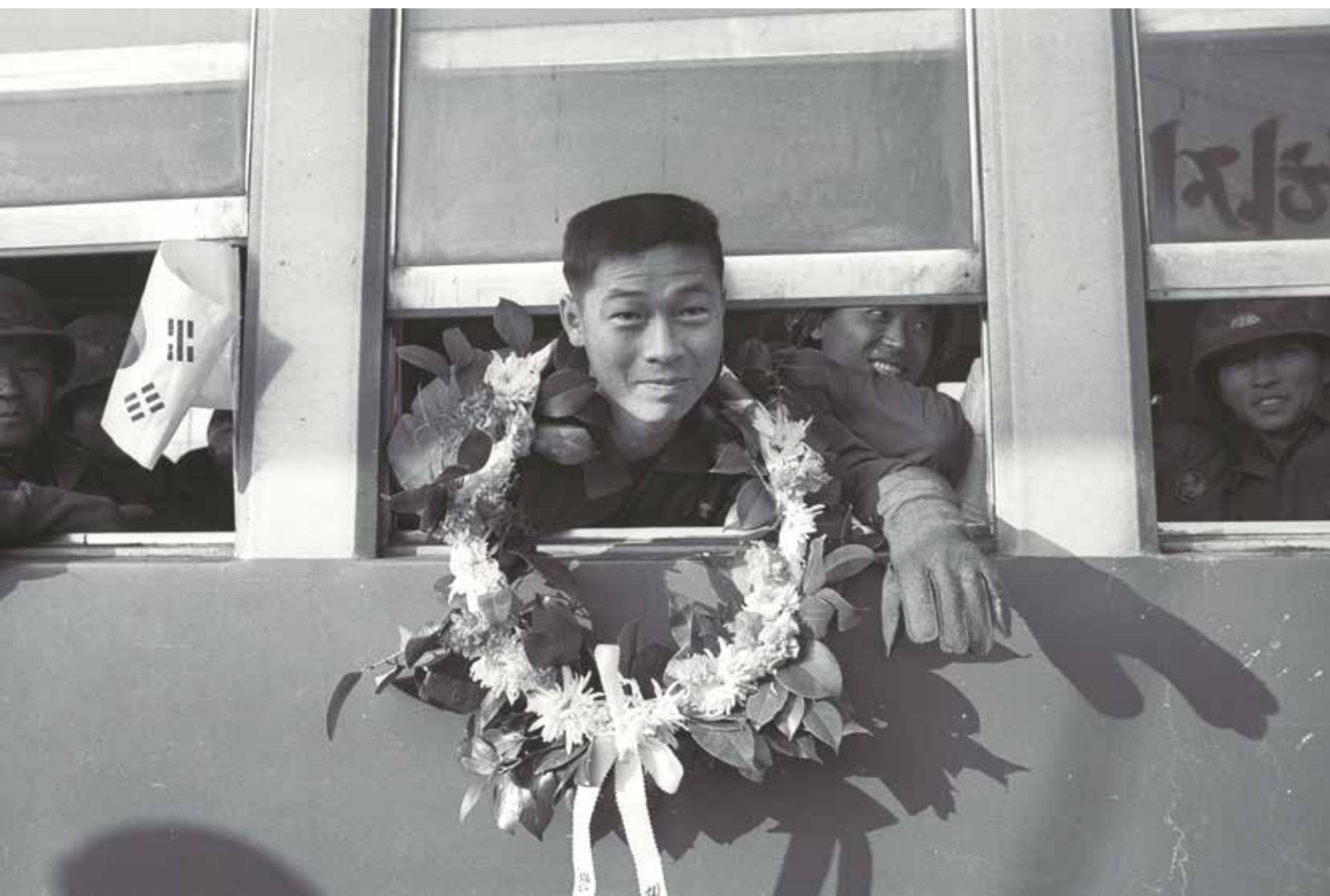
귀국 장병 환영 준비(1973년 2월 11일, 수원역, 수원시청 소장)



파월 귀국 장병 개선 열차(1973년 2월 11일, 수원역, 수원시청 소장)



월남에서 돌아온 그들(1973년 2월 11일, 수원역, 수원시청 소장)



기다리던 아들(1973년 2월 11일, 수원역, 수원시청 소장)



돌아온 가정(1973년 2월 11일, 수원역, 수원시청 소장)



기다리는 모정(1973년 2월 11일, 수원역, 수원시청 소장)





파월 장병 귀국 환영 카퍼레이드(1973년 2월 11일, 매산로, 수원시청 소장)



귀대 보고(1973년 2월 23일, 수원비행장, 수원시청 소장)



인기 연예인까지 동원한 환영행사(1973년 2월 23일, 수원비행장, 수원시청 소장)



파월전상자 합동결혼식(1971년, 수원시민회관,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파월전상자 합동결혼식(1971년, 수원시민회관,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1969년 3선 개헌 파동으로 촉진된 박정희에 대한 정치권력의 집중은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거센 도전을 받게 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것은 박정희에게 권력 강화를 위한 또 다른 전략적 비상조치를 강구하게 하였다. 바로 ‘10월 유신’의 단행이었다. 유신은 대통령 박정희가 실시한 일종의 초헌법적인 헌법 침해조치로, 이후 남한사회에서는 이른바 ‘유신체제’라 불리는 강력한 권위주의체제가 성립되었다. 유신체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하였고, 합헌적인 체제개혁은 봉쇄되었다. 이와 같은 권위주의정치는 제한된 정치적 다원주의가 그나마 인정되던 그 이전의 권위주의체제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박정희가 추구하던 정치권력의 개인화는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암살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마침내 유신체제는 붕괴되었다.



장안문 웅성에도 유신훈보물이 붙어 있다.(1972년, 수원시청 소장)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세운 10월 유신 지지 및 국민투표 독려 선전물(1972년, 영화동, 수원시청 소장)



민간사업체들의 유신 동참(1972년, 장안문 부근, 수원시청 소장)



유신헌법 계몽강연회(1973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수원시청의 유신 홍보(1973년, 수원시청 소장)



국장을 알리는 게시판과 조기가 달린 수원시청(1979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분향소가 마련된 경기도청(1979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오열하는 조문객(1979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조기와 목념(1979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유신의 종말(1979년, 매산로,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02

‘성장제일주의’ 경제개발



압축적 공업화
식량 자급을 향한 '총력생산'
경부고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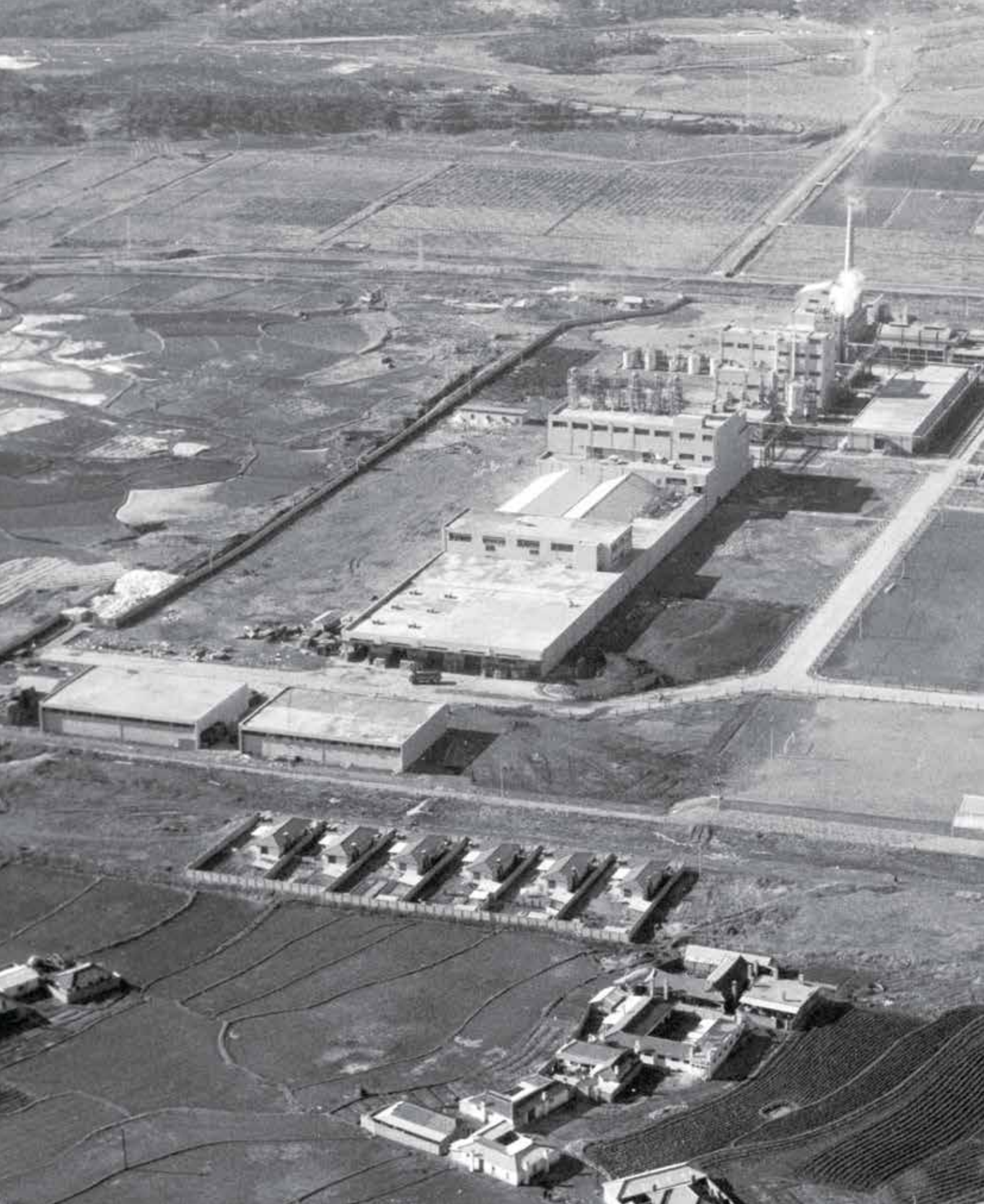
압축적 공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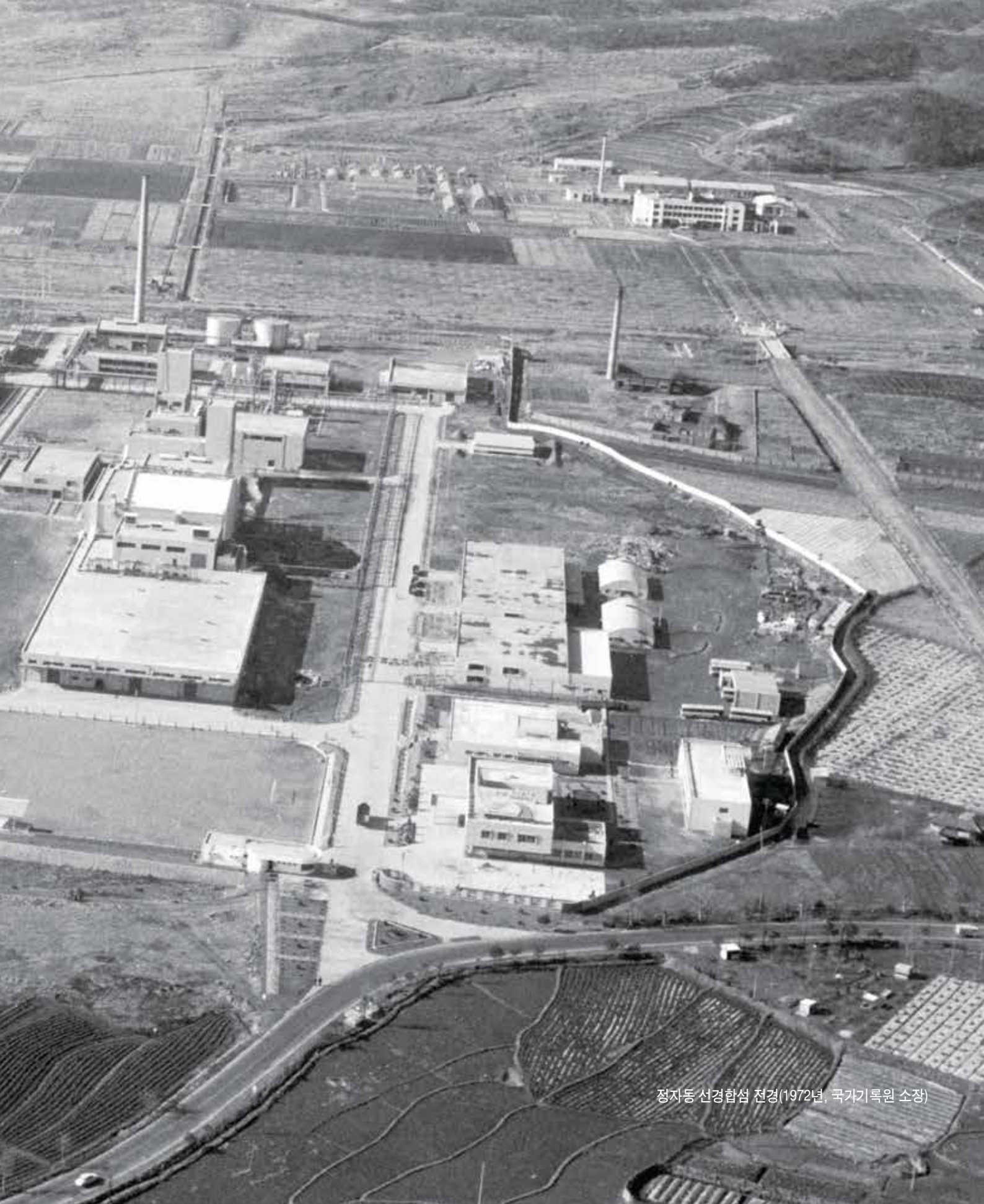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본격적인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경제개발이야말로 박정희 정권 최고 최대의 치적으로 회자된다. 경제개발은 모든 사람의 삶을 근저에서 변화시켰던 거대한 변화를 수반했다. 공장들이 들어섰다. 이전부터 가동 중이던 선경직물 외에도 1970년대 들어 한일합섬이 들어왔고 필립스전자, 해태유업이 새로 공장을 지었는가 하면 마침내 삼성전자가 입주했다. 논밭 사이로 우뚝 솟은 선경합섬의 공장 건물과 굴뚝은 공장이 지배하게 된 수원의 현실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연초제조창에서 보았듯이 공장의 외관은 놀라울 정도로 말끔하고 세련된 근대성의 상징처럼 보였다.

그러나 공장 내부의 노동과정은 그리 아름다울 수 없었다. 기계의 소음은 고막을 찢는 듯하였고 각종 원료들에서 나오는 먼지는 나이 어린 여성 노동자들의 폐를 갇아먹었다. 근대적 공장의 모습은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채 사람들의 삶을 장악해 갔다.



대통령에게 공장을 안내하는 선경직물 최종건 사장(1964년, SK 소장)





정자동 선경합섬 전경(1972년, 국가기록원 소장)





수원연초제조창 준공(1971년 4월 1일, 정자동, 국가기록원 소장)



동구물산 수원공장 준공식(1975년 11월 8일,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필립스전자 시업식(1975년 5월 20일, 수원시청 소장)



삼성전기 TV생산 공정(1971년, 수원시청 소장)



삼성전기 TV생산 공정(1973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박정희 시대에 여성노동자는 ‘산업전사’, ‘외화벌이역군’으로 호명되었으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렸다.



고단한 생산 현장(1973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대우실업 여성노동자들(1973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소금땀 비지땀 흐르고 또 흘러도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우리네 청춘이 저물고 저물도록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해태유업 노동자들(1969년, 이목동,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해태유업 노동자들(1969년, 이목동,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69년도 수출산업인 단합대회(1969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수출 효자상품으로 불렸던 가발 제조공장(1970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수원지역 공장새마을운동 추진분회 주최 제1회 QC 씨를 경진대회(1977년, 수원상공회의소 회의실, 수원상공회의소 소장)



공장새마을운동은
 1973년 6월 기본구상작업에 착수하여
 1974년 공장새마을운동중앙추진회를
 조직함으로써 전개되었다.
 새마을이념에 입각한 한국적 노사협조체를
 확립하고 분임활동을 통한
 원가 절감과 생산성의 증대를
 목표로 하였던 공장새마을운동은
 국가와 자본이 장려했던 ‘모범 근로자’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였다.

식량 자급을 위한 '총력생산'



서둔동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식량증산연찬회(1964년, 국가기록원 소장)



쌀 100만 석 더 내기 운동 단합대회(1969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기계 못자리(1978년, 수원시청 소장)



관정 개발(1974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대통령과 각 기관장들의 권농일 모심기(1970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모내기 일손 돕기(1978년, 수원시청 소장)



호미 모내기(1976년, 수원시청 소장)

가뭄이 계속되면 마른 논 바닥을 호미로 파서 모를 심었다.

가뭄 극복에 동참한 교사리 손들(1978년, 수원시청 소장)





추곡 수매(1976년, 수원시청 소장)



증산왕 대관식(1976년, 수원시민회관,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논보리 파종 연시대회(1976년, 수원시청 소장)



논보리 재배권 확대 시범포 평가회(1975년, 수원시청 소장)



벼 신품종 통일 시범단지 평가회(1971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수원농고생들의 농기계 실습(1969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병충해 방제 시연(1979년, 수원시청 소장)







마을공동퇴비장 조성(1973년, 수원시청 소장)

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 간 고속도로 공사를 알리는 깃발(1968년, 국가기록원 소장)



서울-수원 간 고속도로 기공식(1968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경부고속도로 건설공사 실험실(작가 전용각, 소장 이문강)



토질을 점검하는 연구진(작가 전용각, 소장 이문강)



서울-수원 간 고속도로 건설 노동자들(1968년, 국가기록원 소장)



서울-수원 간 고속도로 건설 노동자들(1968년, 국가기록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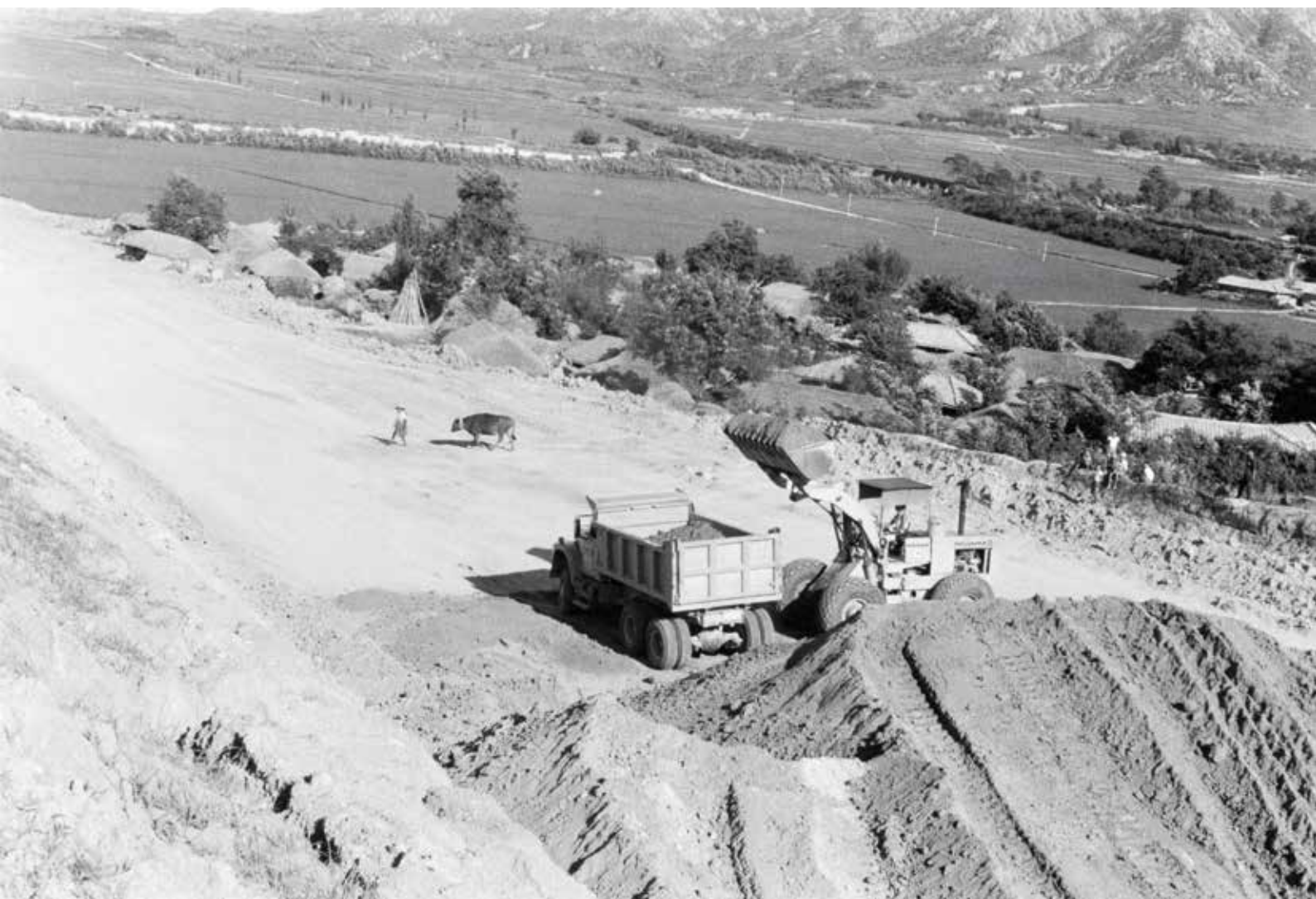


서울-수원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1968년, 국가기록원 소장)



서울-수원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1968년, 국가기록원 소장)





소가 다니던 길이 차가 다니는 길이 되다.(작가 전용각, 소장 이문강)

앞마당으로 들어온 고속도로(작가 전용각, 소장 이문강)







망건 쓰고 등짐 진 노인이 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무심하게 지나고 있다.(작가 전몽각, 소장 이문강)



불도저를 구경하는 촌로들(작가 전용각, 소장 이문강)



고속도로는 마을을 갈라놓았다.(작가 전용각, 소장 이문강)

고속도로는 산을 관통했다.(작가 전용각, 소장 이문강)





서울-수원 간 고속도로 개통(1968년 12월 21일,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서울-수원-오산 간 고속도로 개통(1968년 12월 30일, 국가기록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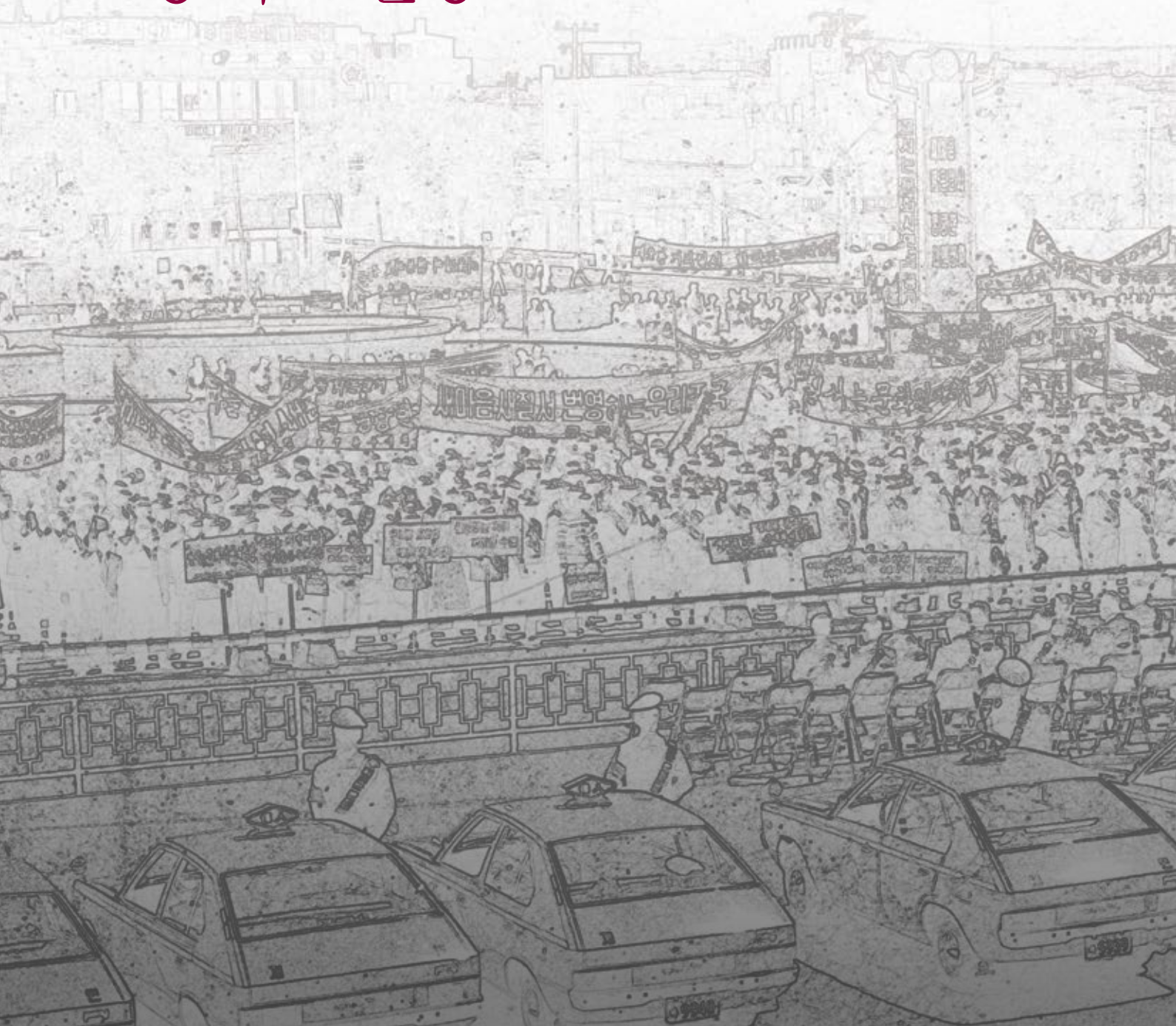
고속도로 변의 행인들(1968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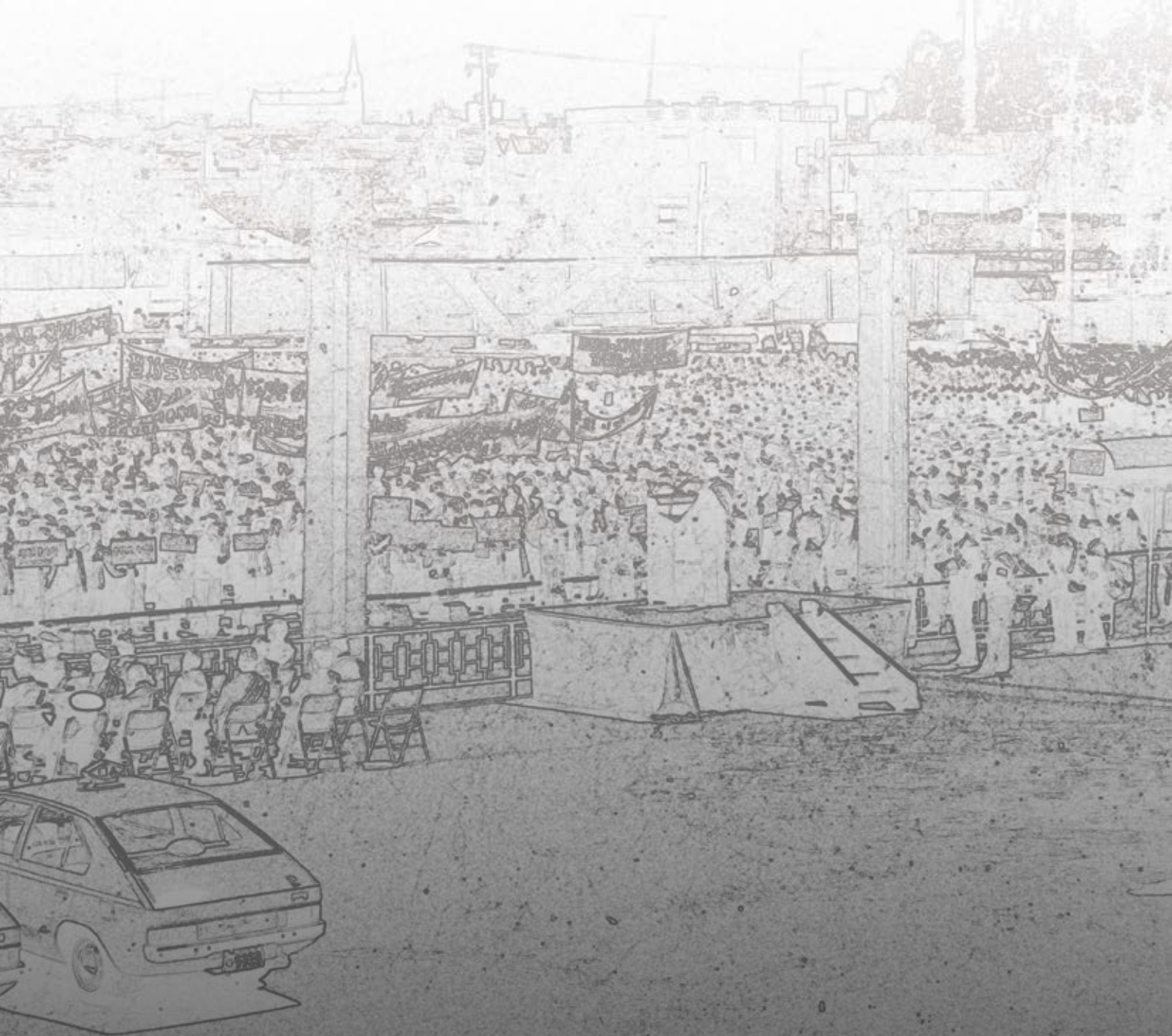
경부고속도로 수원IC 부근(1969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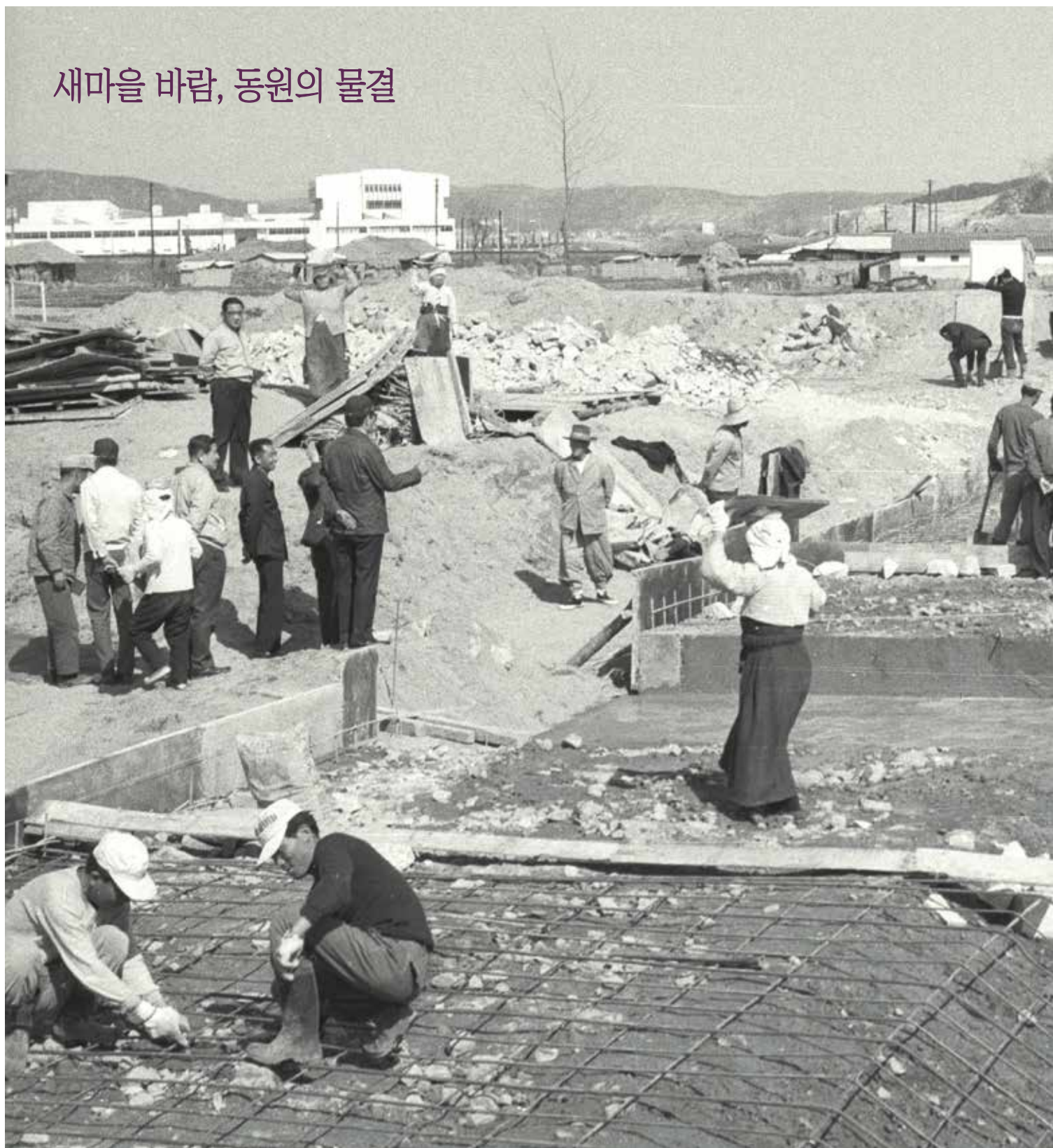
동원의 시대, 통제된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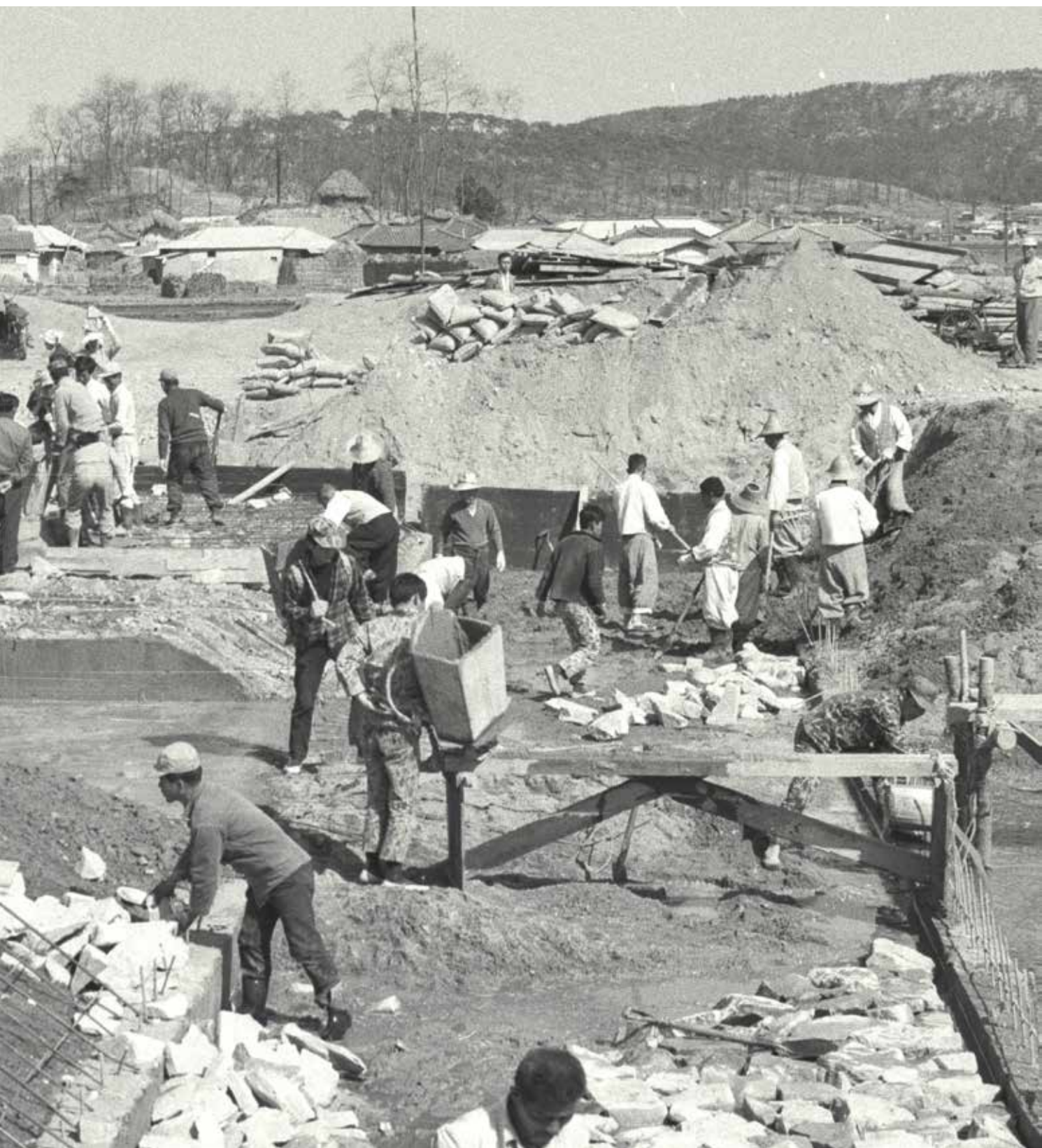


새마을 바람, 동원의 물결
캠페인의 시대
통제 그리고 강요된 일상



새마을 바람, 동원의 물결





마을주민이 총동원된 화서동 꽃피마을 보 설치 작업(1972년, 수원시청 소장)



화서동 꽃외마을 새마을회관 준공(1975년, 수원시청 소장)



매탄동 산드래미 새마을회관 준공(1972년, 수원시청 소장)



지붕개량사업을 시찰 중인 경기도지사(1974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초가지붕을 기와지붕으로(1972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매탄동 말통골 마을 안길 정비(1972년, 수원시청 소장)



매탄동 말통골 마을 안길 정비(1972년, 수원시청 소장)



대통령 하사품 전달(1973년, 장지·대황교·곡반정·권선동사무소, 수원시청 소장)



정자동 산일정 앞 양회다리 공사(1972년, 수원시청 소장)



매원동 새마을 노임사업 기공식(1975년, 수원시청 소장)



서둔동 새마을 노임소득사업장 시찰에 나선 수원시장(1975년, 수원시청 소장)



도시새마을운동으로 대체된 수원시청중대 예비군훈련(1974년, 수원시청 소장)



세류2동 새마을 가꾸기 사업에 동원된 주민들(1977년, 수원시청 소장)



크로바백화점 직원 새마을 대청소(1978년, 팔달문 앞, 수원시청 소장)

수성중학교 하기 새마을 대청소(1976년, 수원시청 소장)

새마을운동
수원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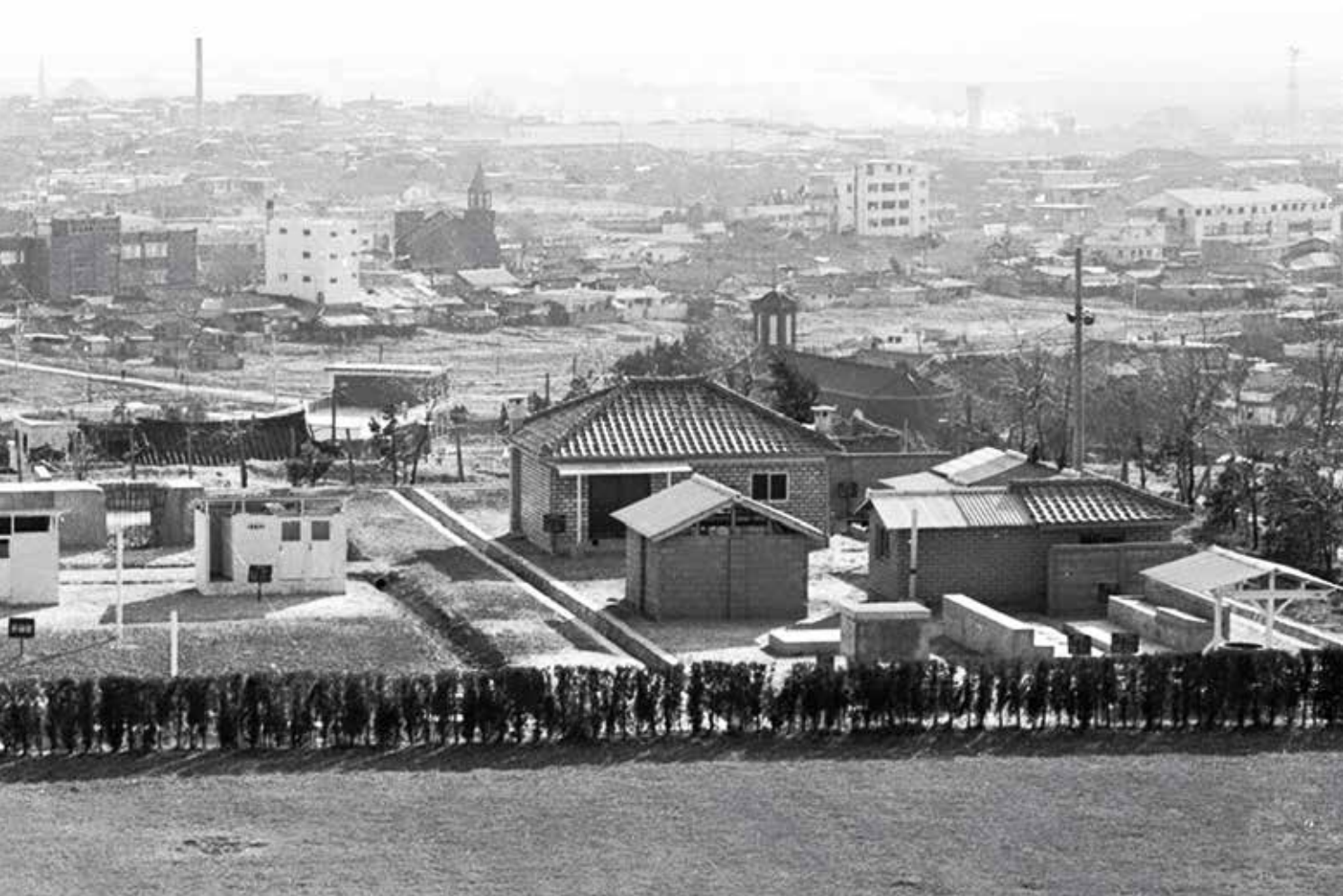


새마을운동 전진대회 결의문 낭독(1978년, 수원시민회관, 수원시청 소장)



제1기 새마을지도자 교육(1972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경기도청 앞에 조성된 새마을 전시관(1973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캠페인의 시대





수원역 광장에서 개최된 3대 질서 촉진대회(1978년, 수원시청 소장)



검기운동 캠페인(1973년, 팔달문 안, 수원시청 소장)



가족계획 캠페인(1976년, 수원시청 소장)



취잡기 캠페인(1974년, 팔달문 밖, 수원시청 소장)





혼 · 분식 장려 캠페인(1973년, 경기도여성회관,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부녀새마을운동 전진대회에 등장한 캠페인 구호들(1980년, 팔달산, 수원시청 소장)



정량계량기 사용 캠페인(1976년, 영동시장, 수원시청 소장)

추석제는 "가정의례준칙"을 지킵시다(1977년, 영동시장, 수원시청 소장)





범국민저축생활화 촉진대회(1978년, 매산로, 수원시청 소장)



캠페인 가두행렬의 뒷모습(1975년, 중동사거리, 수원상공회의소 소장)

통제 그리고 강요된 일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지문 채취(1975년, 수원시청 소장)



주민등록증 발급(1975년, 수원시청 소장)





매월 25일은 반상회의 날(1980년, 매산로, 수원시청 소장)



팔달로1가 2통 1반 명예반장 집에서 열린 팔창동 반상회(1977년 2월 25일, 수원시청 소장)



반상회에 모인 주민들(1977년 2월 25일, 수원시청 소장)



제8회 수원시 체육대회 카드섹션 '국민교육헌장'(1972년,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시청 소장)



국민교육헌장 선포 2주년 기념식(1969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수원시교육청 주최 국민교육헌장 선포 제7주년 기념식(1975년, 수원시청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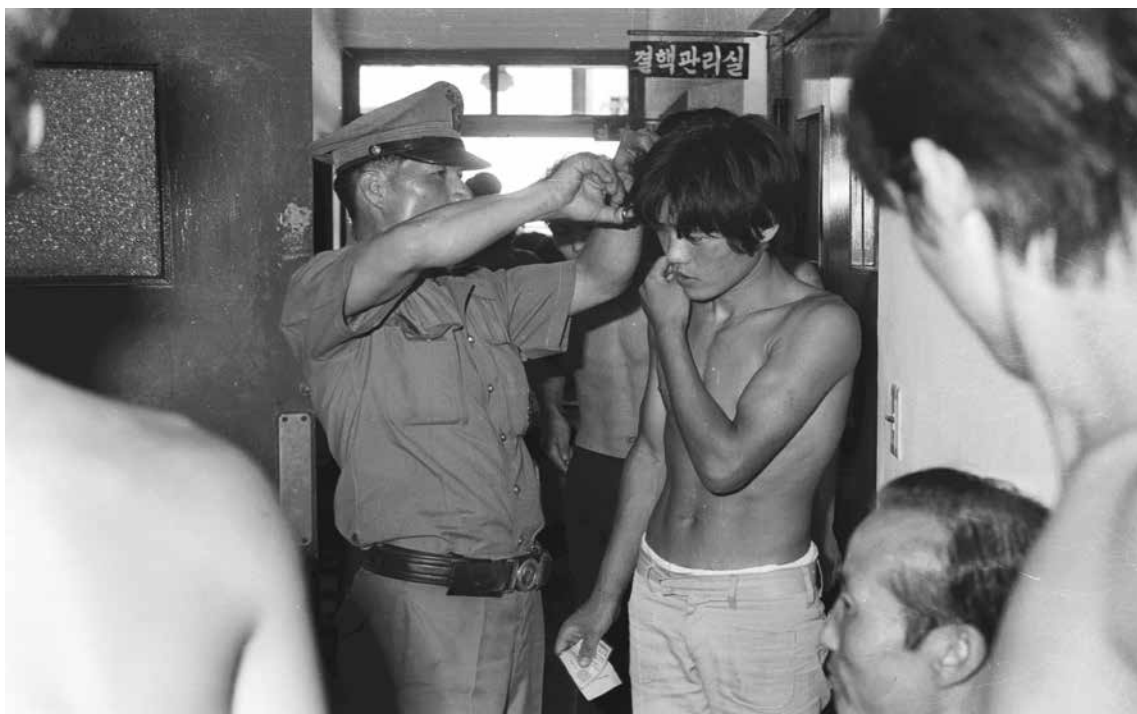
상설순회홍보(1980년, 조원동, 수원시청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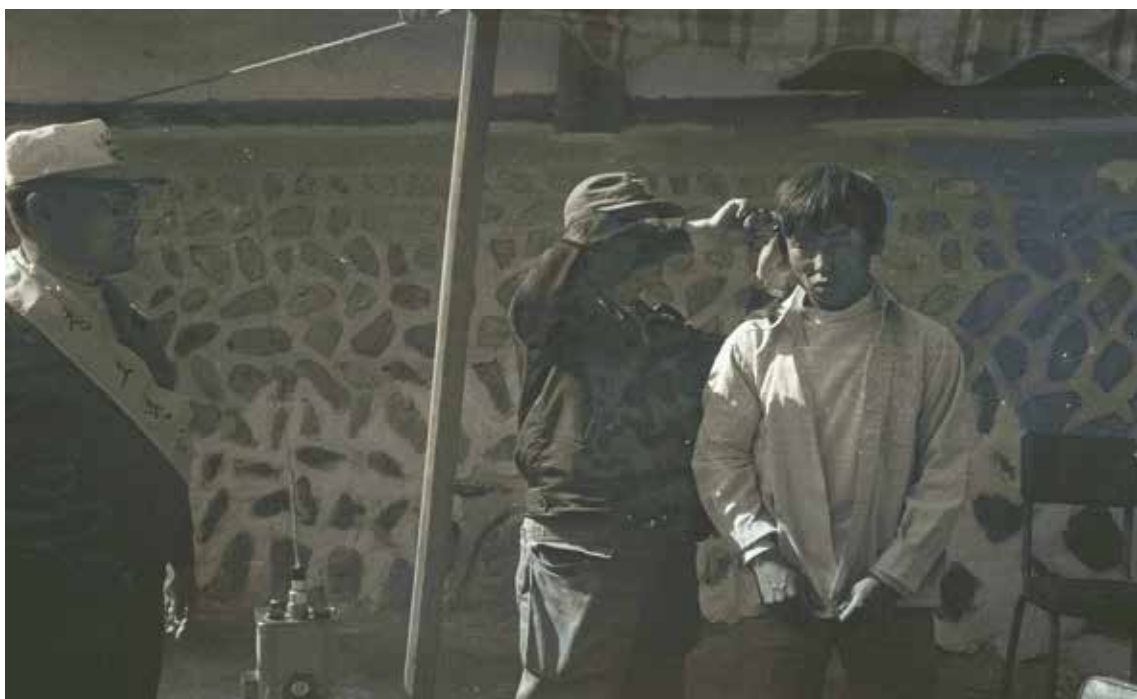
홍보물을 구경하는 화서아파트 주민들(1980년, 수원시청 소장)



멸공훈련 중 불심검문(교동, 수원시청 소장)



병무청 신체검사장의 장발 단속(1975년, 수원시청 소장)



수원경찰서 용주사 이동파출소 장발단속(1973년, 수원시청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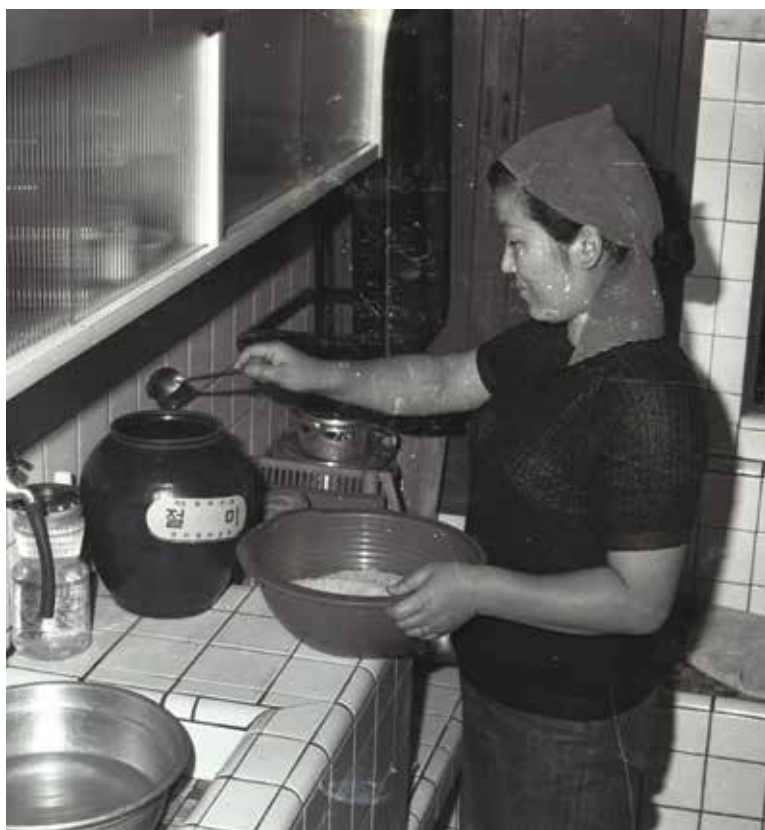
가정의례준칙 추진보급 강연회(1969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경기도청 가족계획과 이동민원실(1969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농어민 간소복 발표회(1972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절미-한 사람 한 수저(1977년, 영화동, 수원시청 소장)



영화동 부녀회 절미운동(1977년, 수원시청 소장)

04

‘Metropolis’를
향하여



경기도청을 수원으로
도시의 틀을 갖추다
도시민으로 산다는 것
화성 복원





경기도청 이전을 요구하는 수원시민들(이병희 유족 제공)

경기도청을 수원으로



경기도청이전추진위원회(수원상공회의소, 이병희 유족 제공)



경기도청 이전 수원시민 환영대회(1963년 12월 15일, 매산초등학교, 이병희 유족 제공)



경기도청 이전 수원시민 환영대회 참석자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1963년 12월 15일, 매산초등학교, 이병희 유족 제공)



경기도청사 기공식 및 제1회 화흥문화제 전야제 횃불 행진(이병희 유족 제공)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병희 유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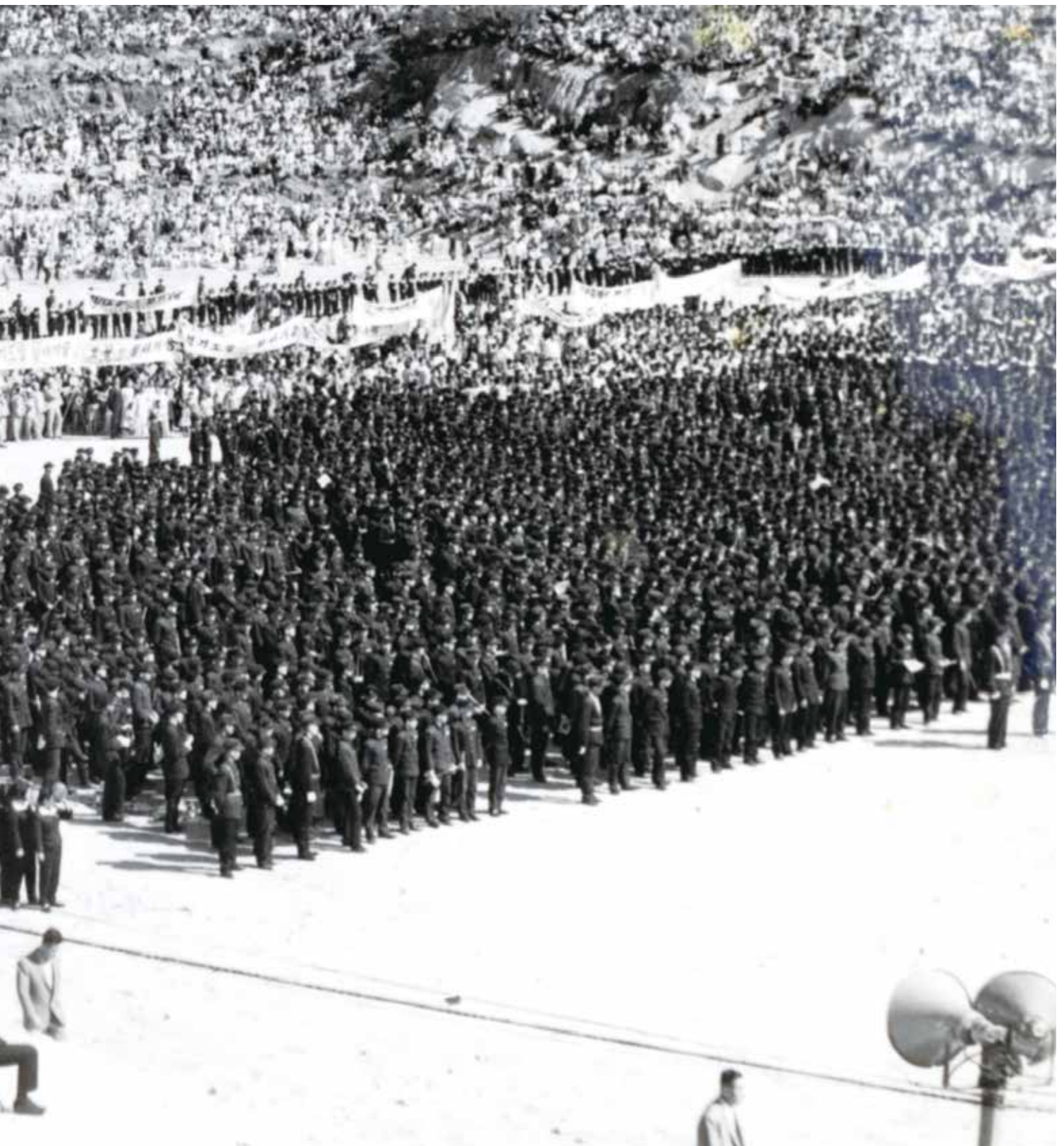


경기도청사 기공식 발파 버튼 터치(1964년 10월 15일, 이병희 유족 제공)



경기도청사 조감도와 시민들(이병희 유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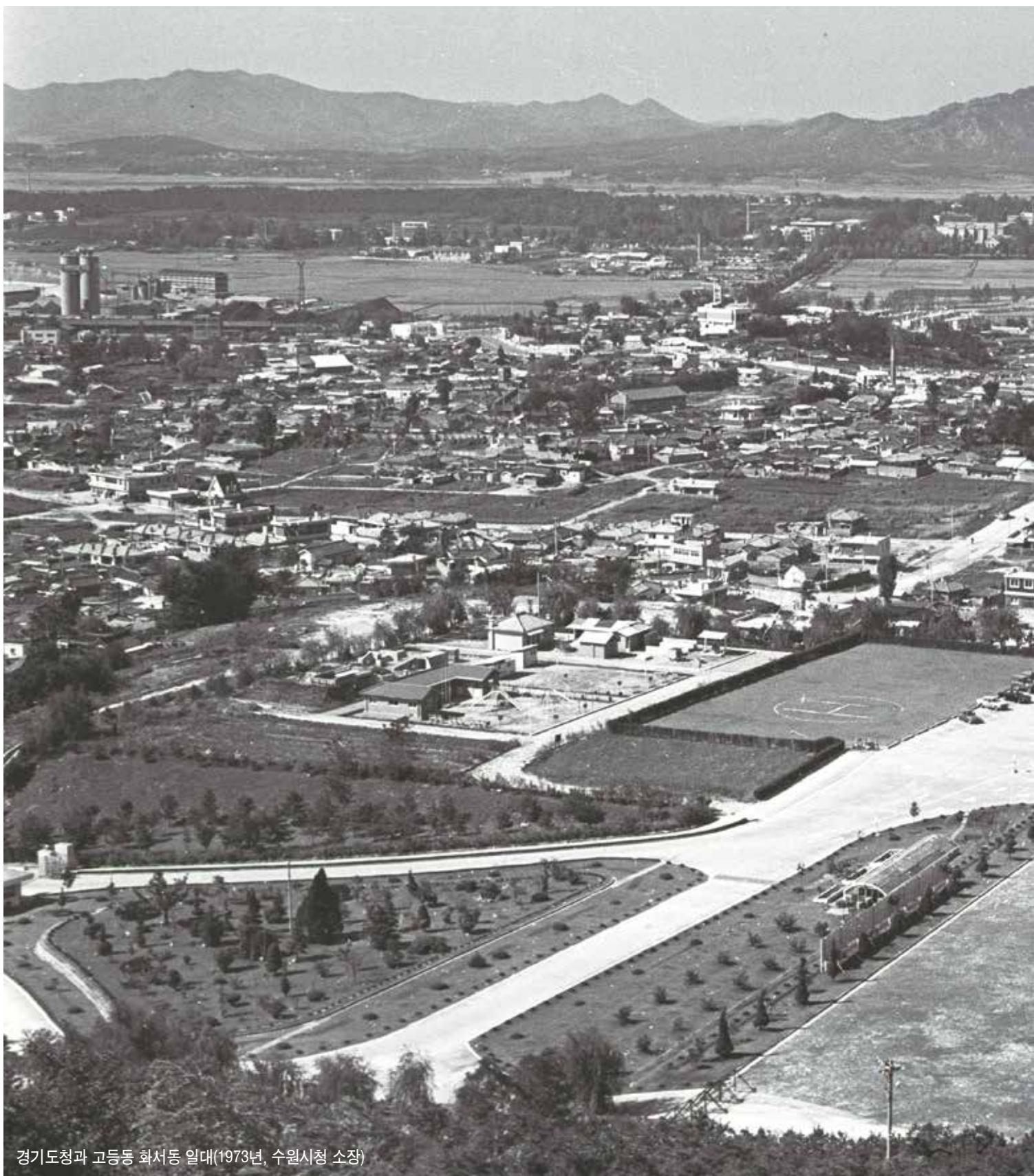
경기도청사 기공식장 전경(이병희 유족 제공)



경기도청 진입로(1967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경기도청 이전식(1967년 6월 23일, 이병희 유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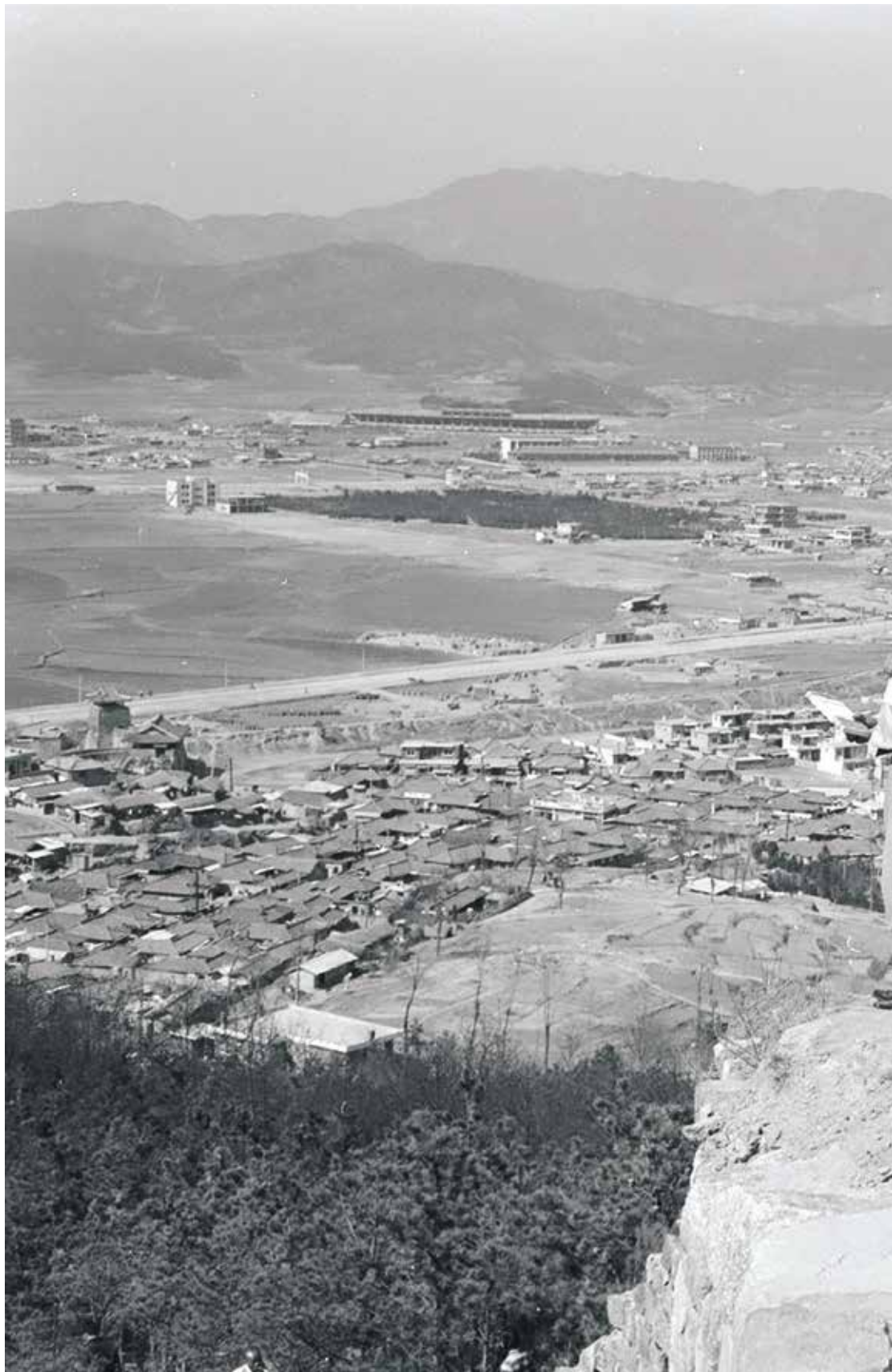


경기도청과 고등동 화서동 일대(1973년, 수원시청 소장)



도시의 틀을 갖추다

서장대 앞에서 바라본 영화동 일대
(1971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개발이 진행되기 전의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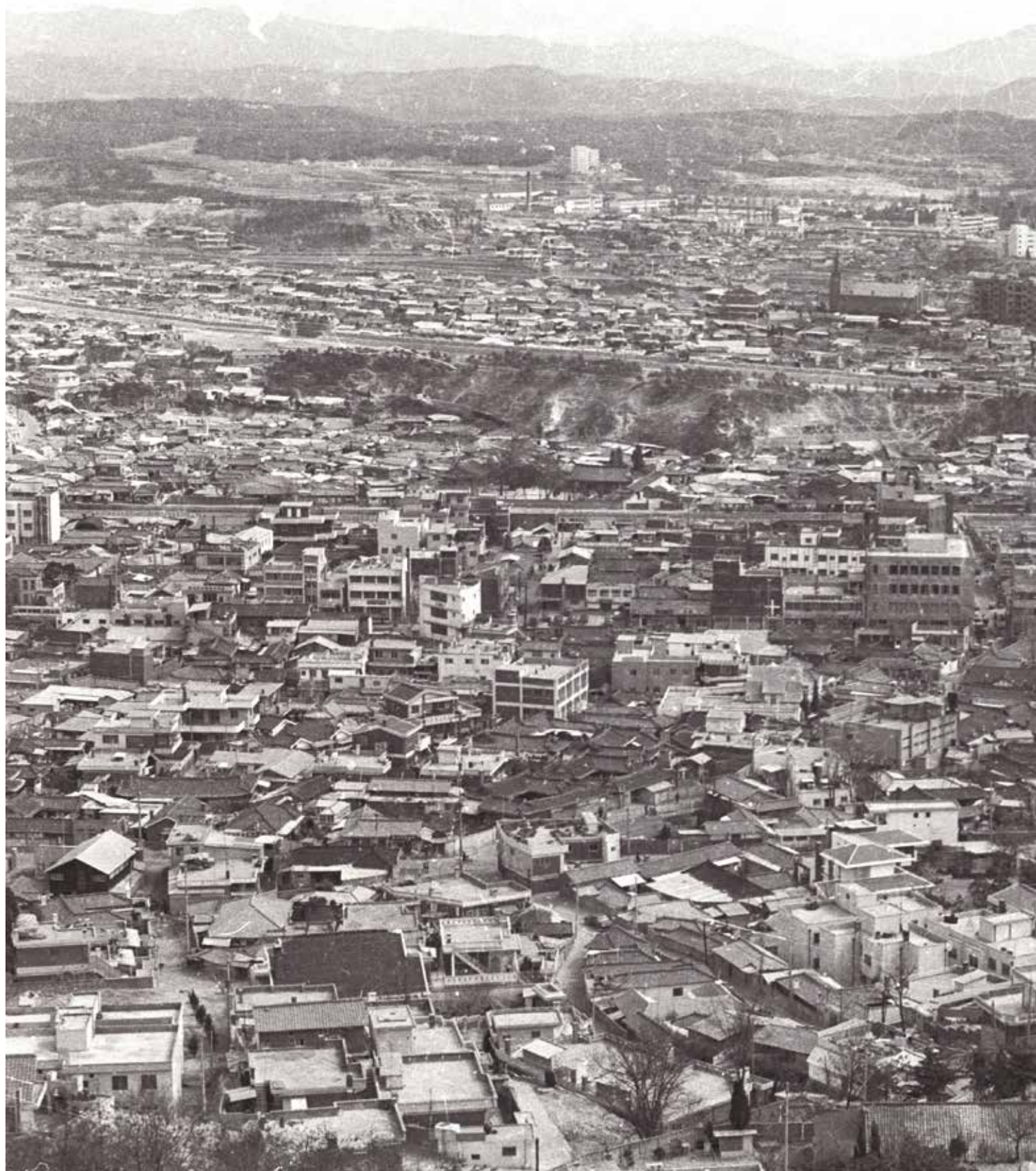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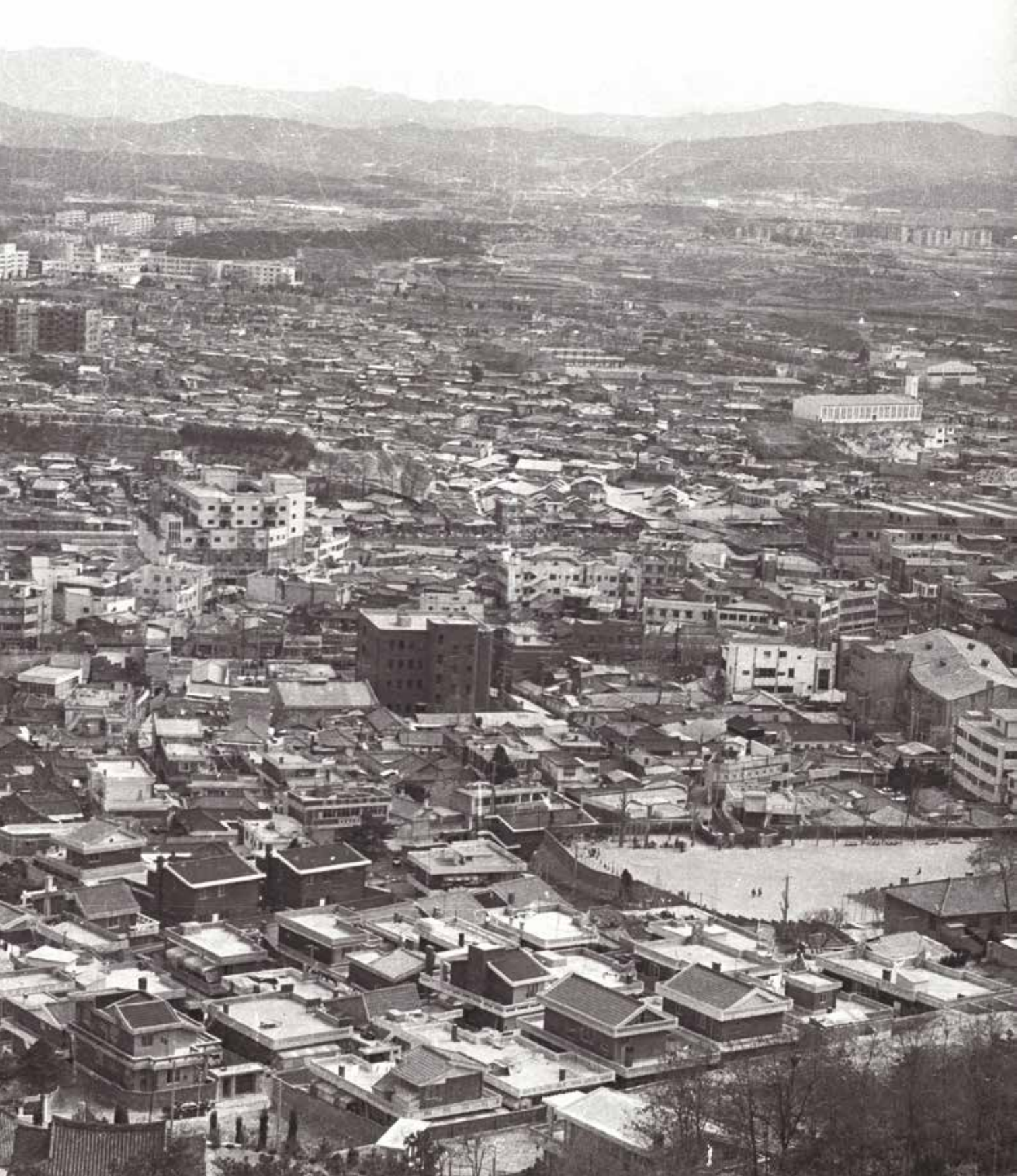






택지개발사업 후의 영화동(1978년, 수원시청 소장)





1970년대 말 팔달산에서 바라본 수원 시가지 전경(1979년, 수원시청 소장)





수원-용인 · 광주 간 도로(1974년, 수원시청 소장) 현재의 창룡대로이다.

경수산업도로 개설공사 기공(1979년, 수원시청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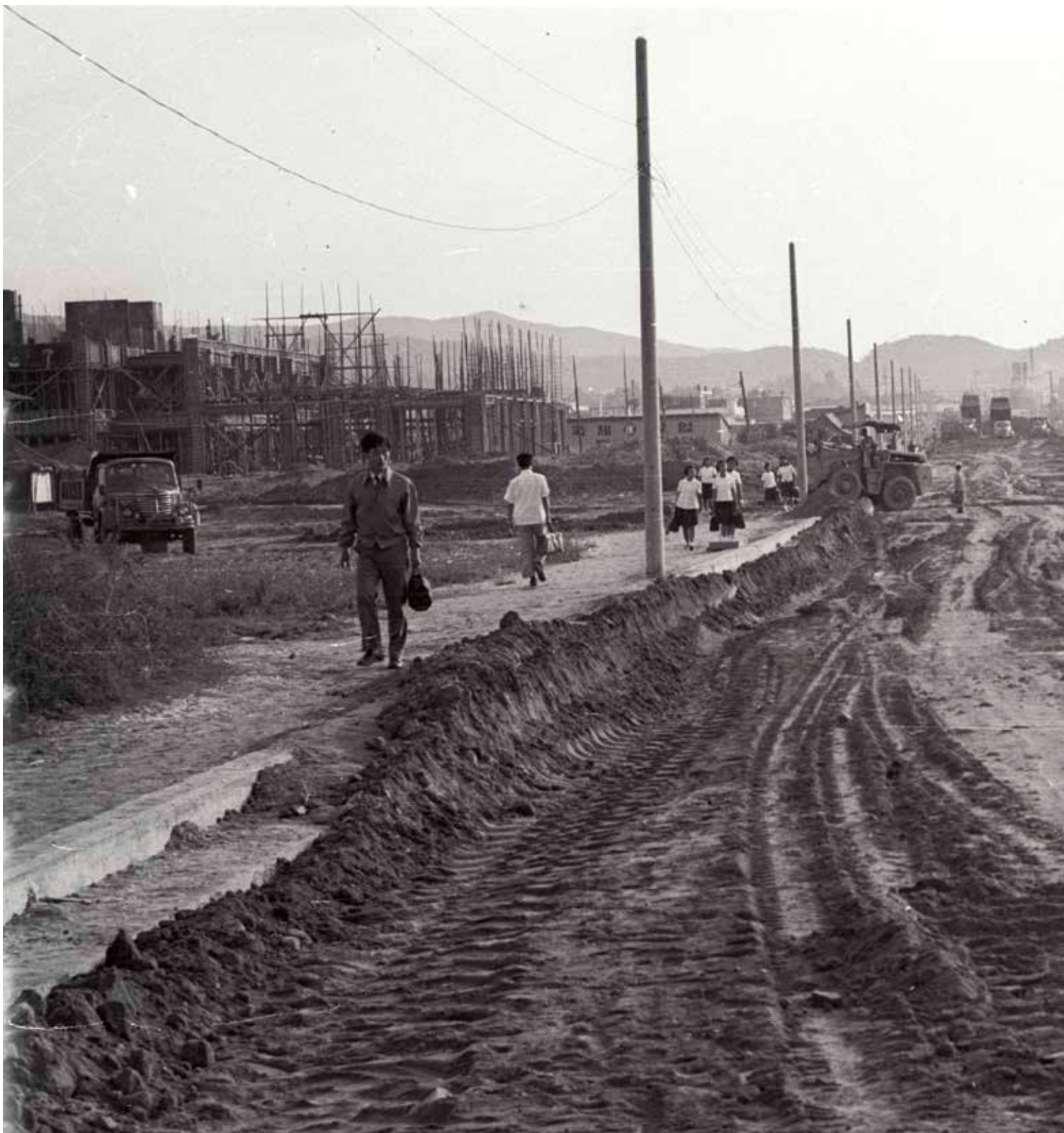
세류동에서 수원역으로 가는 도로(1960년대, 수원박물관 소장)



반듯하게 포장된 수원역 가는 길(1975년, 수원시청 소장)



수원시청~역전 간 도로 확장공사 기공식(1967년, 국가기록원 소장)





서문선 도로 공사(1972년, 수원시청 소장)
장안문과 화서문을 오가는 도로가 넓혀지고 있다. 넓어진 도로만큼 사람들 사이도 멀어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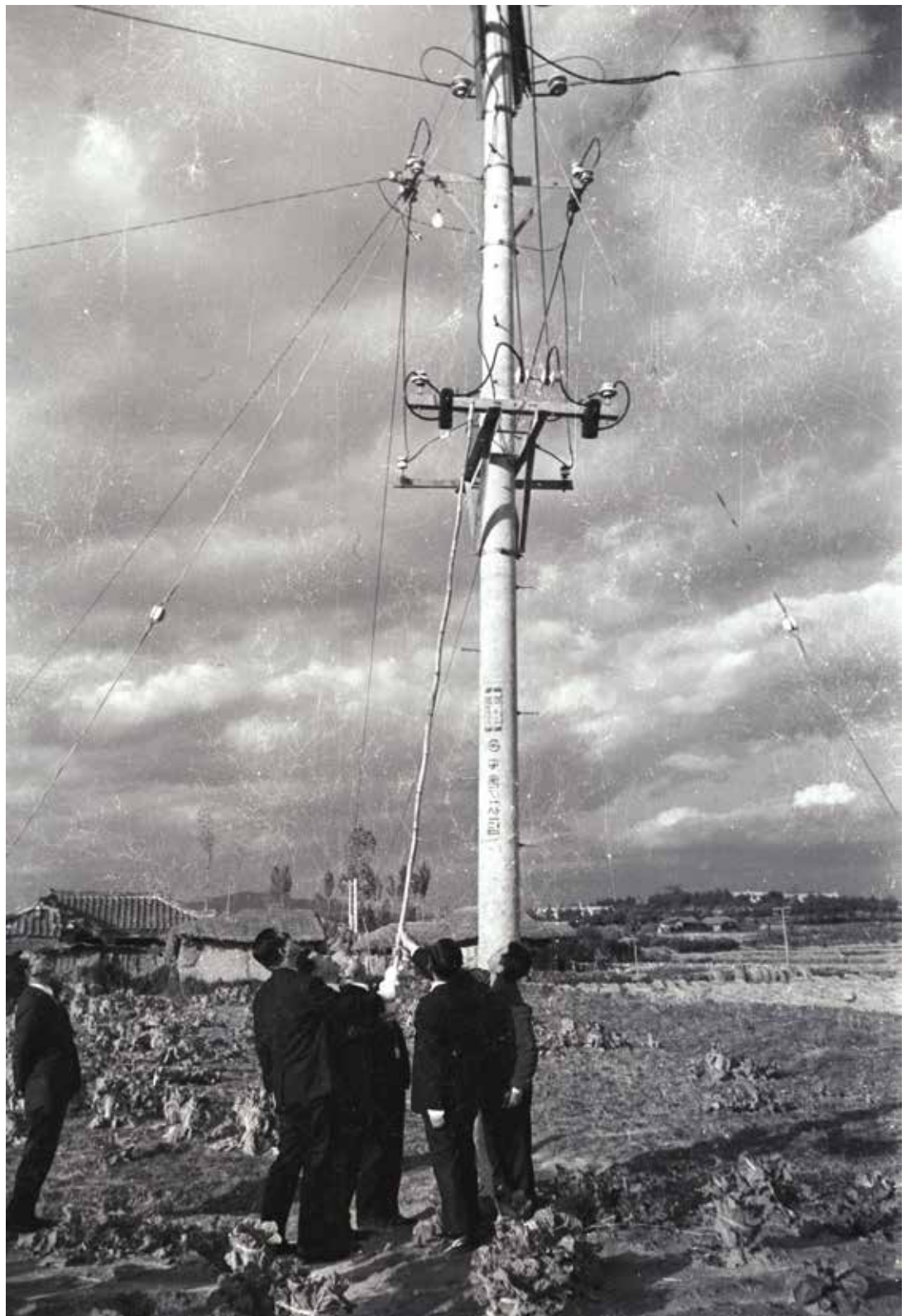
수원 역전 보도블록 공사(1972년, 수원시청 소장)



하수도 공사(1980년, 연무동, 수원시청 소장)



창룡문-지동 제일교회 간 상수도 통수식(1975년, 수원시청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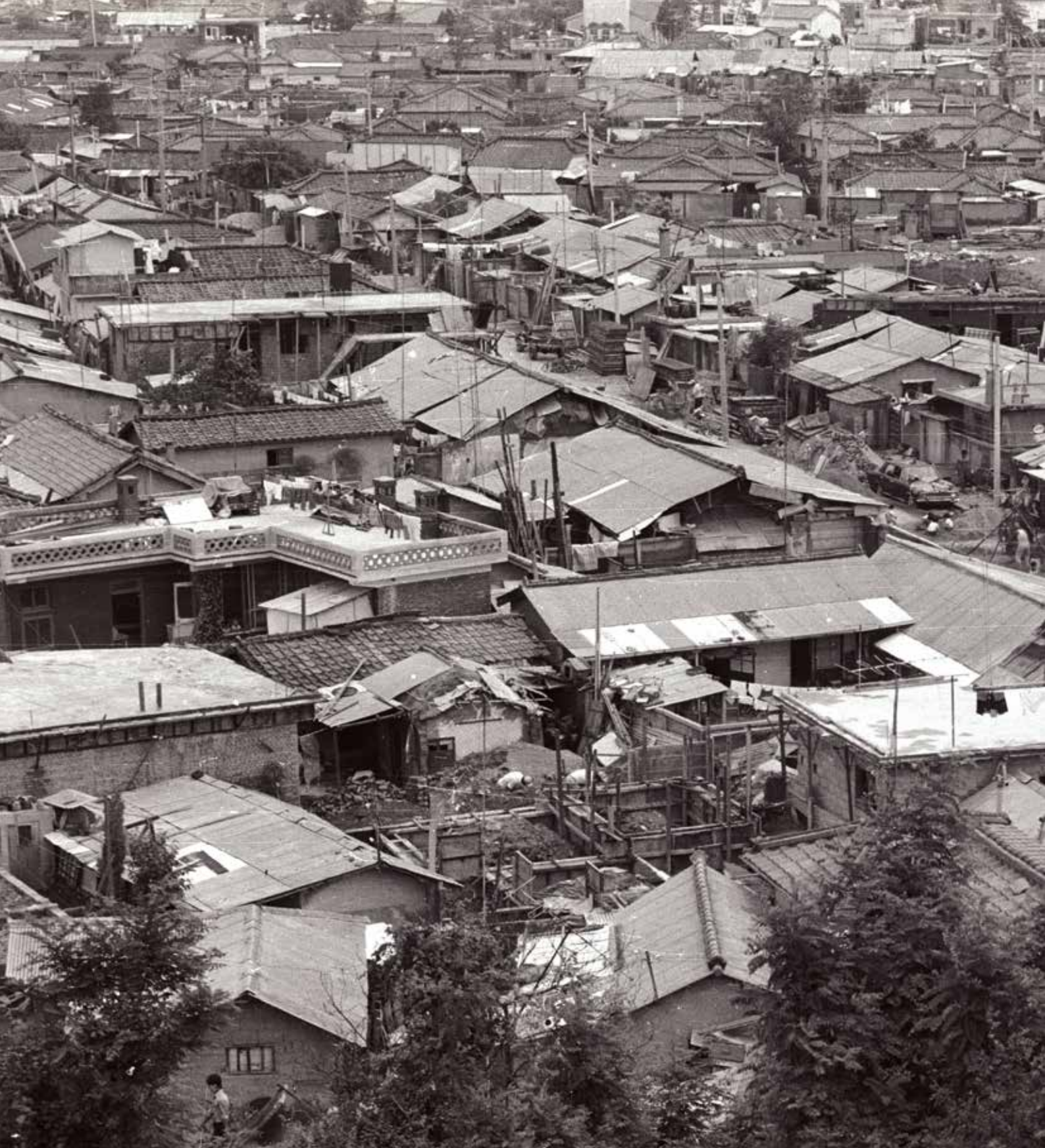
세류동 신곡동 점등식(1970년, 수원시청 소장)



수도권 전철 개통(1974년 8월 15일, 수원역,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수도권 전철 개통(1974년 8월 15일,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연무동 재개발지구(1979년, 수원시청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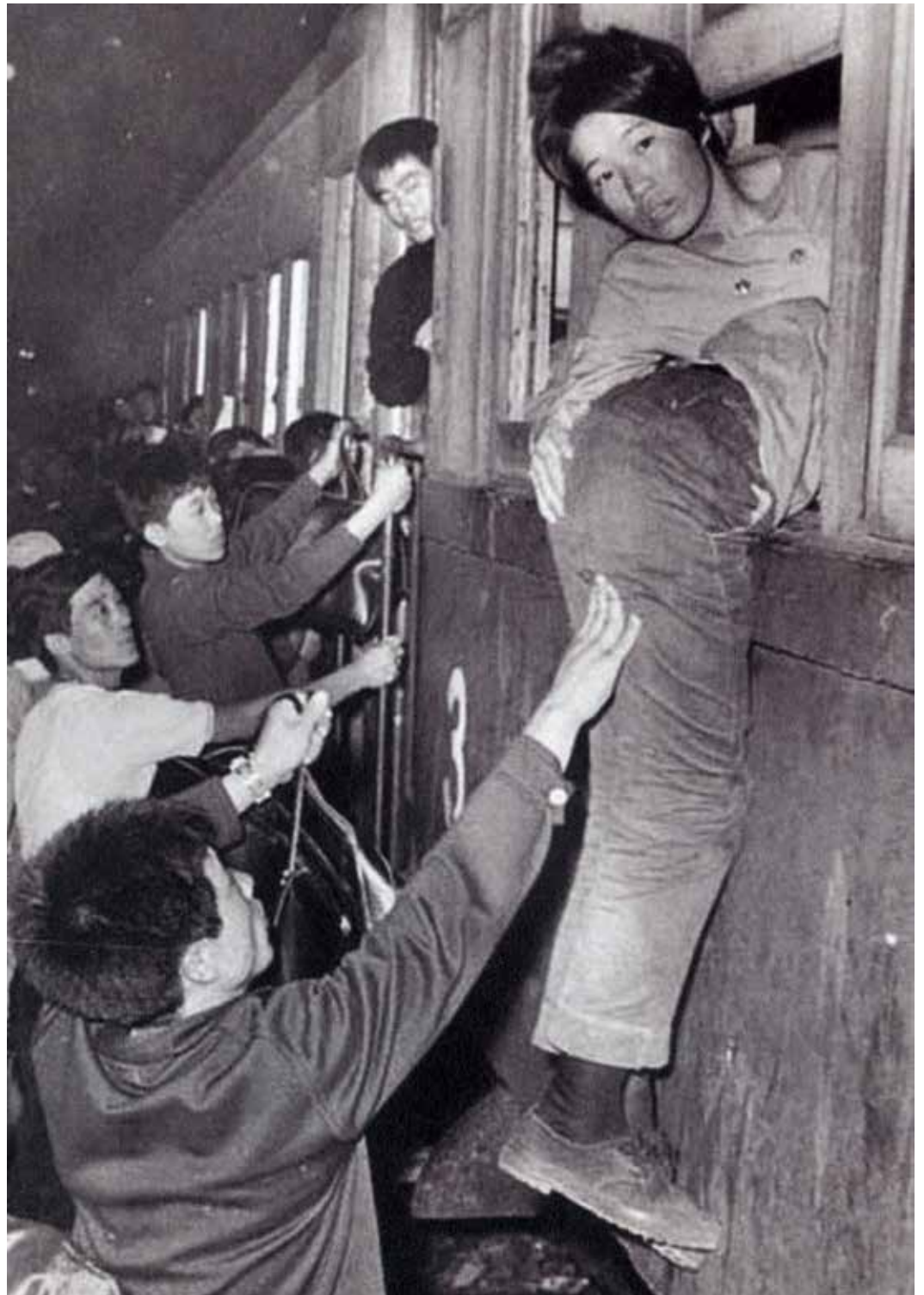


영동시장 일대 천변 간이점포 철거(1972년, 수원시청 소장)



간이점포가 철거된 수원천변(1972년, 수원시청 소장)

도시민으로 산다는 것



1960년대 말 수원역의 추석 귀성인파(경인일보사 소장)



간판, 이촌향도를 말하다.(1979년, 연무동, 수원시청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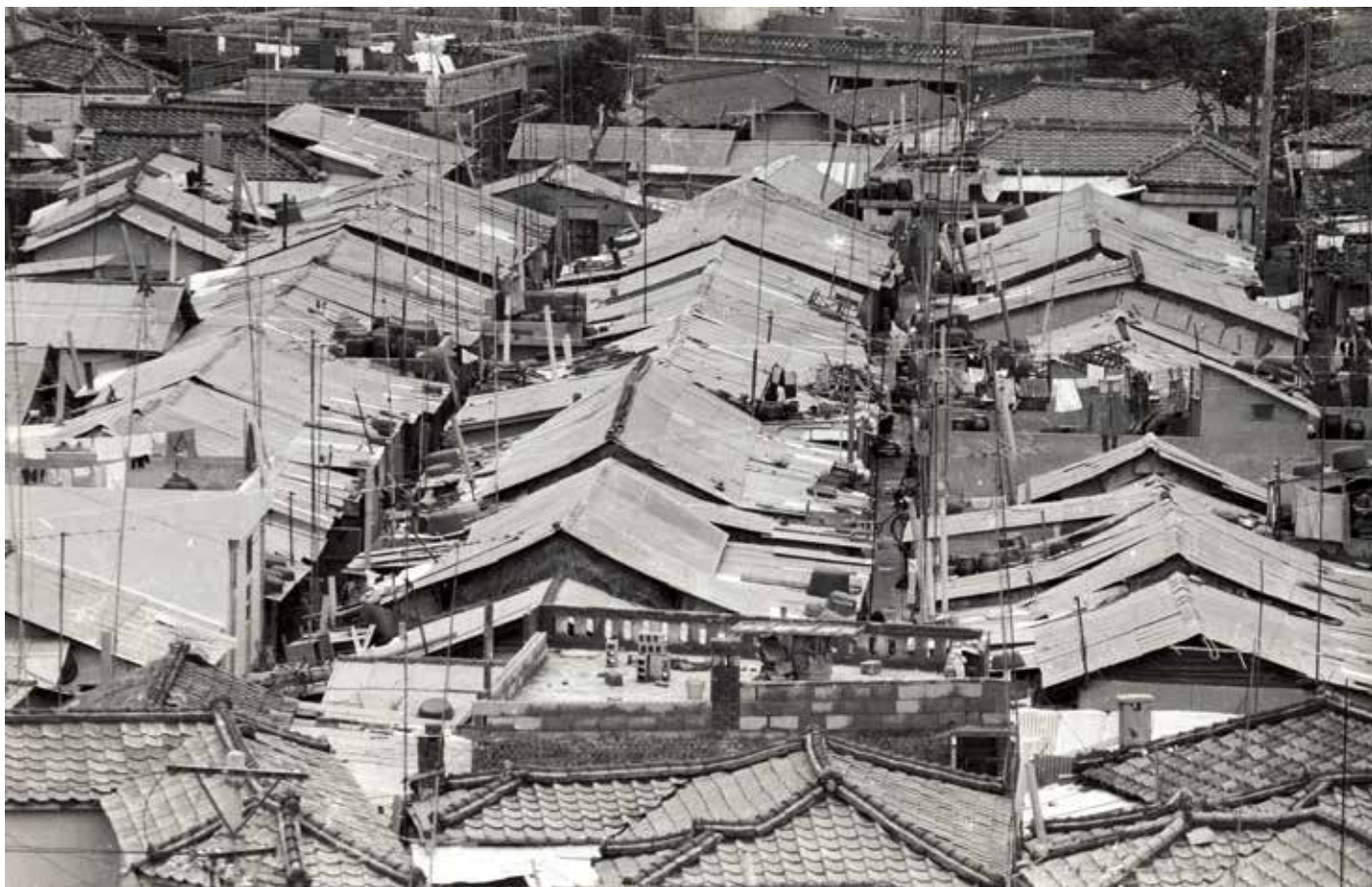


화서동사무소 개소(1978년, 수원시청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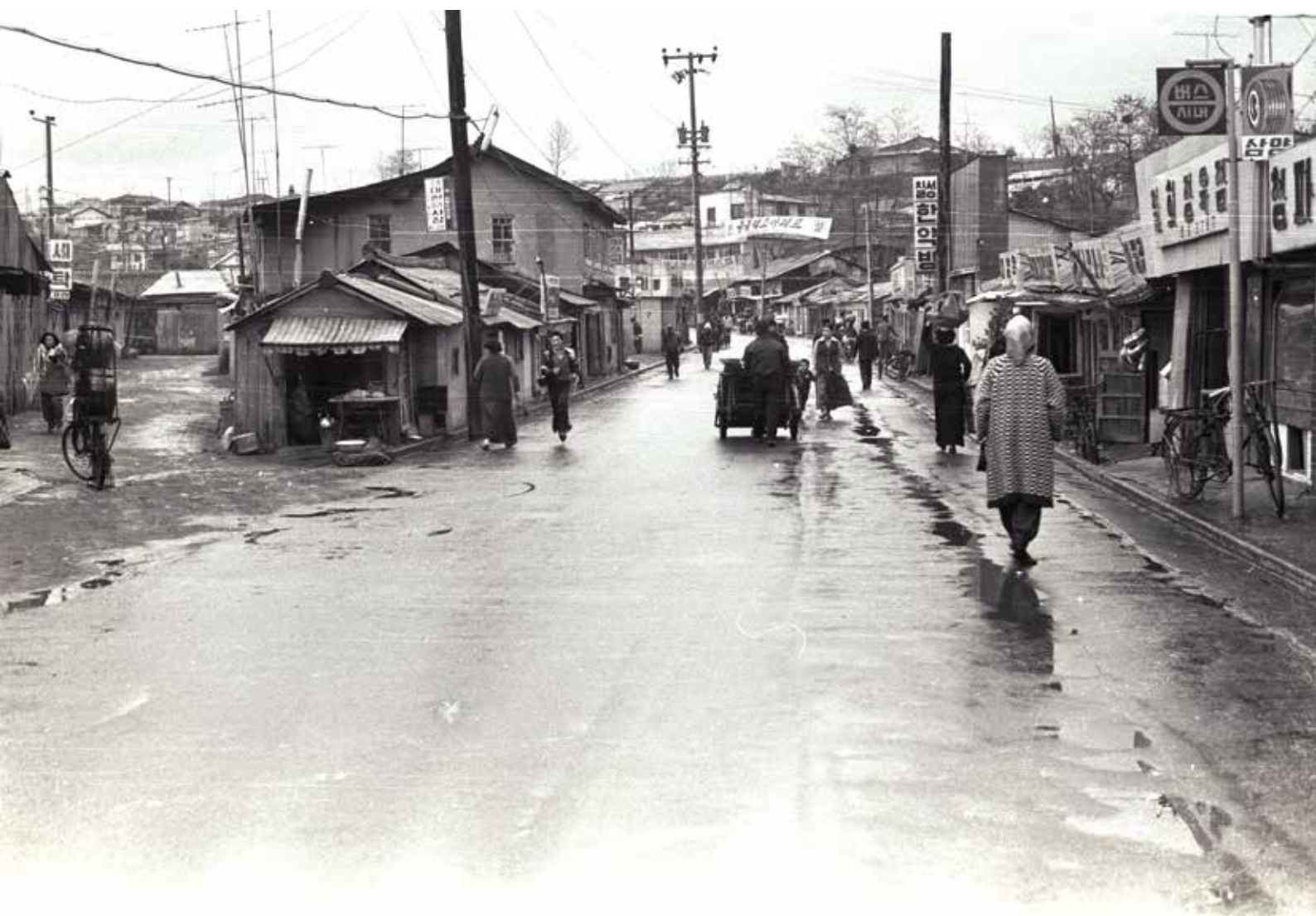
고화지구 개발 이후 유입 인구가 급증하여 고화동으로 관할되던 화서동과 고등동이 분동되었다.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건너는 시민들(1969년, 팔달문, 수원시청 소장)



지붕과 지붕이 맞닿은 연무동 주택가(1979년, 수원시청 소장)



매향동 거리(1978년, 수원시청 소장)



수원시 아파트의 시작, 화서동 서문아파트(1970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4개 동으로 이루어진 서문아파트 전경(1971년, 수원시청 소장)



인계동 향원아파트 모델하우스(1976년, 수원시청 소장)



투기바람이 불었던 화서아파트(1977년, 수원시청 소장)



내 집 마련의 꿈(1980년, 신풍동 옛 주택은행, 수원시청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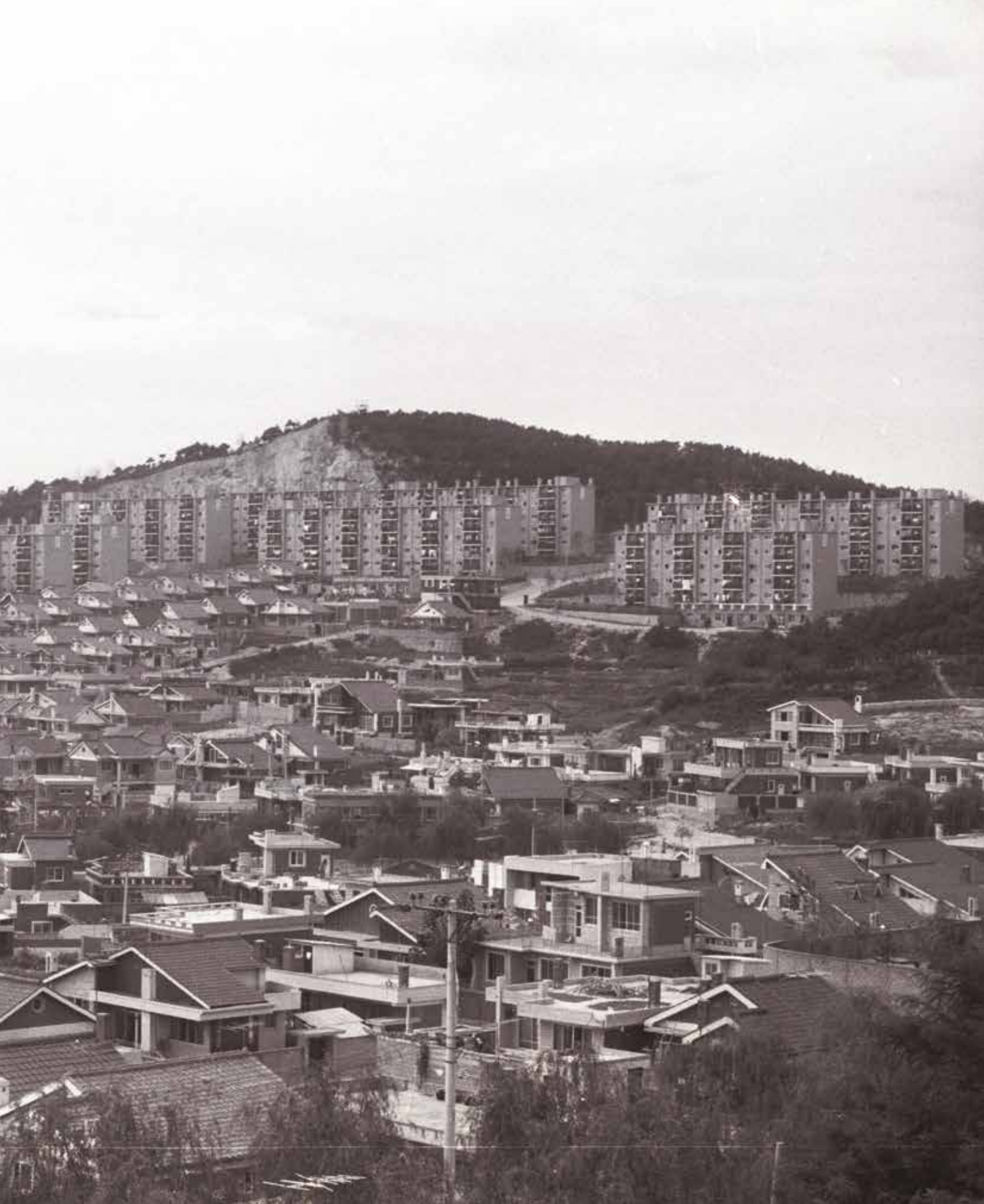




화서아파트 추첨에 몰려든 사람들
(1977년, 수원시청 소장)

아파트와 양옥으로 이루어진 도시의 주택가(1977년, 고화지구, 수원시청 소장)







삼원백화점 개점(1977년, 수원시청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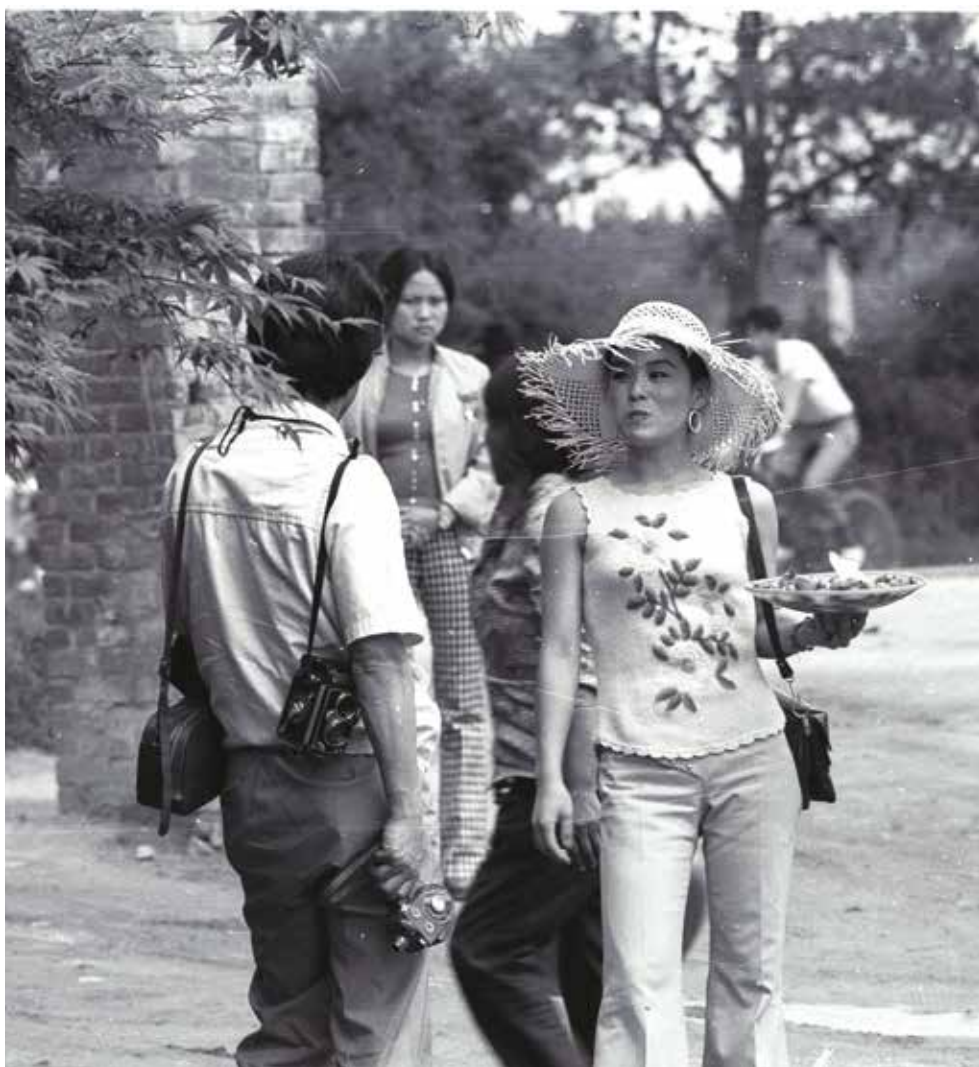
자유계량대(1979년, 수원시청 소장)



백화점에서 장보기(1976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휴일의 푸른지대(1971년, 서둔동, 수원시청 소장)



노송지대 딸기밭 나들이(1973년, 이목동, 수원시청 소장)





삼풍농원 풀장(1978년, 이목동, 수원시청 소장)



피서 가는 길(1978년, 수원시청 소장)

오토바이 탑승 규정인원 초과에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지만 그래도 즐겁다.



국제극장(1971년, 팔달로3가, 수원시청 소장)



분뇨 수거(1974년, 경인일보사 소장)



쓰레기 하치장(1978년, 수원시청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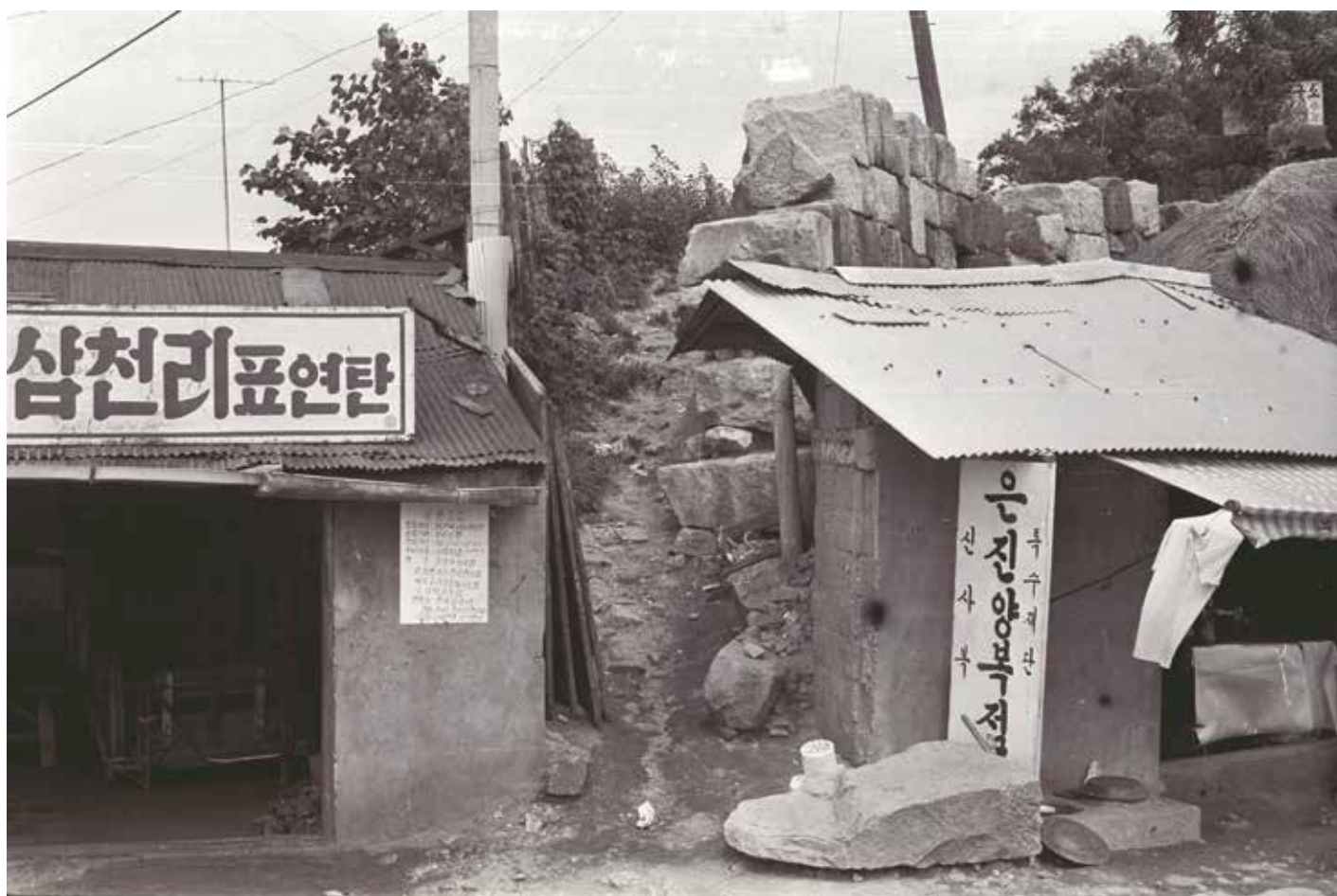
복원되기 전 장안문 일대(1971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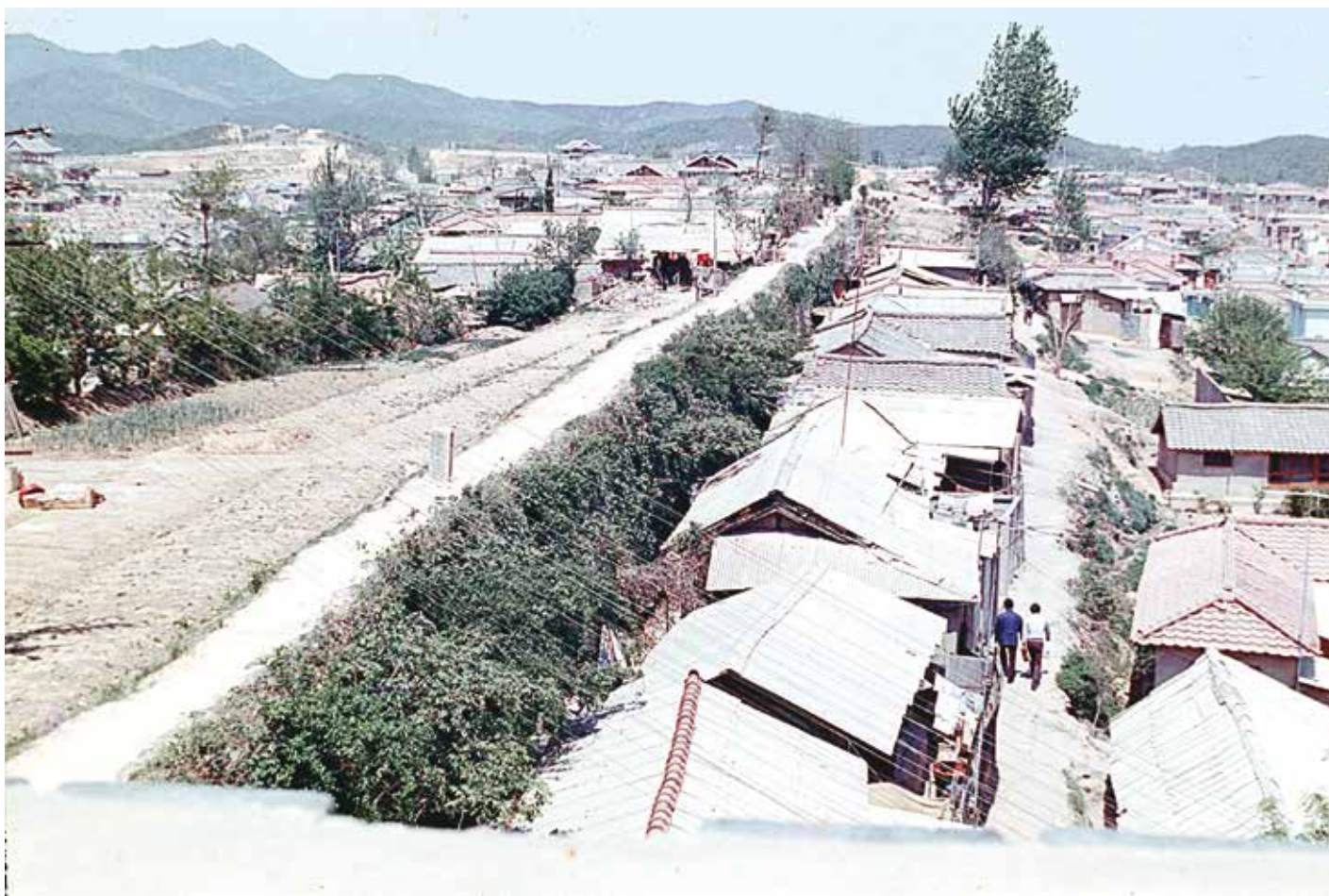
성벽 사이 지름길(1971년, 수원시청 소장)



문루가 도망가 버린 창룡문(이낙천 제공)



끊어진 성벽(1974년, 팔달산, 수원시청 소장)



성곽 여담 옆 주택가(지동, 이낙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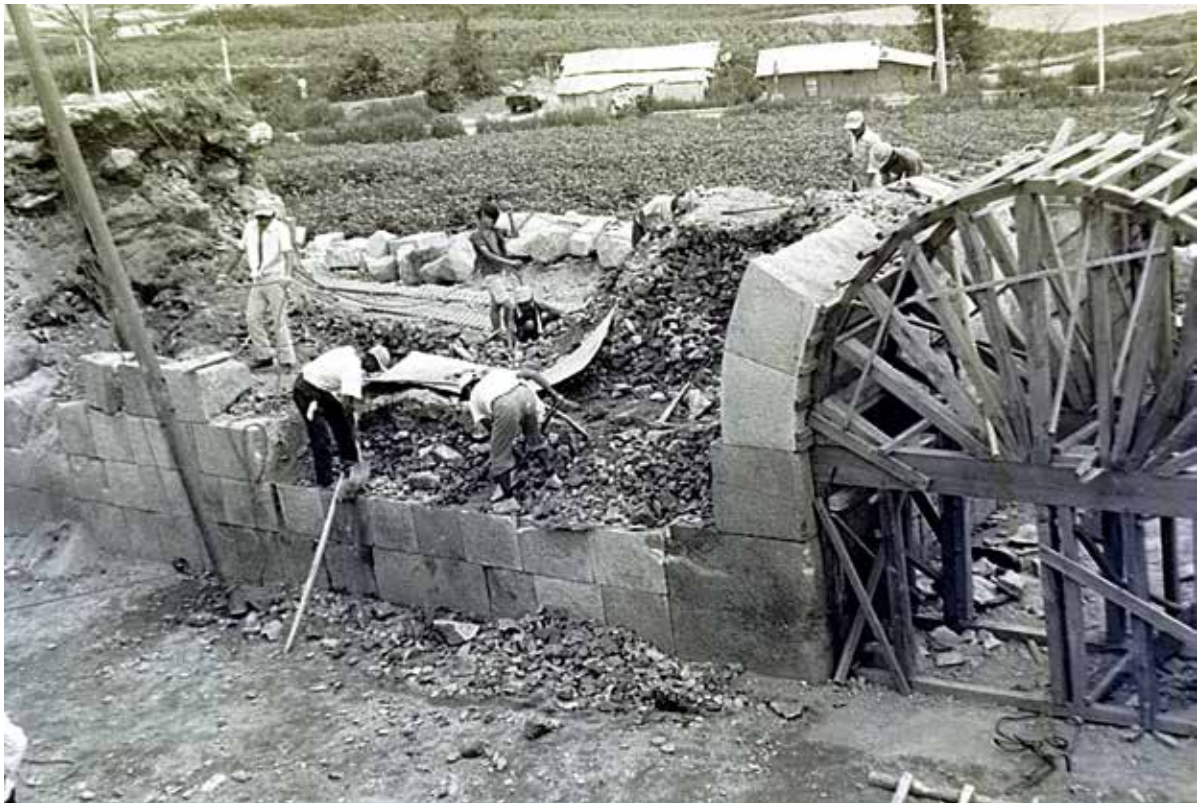
주택 담장이 된 동이치(이낙천 제공)



수원성곽 복원보수공사 기공식(1975년, 장안문, 국가기록원 소장)



장안문 1층 공포 복원(이낙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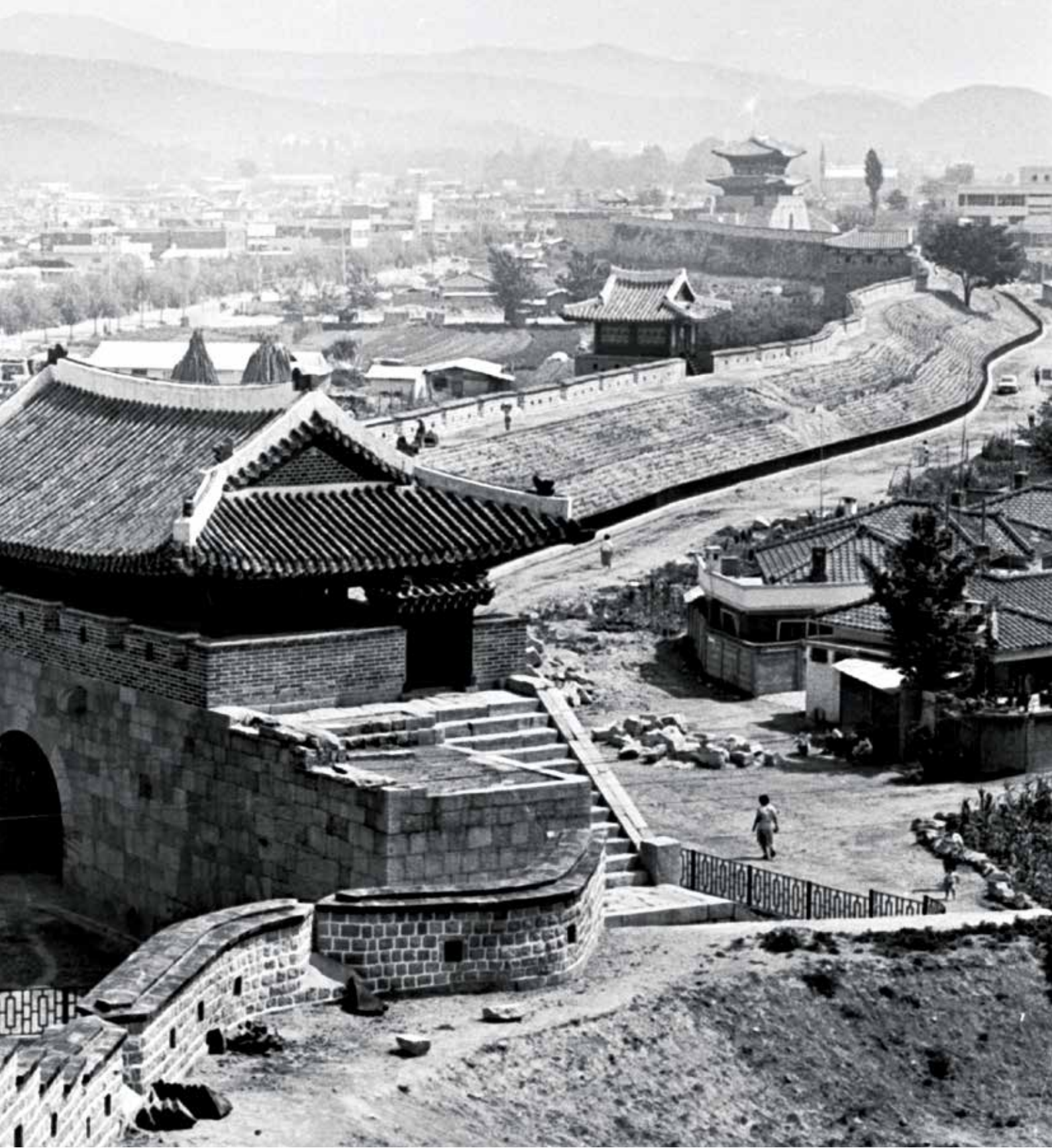


창룡문 홍예와 성벽 공사(이낙천 제공)



북서포루 복원(1976년, 수원시청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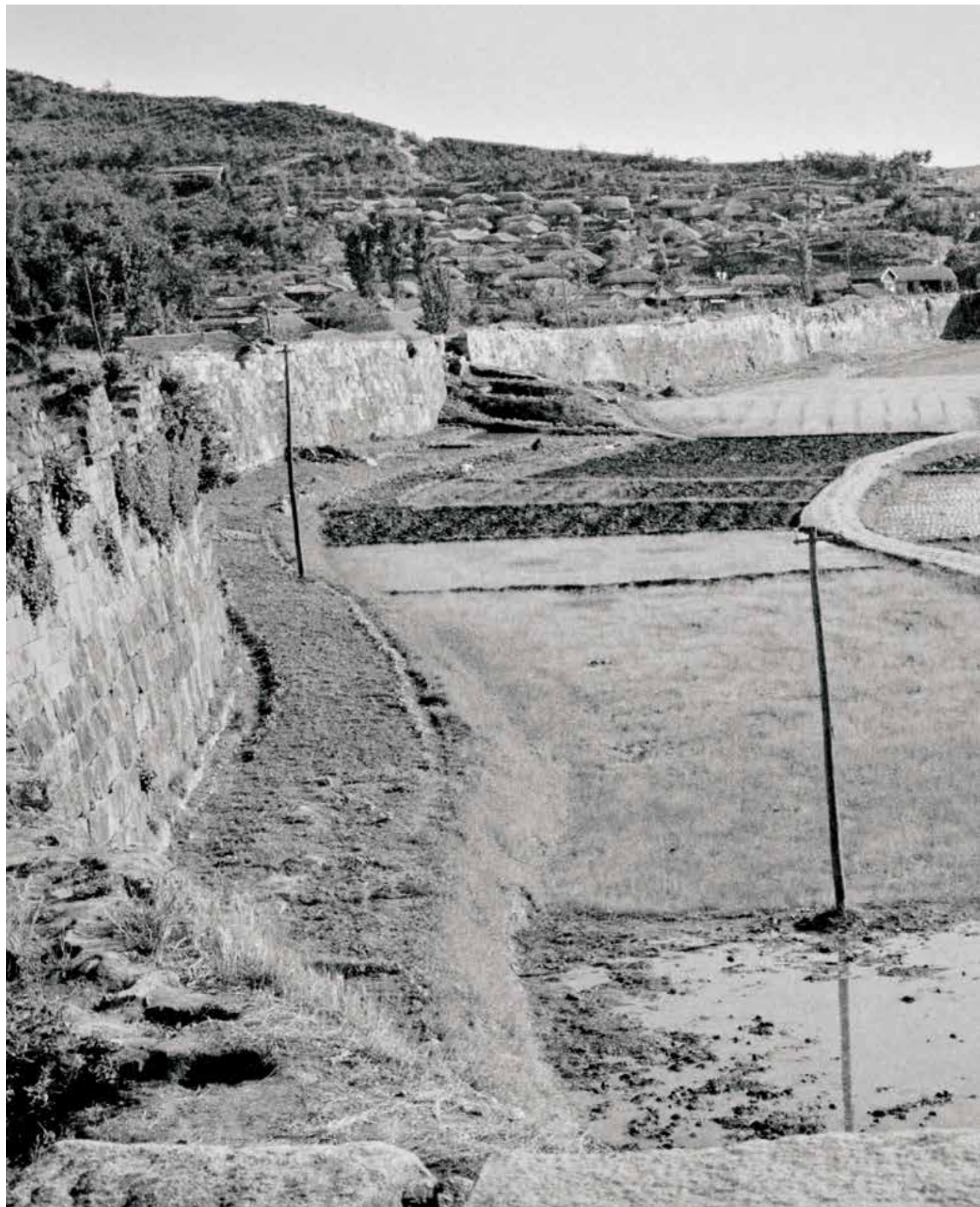


복원된 화성(1976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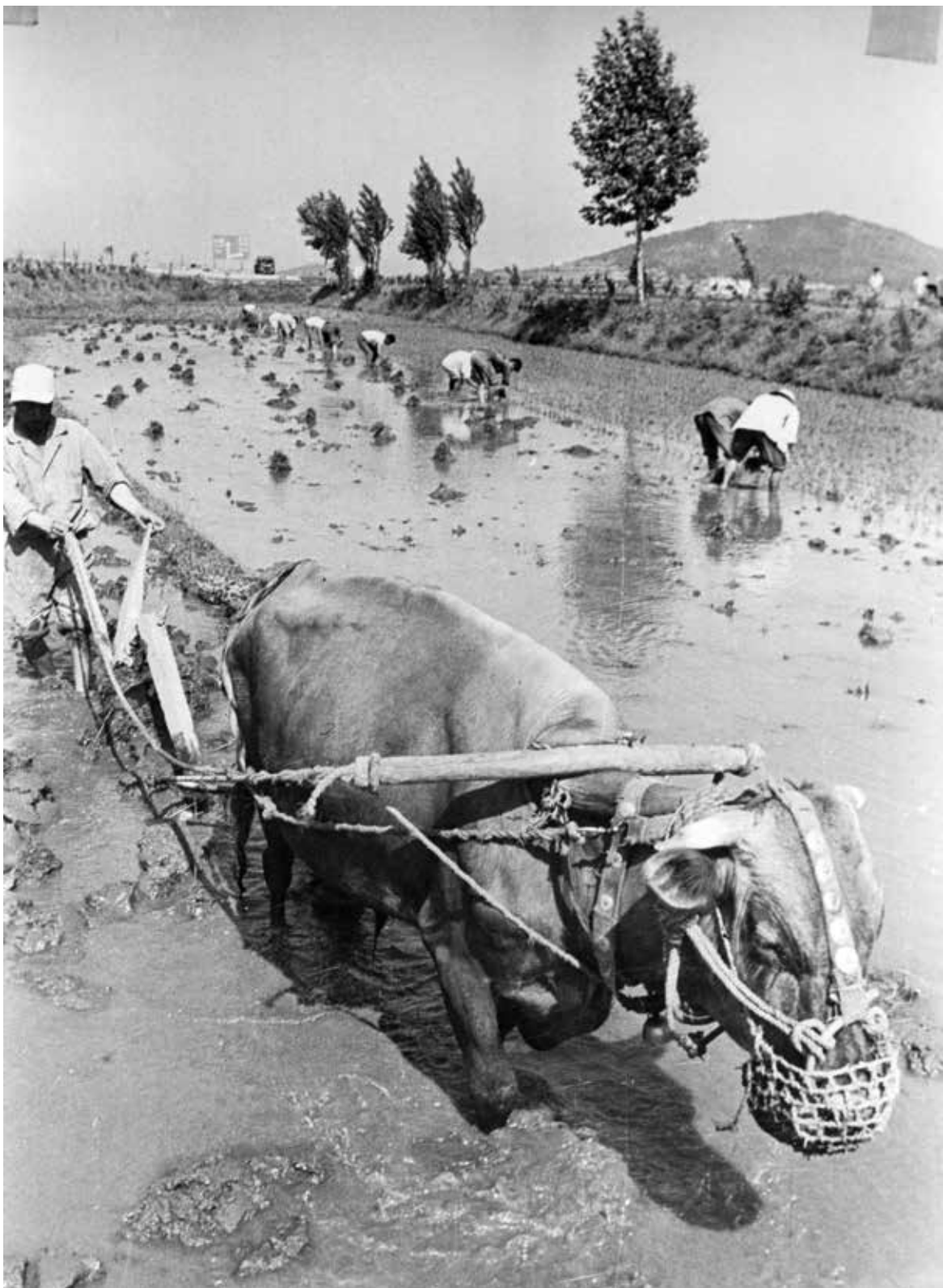
흔어지고
스며들다





장안공원의 옛 모습(1960년대,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모내기(1968년, 국가기록원 소장)



수확(1973년, 수원농민회관 부근, 수원시청 소장)



새 쫓기(1977년, 수원시청 소장)



가을 들판의 점심(1977년, 수원시청 소장)



타작마당(1966년, 국가기록원 소장)



가을 농부의 인심은 닭에게도 후하다.(1977년, 수원시청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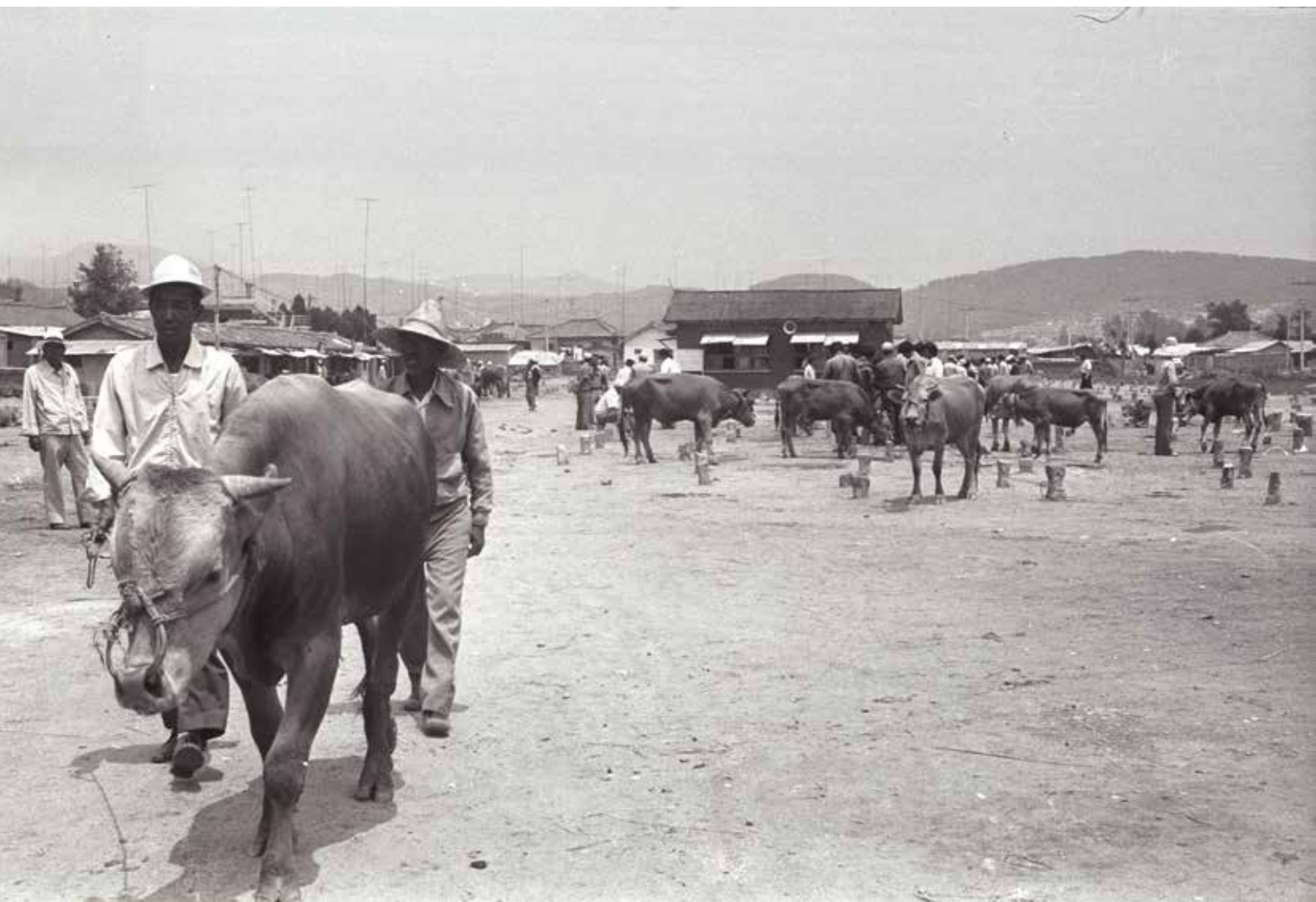
송죽동(1972년, 수원시청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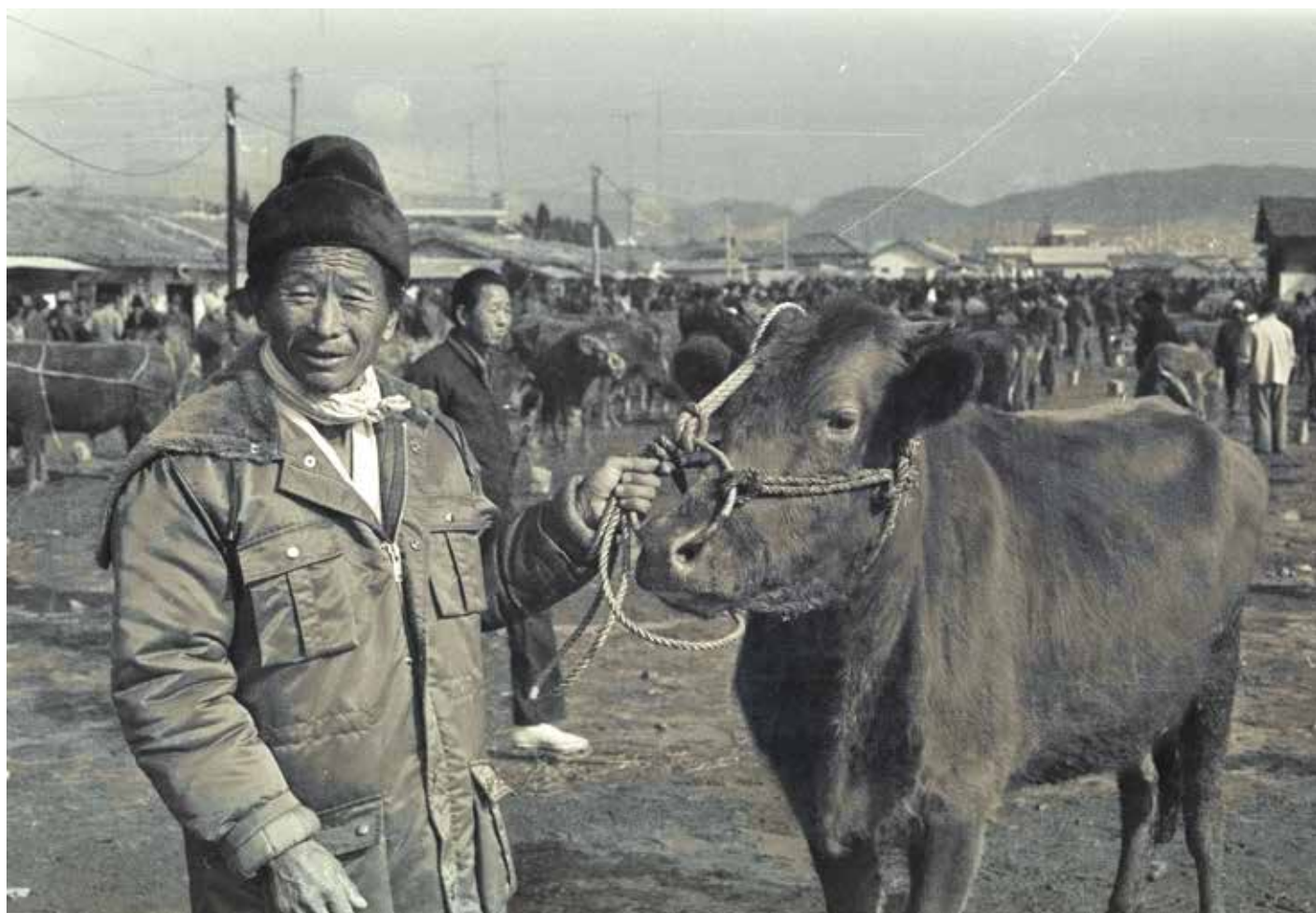
아스팔트 위의 소달구지(1972년, 서둔동, 수원시청 소장)



소달구지보다 빠른 경운기(1972년, 서둔동, 수원시청 소장)



영화동 우시장(1977년, 수원시청 소장)



농부와 소(1977년, 영화동, 수원시청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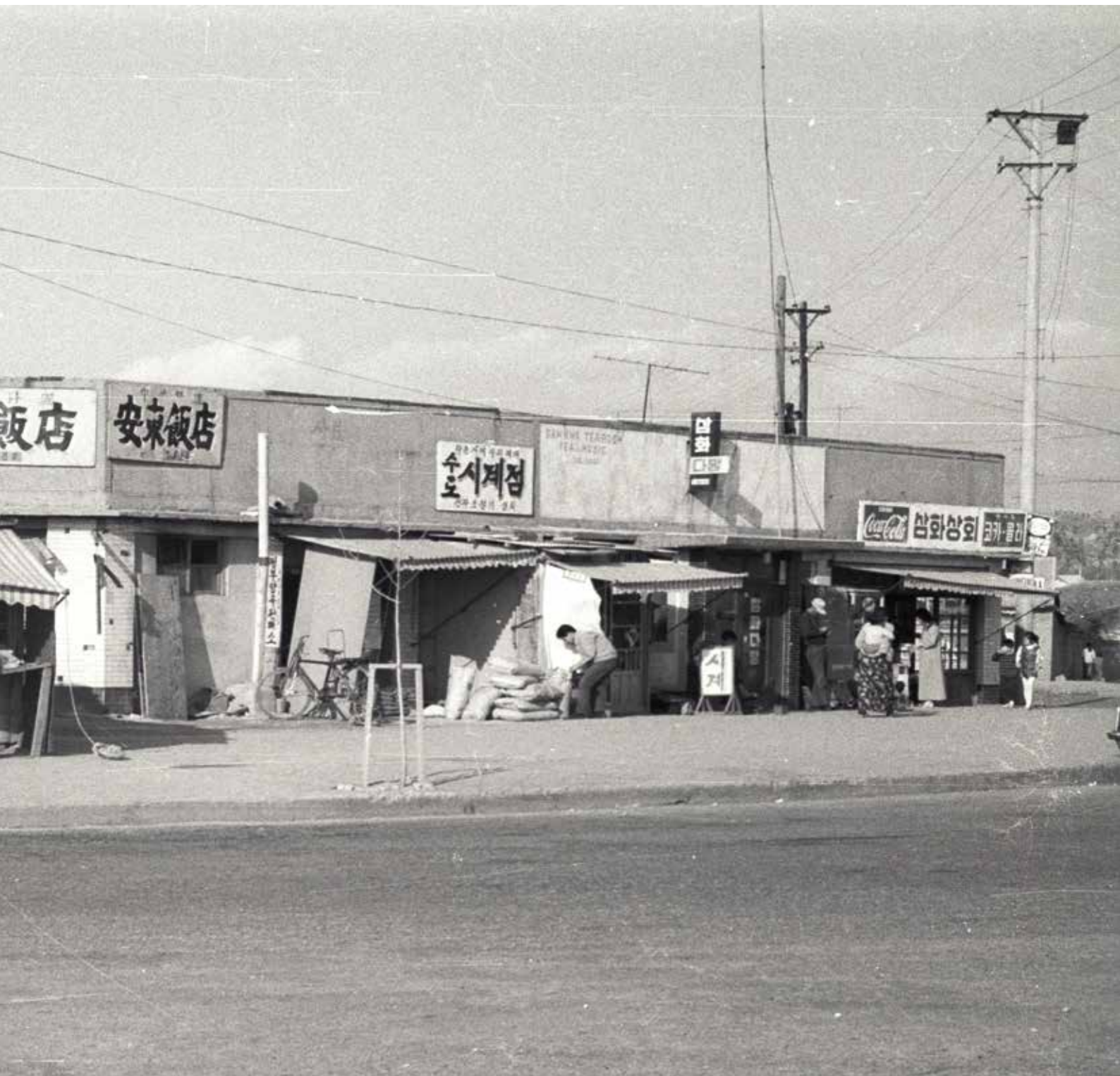


김장철 수원천변 상회(1969년, 북수동,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수원천변 상회 김장용 고추 판매(1969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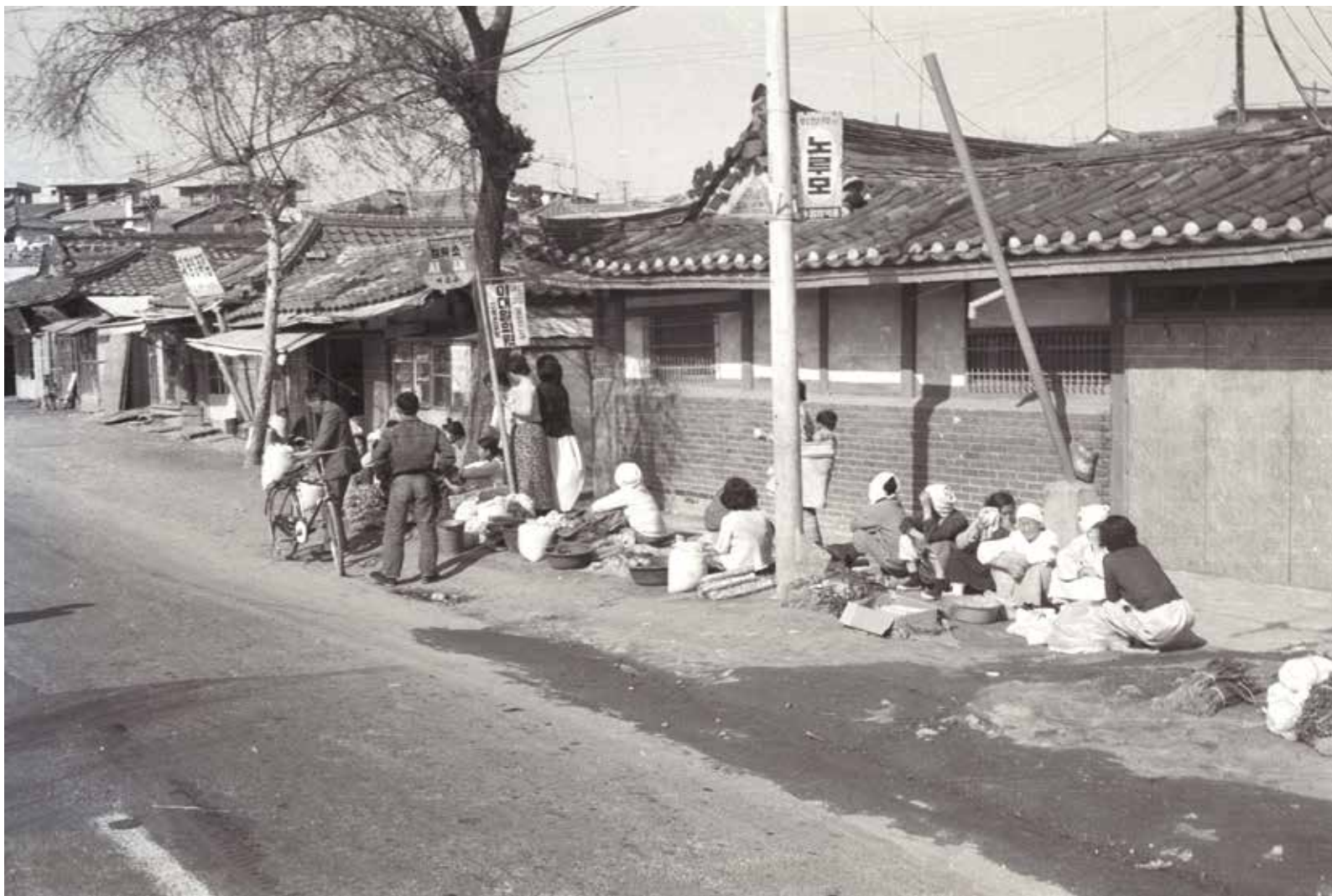




지지대선 도로 풍경(1974년, 수원시청 소장)



현 신발을 수선하던 신기료장수(1977년, 수원시청 소장)



매교동 버스 정류장(1972년, 수원시청 소장) 버스를 기다리는 중인지 노점을 차리고 앉아 있는 것인지……



비 내리는 영동 골목(1977년, 수원시청 소장)



인계동 매교 근처 선술집 골목(1979년, 수원시청 소장)



영동시장(1977년, 수원시청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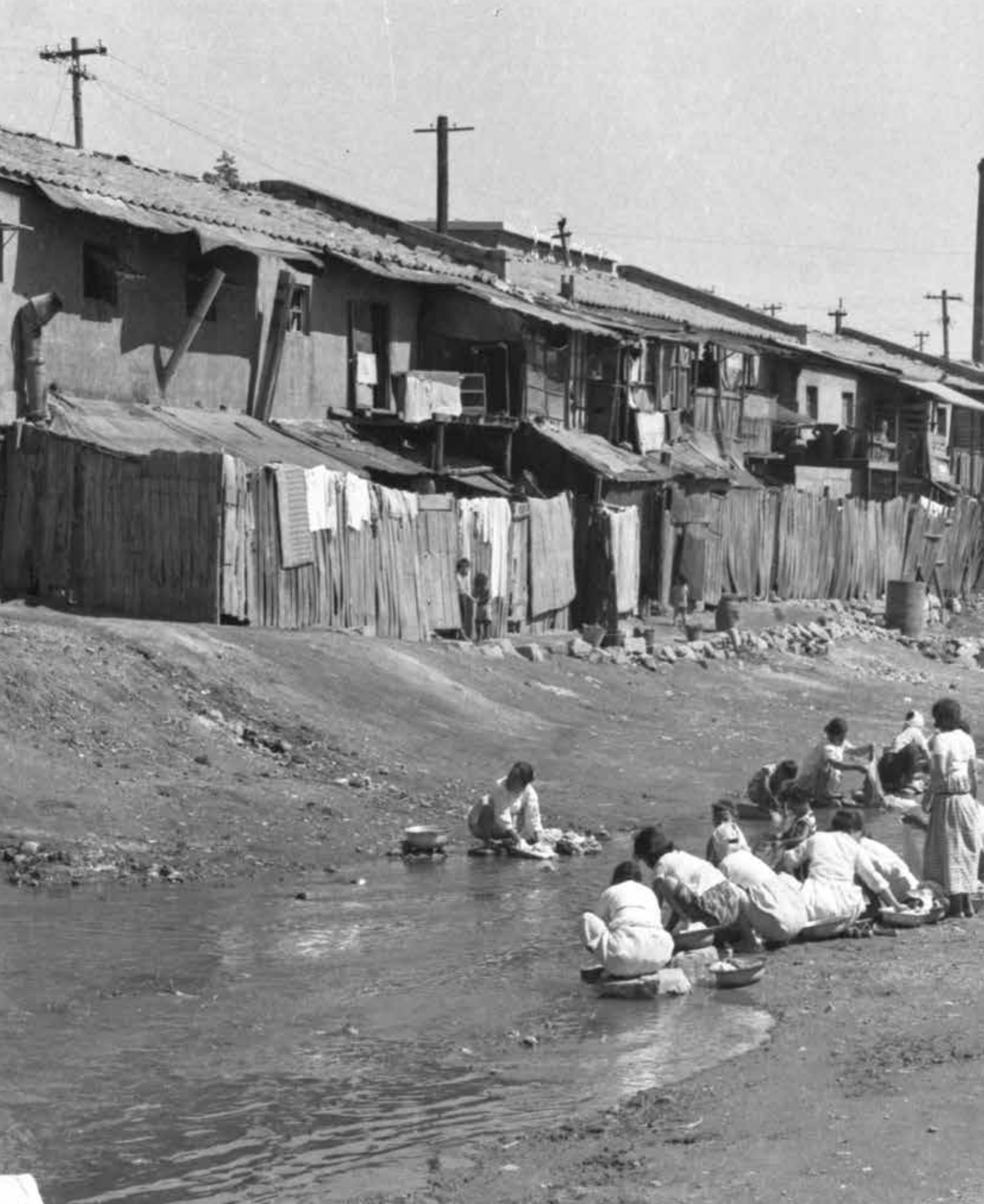
구명가게(1980년, 수원시청 소장)



간이점포가 있던 자리에 들어선 노점들(1973년, 수원시청 소장)



수원천변 노점 거리(1977년, 수원시청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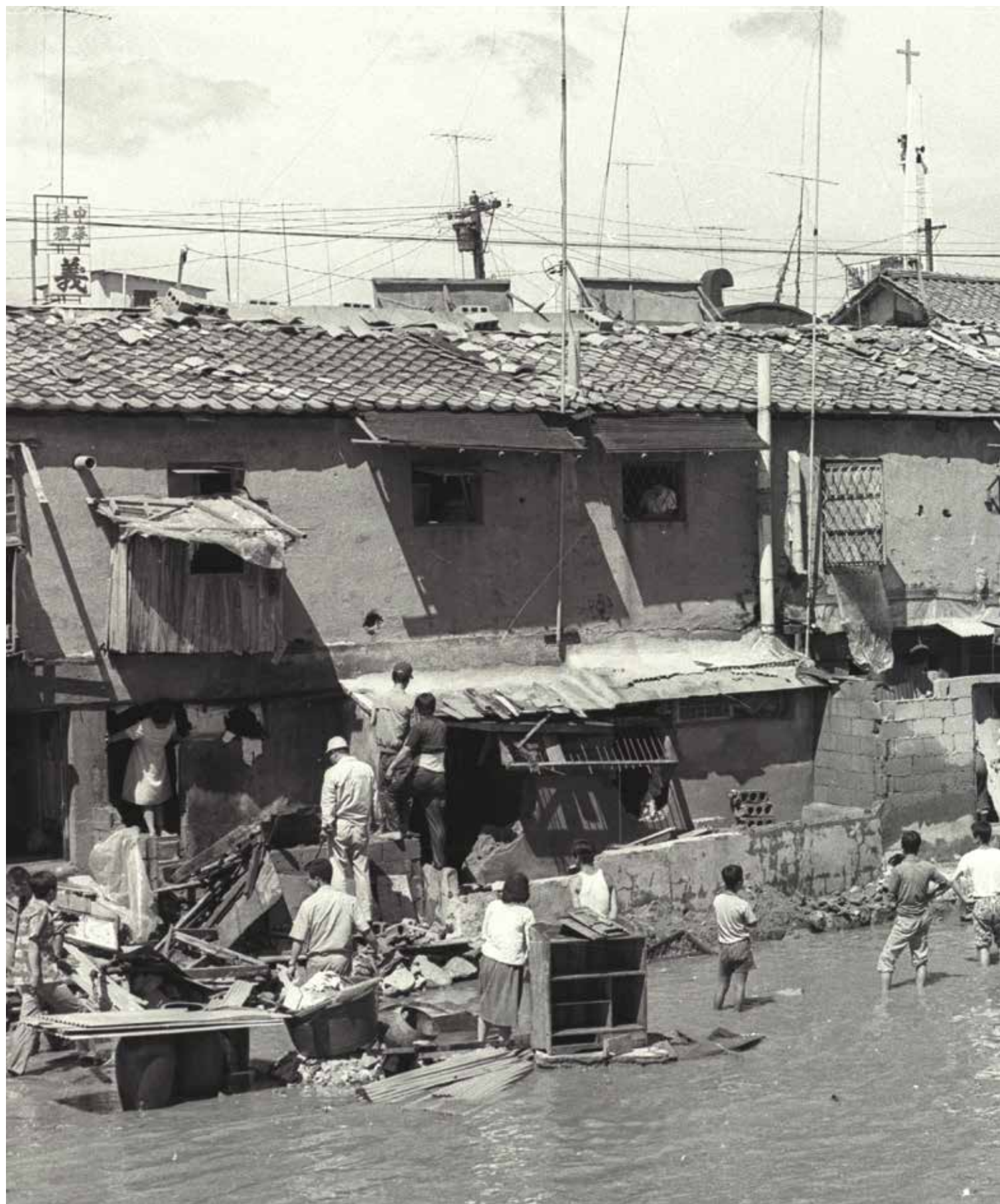


수원천 빨래터(1960년대,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일상의 공간, 수원천(1969년, 수원시청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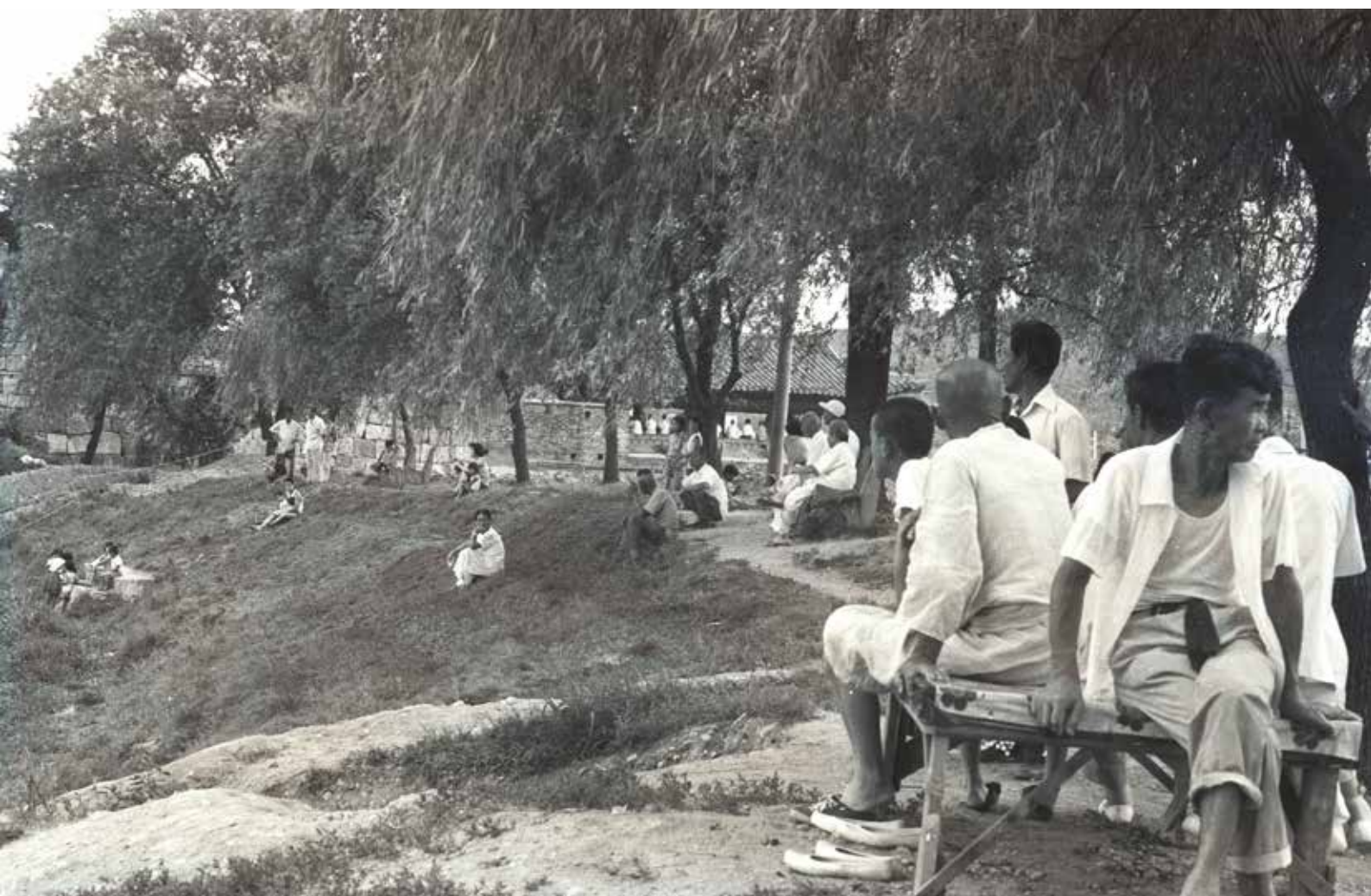




수원천 수해(1972년, 수원시청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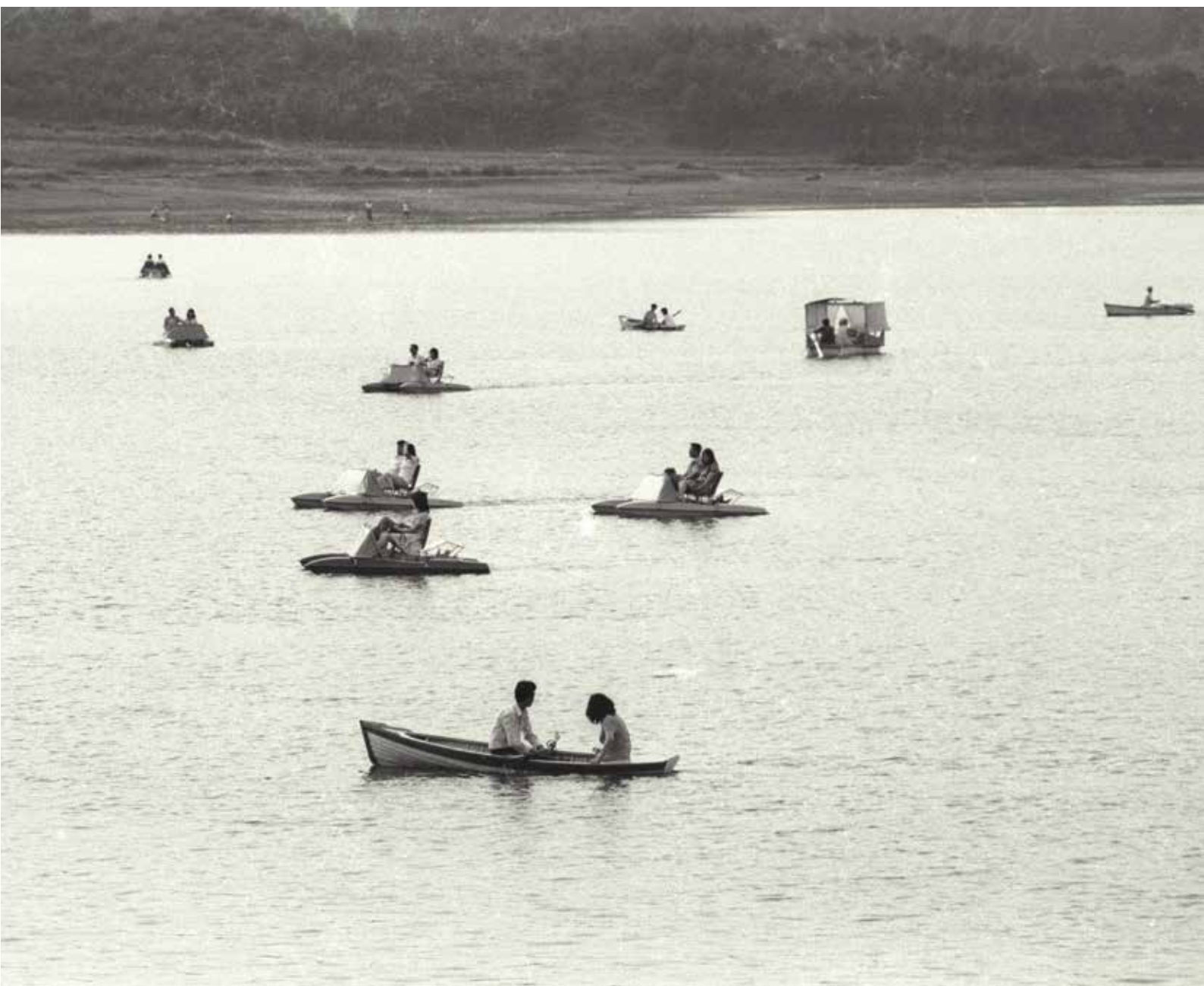
화홍문 피서객(1976년, 수원시청 소장)



용연의 여름날 오후(1976년, 수원시청 소장)



원천유원지(1976년, 수원시청 소장)



원천유원지(1976년, 수원시청 소장)





일월저수지 학교 소풍(1977년, 수원시청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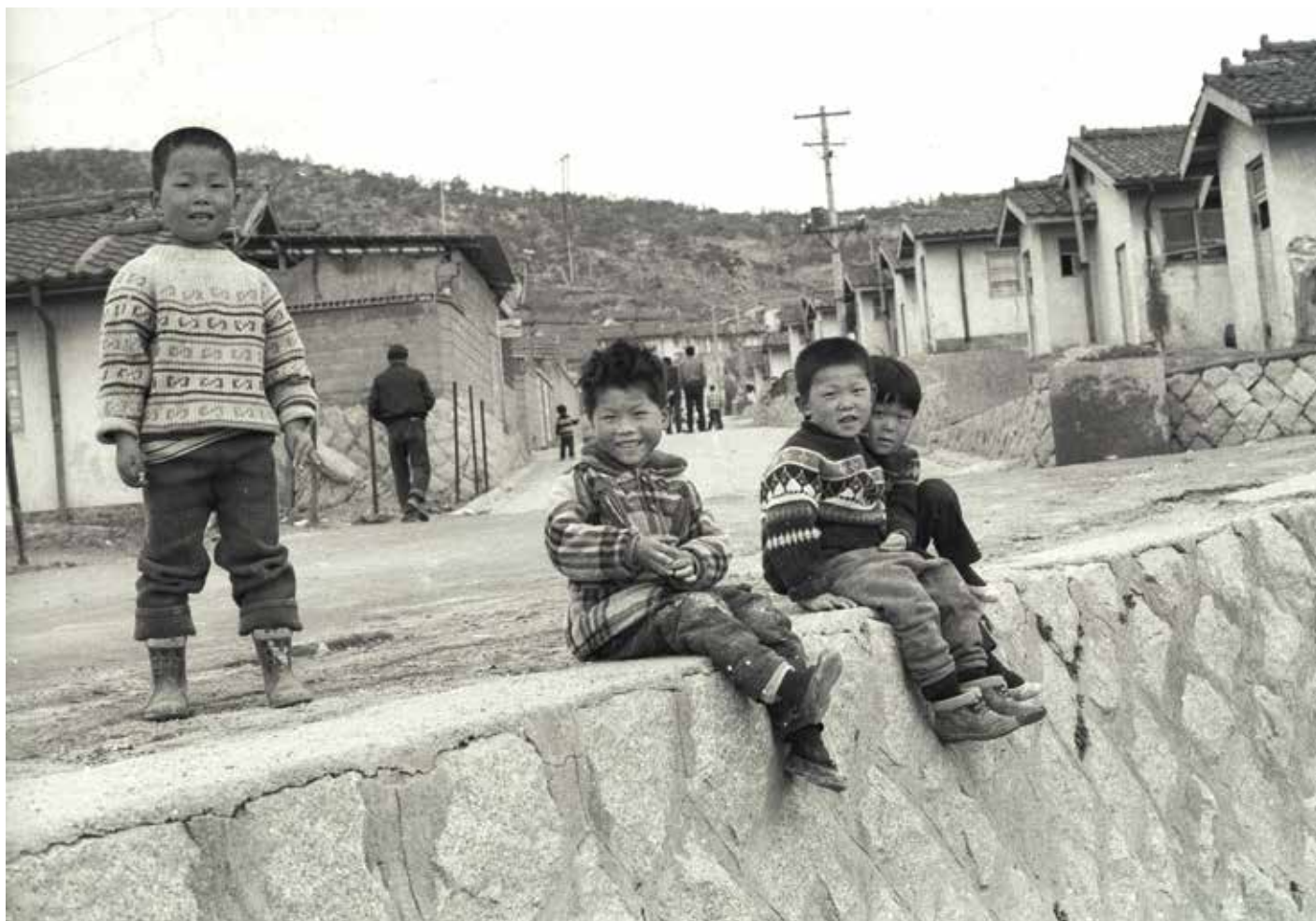


화서초등학교 운동회(1972년, 수원시청 소장) 동네 잔치날 풍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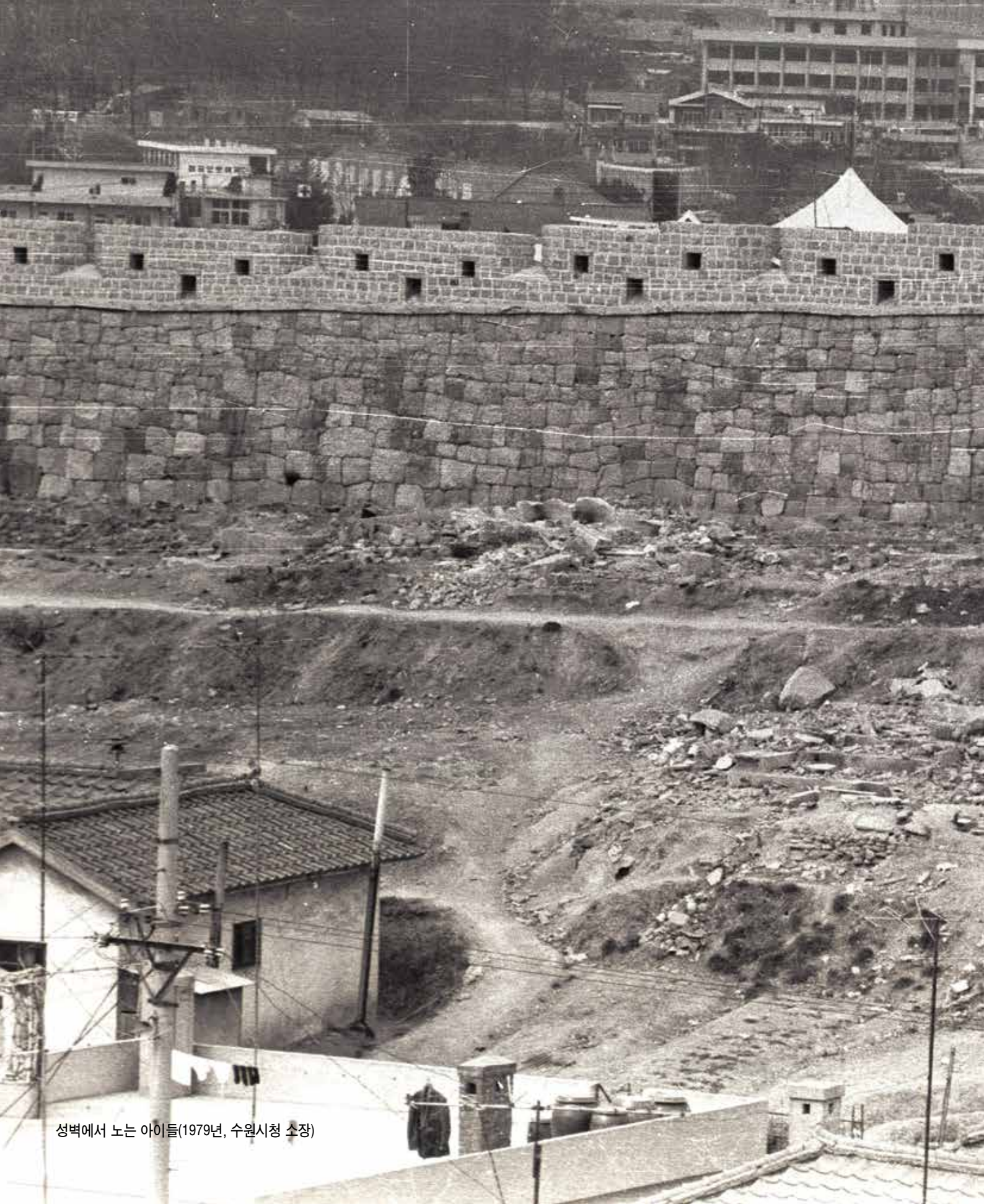
남창초등학교 우두 접종(1976년, 수원시청 소장)



연무동 아이들(1972년, 수원시청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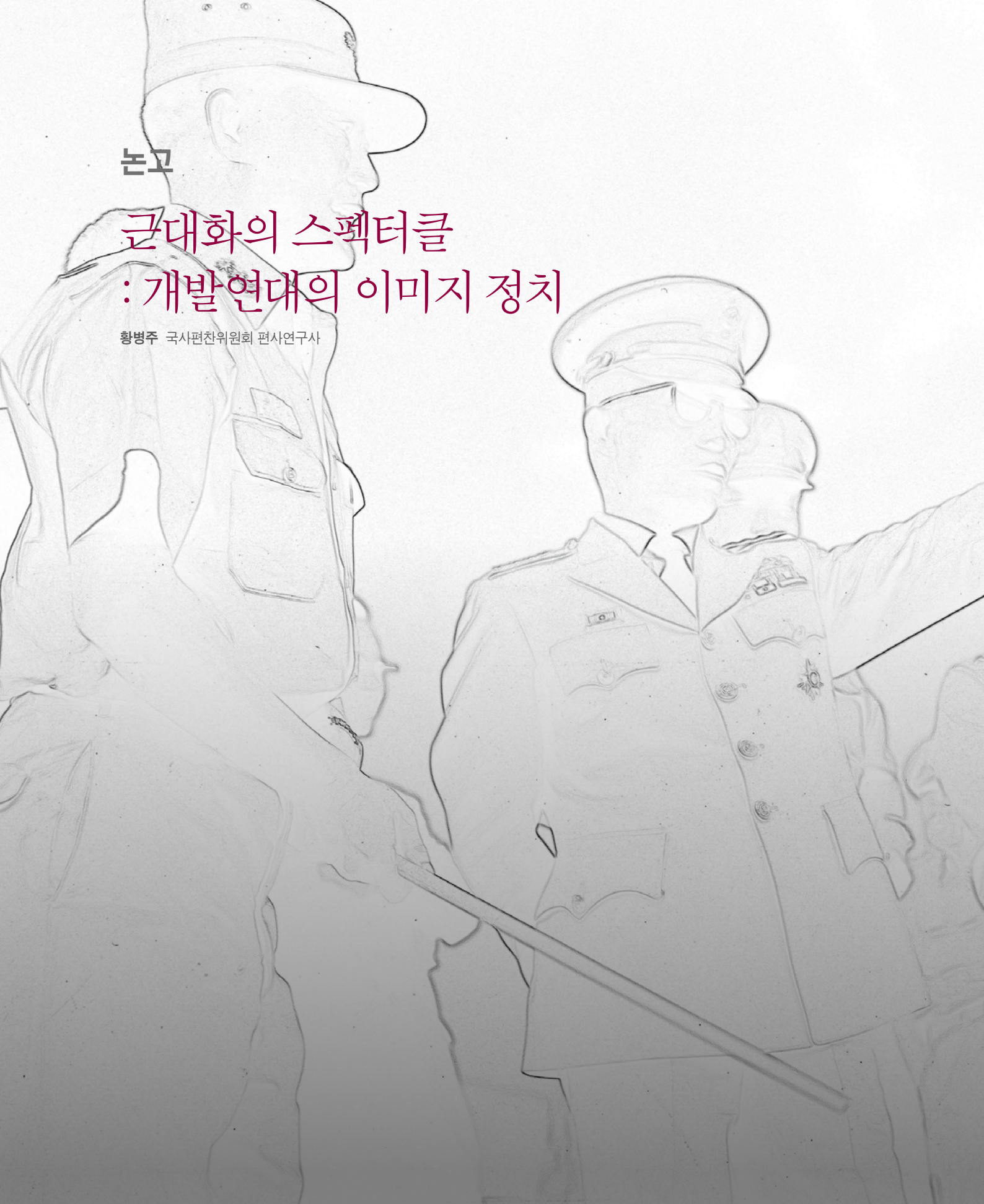


눈 내린 날(1977년, 수원시청 소장)



성벽에서 노는 아이들(1979년, 수원시청 소장)





논고

근대화의 스펙터클 : 개발연대의 이미지 정치

황병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근대화의 스펙터클 : 개발연대의 이미지 정치

1. 사진과 이미지 정치

한국에서 사진기술이 도입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개항 이후였다. 1884년에는 지운영에 의해 최초의 사진관이 설립되었고 1895년에는 김규진이 경운당이라는 사진관을 개설했다. 대략 1890년대 후반에 사진기술이 도입되어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할 것이다. 일제시기에는 사진기술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각급학교 졸업사진 촬영이 관례화될 정도였고 신문·잡지와 같은 각종 대중매체에도 흔하게 게재되기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진의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기는 1960년대 이후이다. 1960년대는 4·19와 5·16으로 시작되어 본격적인 경제개발로 특징되는 시대였다. 조국 근대화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정책은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수천 년간 지속된 농업사회가 불과 수십 년 만에 공업 위주의 산업사회로 전변되었다. 근대화정책은 결국 기존의 전통적인 농촌공동체를 해체하고 도시 중심의 대중사회를 만들어 냈다.

유례를 찾기 힘든 급속한 산업화 속도는 사람들의 삶 또한 크게 바꿔 놓았다. 여기 포함된 사진들만 보아도 수원 지역의 급속한 변모 양상을 알 수 있다. 이제 사진이 아니라면 불과 수십 년 전 수원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돌진적 근대화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산업화정책을 거세게 밀어붙인 박정희 정권은 또한 본격적인 대중정치를 펼친 정권이기도 했다. 왕족의식이 유별났던 이승만 정권이나 귀족 풍모를 풍겼던 윤보선과 장면과는 달리 박정희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서민의 아들’로 죽겠다고 공언했는가 하면, 농민들과 논두렁에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기도 했다.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정권은 윤보선을 귀족과 특권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자신을 농민의 아들로 이미지 메이킹했다.

이러한 박정희 정권의 대중정치는 곧 이미지 정치이기도 했다. 박정희 정권의 이미지 정치는 산림녹화, 새마을운동, 산업체 시찰, 각종 퍼레이드 등을 통해 잘 드러

난다. 산림녹화는 민둥산을 없애기 위한 실용적 목적도 있었지만 풍요로운 번영과 발전의 상징으로 울창한 숲을 강조했던 이미지 정치와도 관련되었다. 박정희는 식목일을 제정하여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식목행사를 개최했다.

이렇게 박정희가 산림녹화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조국 근대화라는 정책 목표를 위한 이미지 정치와 관련되었다. 박정희는 선진국의 울창한 산림을 보고 풍요와 번영의 상징처럼 이해하고 한국의 민둥산을 보고 험벗고 굶주린 후진국의 이미지를 떠올리곤 했는데, 푸르고 울창한 숲이야말로 근대화의 주요한 목표였던 것이다.

새마을운동의 주요 목표는 농촌환경 개선이었는데, 이 역시 이미지 정치와 무관치 않았다. 취락구조 개선, 지붕 개량 등을 강조한 이유는 곧 근대화된 농촌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 새마을운동의 주요 목표는 세 가지로 천명됐다. 환경 개선, 소득 증대와 함께 정신혁명이 그것이었는데, 이 중에서 환경 개선은 가장 뚜렷한 효과를 본 목표였다. 반강제적으로 시행된 지붕 개량과 취락구조 개선을 통해 농촌 마을의 외관상 이미지는 급속도로 변모하였다. 특히 고속도로가 확대되면서 주요 도로변 마을의 이미지는 더 이상 전통적 마을의 모습이 아니었다.

산업체 시찰 또한 근대화의 성과를 대중적으로 확인시키고자 했던 이미지 정치의 일환이었다. 대대적인 시찰단이 조직되어 주요 산업지대를 방문하여 거대한 공장과 산업시설을 보여 줌으로써 근대화의 위력과 그 성과를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외에도 박정희 정권은 이전 정권에서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이미지 정치를 시도했다.

대표적인 것이 각종 퍼레이드였다. 1960년대는 일종의 퍼레이드의 시대였다. 베트남으로 파병되는 병사나 기능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을 위시해 선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의 모든 행사는 퍼레이드로 장식되었다. 종이 꽃가루가 날리며 화환을 목에 건 채 무개차에 탑승하고 시내를 활보하는 카퍼레이드는 1960년대 이전까지 생소한 장면이었는데, 정권의 업적을 적극적으로 대중에 현시하기 위한 이미지 정치였다.

국군의 날 군사 퍼레이드는 대표적인 안보 이미지 정치였다. 이를 위해 여의도에 조성된 거대한 광장(5·16광장)은 애초 계획과 달리 아무런 장식이나 시설물이 없는 아스팔트 공간이었다.¹⁾ 그것은 곧 연병장을 연상시키는 공간이었는데, 군사 퍼레이드를 위해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셈이었다. 군사 퍼레이드는 박정희 정권기 행해진 가장 대표적인 군사·안보 관련 이미지 정치 사례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미지 정치는 육영수의 이미지를 목련에 비유하는 상징정치에서도 확인

1) 5·16광장 조성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양택식은 애초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 물을 본떠 세로 축의 광장에 잔디와 나무 등으로 조경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을 보고받은 박정희는 아무것도 설치하지 말고 아스팔트 광장으로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파일장병 귀국환영 수원 시내 카퍼레이드(1973년, 수원 시청 소장)

된다. 박정희의 살벌하고 딱딱한 군인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부드럽고 자애로운 권력을 강조하기 위해 육영수는 최대한 부드럽고 우아한 목련꽃 이미지로 연출되었던 것이다.

이미지 정치는 실제 현장의 행위 연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즉 특정 이미지를 연출하고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현장 연출만으로는 부족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진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사진 이외에도 이미지 정치를 위해 영화와 방송 등의 영상매체도 동원되었지만, 특정 이미지를 가장 손쉽게 널리 확산시키는 데에는 사진만한 것이 없었다.

사진은 근대적 기술의 중요한 한 측면을 보여 준다. 그 결정적인 의미는 시선의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 이미지의 새로운 시공간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사진기술이 개발되기 이전 인간의 시선은 시공간의 절대적 제약 속에 놓여 있었다. 특정한 주체의 시선은 특정 시공간 속에서만 가능했고 타자와의 공유는 불가능했다.

주체의 시선은 특정한 시간성 속에서만 현존했다. 시간을 넘나드는 것은 오직 주체의 이미지화된 시선으로만 가능했다. 예컨대 어떤 풍경에 대한 시선은 주체의 기억 속에 남은 이미지로만 재현될 수 있었고 그 기억이 사라지거나 희미해져 버리면 애초의 생생한 시선은 존재할 수 없었다.

물론 인류의 재현 수단으로 그림이 나타난 것은 매우 오래된 일임에 틀림없었다.



선경직물을 방문한 박정희 (1961년, SK 소장)와 수원 내 여성행사에 참석한 육영수(1971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박정희의 살벌하고 딱딱한 군인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부드럽고 자애로운 권력을 강조하기 위해 육영수는 최대한 부드럽고 우아한 목련꽃 이미지로 연출되었던 것이다.

알타미라 동굴의 그림들은 인류가 자신의 시선을 재현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오래된 일이었으며 그만큼 인간 삶의 결정적 부면을 이루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왜 인간은 자신의 시선을 재현하고 싶었을까. 인류가 대상화된 이미지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된 가장 결정적 이유는 타자와의 관계 때문이었을 것이다. 인류의 삶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면 그 관계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삶의 알파이자 오메가일 것이다. 타자와의 관계는 인간이 소지한 모든 감각을 총동원하는, 온몸으로 밀고 육박해 가는 치열한 실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간의 모든 감각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결정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온 것이 바로 시각이었다.

서구의 인식론적 역사 속에서 매번 확인되는 것은 시각 중심의 이성주의였다. 이미 그리스 시대부터 인간의 이성, 즉 로고스는 시각적인 것, 밝은 빛에 다름 아니었다. 인간 이성은 암흑에서 빛으로 향하는, 다시 말해 세계에 대한 어떤 시각을 확보하게 되는 것과 진배없었다. 이로부터 계몽의 기본 개념이 도출되었다고 하겠다. 계몽은 말그대로 'enlightment', 빛을 비추는 것이었다. 무지와 거짓이 암흑으로 유비되고 진리가 빛으로 은유되었던 것은 서구 인식론의 오래된 문법이었다. 그것은 단지 유비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간 사유의 핵심 기반으로 취급된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이라고 예외일 수 없었다. 백문이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이란 말에서 나타나듯이 인간의 모든 감각의 정점에는 시각이 있었다. 청각 언어를 뛰어넘는 시각의 절대성은 인간이 세계를 파악하고 전유하는 메커니즘의 핵심이었다.

시각이 인간 감각의 정점을 차지하고 또 그에 기반한 이성적 사유와 행위를 규정하고 있었다면, 언어야말로 시각 중심성을 보여 주는 핵심 장치였다. 인간의 모든 특성 중 언어는 가장 특이한 위치를 차지한다. 언어는 단지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특

이성의 증거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을 가능케 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구현시키는 핵심 도구가 된다고 하겠다. 요컨대 인간의 사유 자체가 언어를 통해서만 진행될 수 있기에 인간 이성, 나아가 인간의 사유 전체가 언어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의 출발은 물론 청각 언어로 시작되었지만 문자 언어를 만들어냄으로써 전혀 다른 차원의 언어질서로 들어가게 되었다.

청각 언어의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은 문자 언어는 인간 사유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게 되었고, 결국 진리의 언어를 독점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인간 삶을 문자 언어로 재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로소 역사가 가능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삶은 문자 언어를 통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문자 언어의 위력은 곧 시각 중심성의 재확인에 다름 아니었다.

청각 언어로 전달되는 인간의 사유는 찰나적이고 순간적이며 무엇보다 완벽한 재현이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청각 언어는 진리의 언어가 되기에는 곤란했다. 반면 문자 언어는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 동일한 사유의 내용이 수많은 타자들 사이에서 공유 가능하게 된다. 동일한 텍스트를 서로 다른 타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로소 관계가 안정적으로 성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부터 모든 진리는 문자 언어 텍스트로 집중되어 거대한 지식의 집적으로 연결되었다. 독서야말로 인류의 지식과 지혜를 한 개체에 재현하는 핵심적 실천 과정이 된 것이다.

따라서 독서라는 시각적 행위와 사유 과정은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되며 시각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으로 존립하기조차 힘들게 되었다. 이렇게 시각이 절대적 감각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시각적 이미지의 역할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해졌다고 하겠다.

시각적 이미지가 개체의 순간적 시선을 넘어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원초적 매체가 곧 그림이었다. 그러나 그림은 시선의 직접성과 사실의 재현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는 행위는 불가피하게 주관성을 개입시킬 수밖에 없고 이 주관성은 시각의 절대성을 훼손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림은 사태에 대한 주관적 해석일 뿐이게 된다.

물론 이 주관적 해석이 단순한 약점으로 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림의 주관성이야말로 예술적 숭고화를 통해 감정의 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력을 배가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예술적 숭고는 특정한 감각을 지속적으로 훈련함으로써만 그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즉 예술적 감각이라는 또 다른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사진은 이와 달리 사태에 대해 직접적으로 시각적 권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가지게 된다. 사진의 위력은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숨김과 왜곡 없이 재현하고 있다는 가정에 있다. 그림이 인간의 주관성을 통과해 간접적

으로 현실을 재현한 것이라면, 그래서 재현과 함께 표현의 의미가 강한 것이라면 사진은 인간의 주관성을 배제한 기술적 과정으로 이해되기에 현실의 직접적 재현으로 간주된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곧 근대의 기술일 것이다.

근대의 과학과 기술은 곧 근대적 이성의 직접적 연장으로 취급되며 자연에 대한 합리적 이해와 합목적적 실천의 유력한 토대인 것처럼 등장했다. 즉 그것은 인간의 합리적 이성이 물질적으로 구현된 것으로 간주되는 동시에 자연법칙과 정확하게 조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과학기술은 단지 인간의 주관적 기술 발달이 아니라 자연법칙에 조응하는 인간 이성의 합리적 사유와 행위의 결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는 곧 과학기술이 자연법칙에 따른 인간 능력의 확대로 나타난다는 것이며 그렇기에 진리에 근거한 절대적 신뢰의 대상처럼 여겨지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이제 인간과 자연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매개로, 기계를 수단으로 하여 간접적으로만 관계를 맺게 될 것이었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감각적 재현 또한 과학기술을 매개로 한 기술적 과정과 겹쳐지게 되었다. 기계와 과학 도구는 인간 신체의 확장으로 여겨졌고 또 더욱 큰 신뢰의 대상이기도 했다. 요컨대 기술과 기계는 인간의 한계를 돌파하여 인간의 능력을 확대하고 고양시키는 대상이 된 것이다.

사진은 이와 같은 근대적 과학기술의 결과물이었고 인간의 시각적 능력을 획기적으로 확대시킨 것으로 취급된다. 인간의 직접적 감각과 그에 따른 효과는 사진의 위력을 능가할 수 없다. 인간의 감각과 그 결과물의 언어적 재현은 사진이 주는 직접적 현실 재현력을 따라갈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사실과 현실에 대한 증거능력에서 인간은 인간 자신보다 근대적 과학의 결과물인 사진기에 더 의존하게 된 것이다.

사진이 이와 같은 위력을 발휘하게 되자 그것은 인간사회의 모든 부면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었다. 사진은 취미이자 예술이기도 했고 일상의 기록이자 권력의 통치수단이기도 했다. 언론과 보도 영역에서 사진의 위력은 더욱 놀라웠다. 언어적 재현의 한계를 일거에 돌파한 사진의 생생함으로 사진은 그 무엇도 따를 수 없는 현실 재현의 권위를 부여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진의 위력을 권력이 놓칠 리 없었다. 권력의 통치성은 현실 재현에서 사진이 보여 준 놀라운 능력에 주목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로부터 역설적으로 사진의 현실 재현력은 심각한 심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인 것처럼 보였던 사진이 연출과 조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진의 진리가가 의심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진 또한 다양한 차원에서 현실을 간접적으로 재현하게 된 셈이었는데, 미묘한 각도와 앵글의 차이로도 구현해 낸 이미지는 실제와 매우 다른 것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진의 특

성이 사진을 예술적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된 것도 사실이었다.

사진은 애초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재현하는 것으로만 이해되었지만 곧이어 사진 또한 인간의 주관성이 개입되어 인간의 다양한 느낌과 감정, 사고와 입장들이 표현될 수 있는 하나의 예술이 된 것이다. 사진이 예술적 대상이 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기계적 과정일 수 없음을 의미했다. 사진은 사진가와 사진기의 복잡 미묘한 결합을 통해 현실을 특정한 방향으로 재구성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인정된 것이다. 이로부터 사진을 둘러싼 정치적, 전략적 실천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권력과 통치의 중요한 매개가 되었다.

따라서 사진은 단순히 현실을 옮겨 놓은 이미지가 아니라 연출자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들의 의도와 목적까지 이해해야만 하는 복잡한 텍스트가 되었다. 최악의 경우 사진은 조작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위조와 위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사진은 더 이상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또 하나의 이미지가 된 것이었다. 이 이미지를 둘러싼 경합이야말로 우리가 사진을 통해 실제로 목격하는 현실일 것이다.

사진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순간을 영원으로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 이는 동영상 같은 매체와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다. 동영상은 실제 행위를 촬영하기 때문에 특정한 순간의 특정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연출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사진은 특정 순간을 포착해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는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의 동영상과 사진을 대조해 보면 그 효과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손기정의 동영상은 그냥 결승 테이프를 안고 들어오는 통상적인 마라토너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던 찰나의 한 장면을 찍은 사진은 매우 강렬한 인상을 준다. 고통에 일그러진 채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히고 힘들게 결승 테이프를 통과하는 모습은 마라토너의 고통은 물론 식민지민의 고통까지 연상시키는 효과를 낸다.

이처럼 사진은 특정 순간의 다양한 이미지 중 필요한 이미지를 취사선택하여 그 순간에 대한 지배적 표상을 만들어 낸다. 전후 맥락이 제거된 채 오직 한순간의 한 장면만을 선택해 전체 과정의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한 것이다. 즉 주의 깊게 선택되고 연출된 사진 한 장이 거대한 사건 전체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는 것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언어와 사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시각 중심성은 이미지가 선차적이고 언어가 이차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앞서 보았듯이 시각 중심성은 곧 로고스 중심주의와 배치되지 않는다. 언어, 특히 문자 언어는 무엇보다 시각 중심성에 근거해 자신의 진리가를 확보하고자 한다. 즉 언어는 눈으로 본 것을 전달하는 것처럼 재현되는 것이다. 영어에서 I see가 I know인 것이다.

더 나아가 언어가 이미지를 규정하는 역전이 드러나기도 한다. 예컨대 하나의 이



낙후된 농촌마을(1972년, 수원시청 소장)



정겨운 고향마을(1972년, 수원시청 소장)

사진이라는 이미지는 캡션을 통해 특정한 의미로 고정된다. 캡션은 사진의 부속물처럼 배치되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들 듯이 역설적으로 사진의 의미를 규정한다. 이미지에 대한 해석권력은 곧 언어를 통해 작동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미지는 언어적 재현을 통해 특정의 의미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이 언어적 재현, 다시 말해 사진의 캡션을 달 수 있는 권력이야말로 이미지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이다.

이미지는 무수한 의미로 산포될 수 있다.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하나의 이미지는 복수의 의미들로 분산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표와 기의는 일치하지 않는다. 하나의 기표가 서로 다른 기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표와 기의의 미끄러짐은 이미지와 의미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다. 이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언어가 등장한다.

이것을 보여 주는 것이 사진과 캡션의 관계일 것이다. 사진이라는 이미지는 캡션을 통해 특정한 의미로 고정된다. 캡션은 사진의 부속물처럼 배치되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들 듯이 역설적으로 사진의 의미를 규정한다. 이미지에 대한 해석권력은 곧 언어를 통해 작동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미지는 언어적 재현을 통해 특정의 의미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이 언어적 재현, 다시 말해 사진의 캡션을 달 수 있는 권력이야말로 이미지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이다.

이로부터 사진과 이미지는 거대한 전장이 될 것이다. 그것은 그 자체로 특정한 의미와 효과를 자동적으로 분출하지 못한다. 특정의 언어와 해석을 하나의 이미지에 부과하기 위한 이 전쟁은 사실상 인류의 역사 전체를 휘감고 있는 것이다. 캡션을 다는 것, 다시 말해 역사의 한 순간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야말로 역사(학) 그 자체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거대한 전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주체는 없다. 이미 주체는 그러한 전투의 결과물이자 새로운 전투를 위한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전투는 사실 사진이라는 드러난 이미지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진이 무수히 많은 장면 중 특정 순간을 선택적으로 포착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장면의 드러냄일 것이다. 이것이 사진의 포지티브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하나의 장면으로 전체 맥락을 이미지화하고 그 이미지에 캡션을 달아 특정의 의미로 환원함으로써 비로소 역사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미지를 구성하는 것이야말로 사진의 포지티브 전략인 것이다.

그러나 또한 사진은 벌어진 사태의 특정 장면을 드러냄으로써 다른 장면을 숨기는 것이기도 하다. 사진은 현실을 극도로 단순화하게 되는데 이 단순화는 무수히 많은 장면을 숨김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하나의 사진은 전후좌우로 연결된 모든 맥락을 소거하고 오직 한 장면에 모든 현실을 압축함으로써만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거한다. 요컨대 사진은 보여 주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보여 주지 않는 것이다.

그 상황을 실제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사진은 유일한 체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진은 그 상황에 대한 목격자이자 그 상황의 살해자이기도 하다. 특정 상황이 특정 이미지로 연결되는 것은 이러한 살해 과정의 결과일 것이다. 그 상황을 경험한 자에게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개체의 유한하고 불완전한 기억은 사진의 위력을 감당할 수 없으며 사진의 포지티브 전략은 개체의 수동성으로부터 가능해진다. 마치 사진이 암실 속에서만 인화 가능하듯이 모든 맥락이 암흑으로 처리될 수 있을 때에만 사진은 이미지로 현현한다. 이것이 사진의 네거티브 전략일 것이다.

이것이 사진을 통한 이미지 정치의 주요 조건이 된다. 사진 이외의 모든 것이 암흑으로 처리된다면, 모든 소가 까맣게 보이는 암흑이 가능해진다면, 이제 새로운 의미를 산출할 수 있는 암실이 마련된 셈인 것이다. 이 암실 속에서 사진의 전후좌우 맥락은 새롭게 그리고 자유롭게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암실로부터 사진의 캡션이 새롭게 그리고 자유롭게 쓰일 것이다.

자유롭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현실의 권력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전략의 교직 속에 사진이 역사를 구성해 왔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진의 역사를 다시 쓰기 해야 될 것이다. 사진이 보여 주는 것과 함께 숨기는 것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며 가려진 사진의 전후좌우 맥락을 들춰 내야 할 테고, 사진의 캡션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진에 대한 징후적 독해를 시도해야만 할 것이다. 그 독해의 결과가 새로운 캡션을, 언젠가 다시 쓰일 수밖에 없는 캡션을 달 수 있게 할 것이다.

2. 반공과 안보의 스펙터클

한국현대사는 반공을 떼놓고 설명하기 힘들데, 이는 수원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을 거치면서 남북한의 대결구도는 한반도 전 주민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 영향은 삶의 전 부면에 걸쳐 있었는데, 특히 반공 이데올로기의 역할이 지대했다. 한반도 남단에서 반공에 의문을 품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위험한 일이었다. 반공과 국가안보야말로 역대 정권이 주민집단에 기본적으로 강요한 핵심 요구였다.

국가의 반공정책이 크게 강화된 것은 5·16쿠데타 이후였다. 이승만 정권의 반공 정책도 강력한 것이기는 했지만 박정희 정권의 그것은 전임 정권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이른바 ‘혁명공약’의 첫 머리에 반공을 내세운 것만 보더라도 박정희 정권이 얼마나 이 문제에 공을 들였는지를 알 수 있다. 쿠데타 직후 국가보안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공법을 제정한 것이나 무려 2,000여 명에 이르는 진보적 인사들을 체포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박정희 정권은 출발부터 반공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러한 반공정책의 강화는 4·19혁명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4·19혁명은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대중봉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 기존 지배질서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다고 하겠다. 특히 4·19혁명은 통일운동의 형태로 전화되기도 했는데, 북한과 치열한 체제경쟁을 치르고 있던 국가권력의 입장에서 커다란 위기의식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당시까지 남한은 북한에 비해 경제적으로 상당히 뒤쳐진 상황이었기에 그 위기의식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이 위기의식이 장면 정권의 경제제일주의를 거쳐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정책으로 이어졌다고 하겠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통한 체제 단속 전략으로도 이어졌다. 시위에 나선 수원농고 학생들의 모습을 포착한 일련의 사진들은 박정희 정권의 반공 이데올로기가 왜 절실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상징한다고 하겠다. 거리를 질주하는 학생과 이를 막고 체포하려는 경찰 간의 긴박한 순간은 곧 권력의 불안과 위기의식을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고 하겠다.

뒤이어 1962년 군정이 한창이던 때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던 박정희가 수원을 방문했다. 군복에 검은 선글라스 차림의 박정희는 역시 군복차림의 수원시장이 백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바야흐로 군인정치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진이라고 하겠다. 군 작전 지휘하듯이 지휘봉을 들고 무언가 지시를 내리는 박정희의 모습은 향후 전개될 돌진적 근대화를 예감케 했다. 특히 수원에 새로 들어선 종합원호원 시찰에서는 거주자들이 거의 90도에 가까운 인사를 하거나 공손한 모습을 하고 박정희를 맞이하고 있다. 새로 들어선 군인정치가 당



시 민중들에게 무엇이었나를 보여 준다고 하겠다.

군인정치는 수원 지역정치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다. 쿠데타 이후 이백일이 현역 군인신분으로 수원시장에 임명되었고 곧이어 정치인으로 변신하였다. 그러나 수원의 군인정치의 핵심 인물은 이병희였다. 특무대 출신의 이병희는 4·19 이후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5·16과 함께 화려하게 부활했다. 김종필과 끈끈한 관계였던 이병희는 중앙정보부 서울분실장을 역임하면서 권부 핵심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부정 축재자로 수감된 이병철 등의 재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했다. 이백일과 이병희가 민간인 차림을 한 채 함께 찍은 사진은 수원의 군인정치를 대표했다.

뒤이어 1965년에는 한일협정을 둘러싸고 정국이 요동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미 전해인 1964년 6·3사태를 통해 한일협정 반대운동이 최고조에 올랐었지만, 결국 1965년에는 한일협정이 체결되고 말았다. 이에 이를 둘러싼 여야 간의 정치적 격돌이 빈번했는데, 그 격돌의 한 양상이 시국대강연회를 통한 대중정치였다. 수원에서도 민주공화당 주최로 매산국민학교에서 시국대강연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병희와 함께 김종필도 참석했다.

5·16 이후 수원의 국회의원은 이병희가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그 주된 자원이 박정희, 김종필로부터의 지원이었음은 물론이었다. 1971년 연설 중인 박정희 옆에서 앞에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채 서 있는 이병희의 모습은 그 권력관계를 상징한다고

수원시를 시찰 중인 박정희
국가최고재건회의 의장
(1962년, 국가기록원 소장)

수원시 연무동의 종합원호
원을 방문한 박정희 국가최
고재건회의 의장
(1962년, 국가기록원 소장)

5·16군사쿠데타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병희 중령(좌)과 이백일 대령(중앙)은 각각 수원 국회의원과 시장을 지냈다.(매산초등학교, 이병희 유족 제공)



하겠다. 1971년 총선에 출마한 이병희의 핵심 슬로건 역시 박정희였다. “박대통령 일하도록 이병희 밀어주자.”는 슬로건으로 장식된 총선 유세 연단의 모습이야말로 1970년대 수원 정치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는 무엇보다 유신체제로 귀결되었다. 유신체제는 한국현대사에서 파시즘적 성격이 가장 강했던 체제였다고 하겠다. 대통령의 권한이 무소불위로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신집권이 가능하도록 헌법이 개정되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긴급조치를 위시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기에 실질적으로 1인 통치체제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유신헌법은 독일 나치즘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칼 슈미트의 이론을 원용했다. 즉 예외상태 하의 주권독재가 가능한 체제였다.

유신체제 성립은 곧 대대적인 이미지 정치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대통령을 간선제로 선출하고 국회의원도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대의제 정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인민주권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부정되면서 정권의 정통성이 크게 약화되었기에 각종 관권을 통한 대중동원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유신체제에서 정권의 홍보와 이미지 정치는 이전 시기와 확연하게 달라졌다고 하겠는데, 수원 시내 거의 모든 주요 공간에는 유신체제를 홍보하고 찬양하는 선전물이 나붙었다. 서울농대에서는 유신 홍보강연회

가 개최되었고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는 10월유신 지지 현수막을 내걸었다.

유신체제가 추구하고 지향했던 사회는 곧 총동원체제였다고 하겠다. 유신체제가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슬로건 중의 하나가 총력안보, 총화단결 등 집단주의적 가치를 전면에서 내세우는 것이었다. 전 사회를 병영처럼 만들고 모든 주민을 병사형 인간으로 개조하려 했던 유신체제였던 만큼 군사적 가치가 사회 전체를 휩싸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 주는 사진이 충혼탑에서 개최된 현충일 추념식장을 촬영한 것이었다. 현충탑 또는 충혼탑으로 명명된 기념물은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부터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졌는데, 수원 충혼탑은 원래 매향동에 세워졌다. 여기서 진행된 현충일 추념식은 유신체제가 추구한 집단주의적 질서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면에서 높이 솟은 충혼탑 주위로 화환이 배치되고 그 아래 식장에는 수백 명의 인원이 각각 자신의 위치를 배정받아 도열해 있다.

맨 앞쪽에는 수원의 각급 기관장과 요인들이 배치되었고 계단 아래에는 주요 단체와 각급학교에서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인원들이 배치되었다. 학생은 이러한 행사

충혼탑에서 거행된 현충일 추념식(1978년 6월 6일, 수원시청 소장)



의 주요 동원대상이었다. 상대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고 또 어린 학생들이기에 손쉽게 동원하기 좋은 대상이었음이 분명했다. 요컨대 현충일 추념식은 수원시의 총동원체제를 하나의 장소에 재현해 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특정 장소에 집중된 수원의 총동원체제 이미지는 곧 사진으로 촬영되어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되었을 것이다.

충혼탑 외에도 수원에는 전몰장병 합동묘지가 있었고 팔달산에는 전몰군경 위령탑이 세워졌다. 팔달산은 수원의 주산으로 수원 시내 전역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 조성된 전몰군경 위령탑은 곧 수원시 전역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놓여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수원시 전체는 팔달산의 위령탑을 올려다보아야 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기념물은 전국 모든 곳에서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지형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반공체제는 각종 문화 영역으로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화홍문화제는 수원의 대표적인 축제였는데, 유신체제에서 이 축제조차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승공이라는 글자가 선명히 박힌 미사일 또는 항공기 모형을 앞세

반공소년 이승복(1970년, 경
기도청 입구, 수원시청 소장)



우고 학도호국단 소속 학생들이 어깨충을 한 자세로 뒤따르는 모습은 축제의 공간이 어떻게 군사적 동원의 공간으로 전변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화홍문화제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반공소년 이승복’의 사진을 높이 든 행렬 사진이었다. 상여를 연상케 하는 나무 틀 위에 이승복의 초상화 패널을 얹어놓고 검은 학생복을 입은 학생들은 상여꾼 역할을 하는 듯 보인다. 학생들의 머리에는 굴건을 대신하는 듯한 종이로 만든 모자를 썼는데, 반공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다. 전형적인 전통 장례풍습을 모방한 행렬로 보이는데, 이승복의 죽음을 전 국민의 장례의식으로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승복 장례 행렬은 공산주의의 잔인무도함을 증거하는 것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보다 죽음으로 공산주의에 항거한 이승복의 죽음을 모든 국민의 각오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즉 장례는 엄밀히 말해 가족과 친족 중심의 의례일 텐데, 이 의례에 친족관계가 전혀 없는 수원의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이승복과 수원시민은 일종의 의사 혈연관계를 맺게 된 것처럼 보인다. 소위 핏줄과 혈통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와의 관련성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혈연관계로 재현된 이승복과 수원시민의 관계는 생사를 같이하는 운명공동체로 상상될 수 있으며 자신의 혈족이 살해당한 공포와 분노가 모두에게 주입되어야 했던 것이다. 곧 이승복의 죽음은 자신과 무관한 존재의 살해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공산주의의 위협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례 행렬을 통해 죽음을 각오한 반공의식이 모든 국민에게 요구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이승복의 죽음은 모든 국민의 삶을 죽음에 연결시켜 ‘총력안보’라는 권력의 슬로건을 실천하는 가장행렬로 나타난 셈이었다.

이승복의 죽음이 예외적인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안보 관련 각종 사진 전시를 통해 보장되었다. 남문 근처에 게시된 안보 관련 사진들이나 동사무소 게시판에 붙여진 한국전쟁 관련 사진들은 이승복의 죽음이 역사적으로 확인된 공산주의 침략의 결과임을 증거하는 것으로 배치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진 전시는 주요한 안보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다. 예컨대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사건의 경우 곧바로 가두 사진전시로 이어졌다. 도끼까지 동원된 끔찍한 사건을 가장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사진이었고 이는 그 어떠한 반박과 의심도 차단할 수 있는 객관적 ‘진실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러한 반공의 자세는 무엇보다 집단 속에서 확인될 필요가 있었다. 반공은 개인적으로 내면화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집단과 군중 속에서 개체의 반공이 확인되고 주입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1970년대 내내 주기적으로 반공 관련 쟁기대회가 전국

에서 개최되었다. 쫓겨대회는 각종 기념일에 맞추어 진행되는 관례적인 것과 특별한 사건 발생 시 개최되는 임시적인 것 두 가지로 대별되었다.

쫓겨대회는 공설운동장과 같은 드넓은 공간에서 진행되는 것이 상례였다. 1960~197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공적 공간은 대대적으로 정비되고 확장되었다. 한국전쟁과 1950년대까지만 해도 대규모 군중이 집결할 수 있는 공간은 그리 많지 않았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는 이미 일제시기부터 대규모 운동장이 마련되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도시는 학교 운동장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예컨대 제주 4·3사건이나 여순사건 당시 좌익분자 색출을 명분으로 주민들을 집합시켜 심사하고 즉결 처분이 진행되었던 장소는 대부분 학교 운동장이었다. 주로 일제시기에 만들어진 학교 운동장 자체가 집단주의적 훈육과 군사훈련을 위한 연병장의 의미가 컸는데, 실제 그 활용은 교련과 같은 군사적 용도로 많이 쓰였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각종 사회 간접자본도 확충되기 시작했고 웬만한 도시에는 공설운동장 하나씩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수원은 이미 일제시기에 공설운동장이 만들어져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지만 1971년에 새롭게 신축되었다. 공설운동장은 해당 지역의 전 주민의 집단적 공간으로 여겨졌다. 즉 운동장은 전 주민이 집결하여 자신의 집단적 정체성을 실제 눈으로 확인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된 것이었다.

따라서 주요한 쫓겨대회 장소는 거의 대부분 공설운동장이었다. 공설운동장에 운집한 군중은 각각 자기가 속한 각급학교, 단체 기업체의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질서정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6·25 기념쫓겨대회(1974
년,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연하게 도열해 행사에 참여했다. 머리띠와 어깨띠를 두른 군중은 최소한 이 자리에서만큼은 서로 다른 사회적 삶과는 무관하게 하나의 단일한 신체가 될 것을 주문받았다. 유신체제는 특히 유기체적 통합을 강조했는데, 그것을 실감하게 하는 장치로서 꺾기대회가 활용되었다고 하겠다.

서로의 소속을 확인하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공설운동장에 집합한 군중은 스탠드를 가득 채운 또 다른 군중과 서로 호응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를 방불케 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 거대한 군중의 스펙터클은 개체의 속성을 지워 버리면서 집단의 일원으로 느끼고 사고하고 행동할 것을 주문하는 의례였다. 요컨대 일상 속의 차이는 반공이라는 단일한 목적 앞에 무화되어야 했던 것이다.

육영수 저격사건은 이러한 집합적 신체를 구현하는 꺾기대회의 특성을 잘 보여 주었다. 수원역 앞에 집결한 거대한 군중은 반공과 반일의 기치 아래 민족적 집단 주체로 거듭날 것을 요구받았다. 박정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아(大我)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는데, 이 대아의 구체적 실감이 바로 거대한 군중대회였던 것이다. 육영수 저격사건은 반공에 반일이 결합되었다는 특징을 가졌다. 민족주의는 이 거대한 군중의 스펙터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 장치였는데, 반공만으로는 그 효과를 충족시키기가 곤란했다.

북한은 공산괴뢰로 지칭되었지만 어쨌든 같은 민족이라는 통합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혈연을 강조하는 한국 민족주의의 특성상 혈통과 문화, 역사를 공유하는 북



육영수 저격사건을 규탄하는 꺾기대회(1974년 8월 28일, 수원시청 소장)

한을 동일한 민족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과거 식민지 경험을 통해 한국 민족주의의 최고의 타자로 기능하는 데 전혀 손색이 없는 존재였다. 집단적 신체를 강조하기 위해 최고의 효율성을 보여 주었던 민족주의가 반공과 결합하는 데 이만한 대상도 드물었다. 즉 일본은 과거의 식민지적 원한에다 현재의 반공주의적 원한의 대상으로 재현됨으로써 한국 민족주의의 가장 중요한 극복대상이 된 것이었다.

특히 육영수 저격사건을 규탄하는 켈기대회는 공설운동장이 아닌 수원역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예컨대 6·25 기념켈기대회는 주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공설운동장은 일상의 공간이 아니라 각종 의례를 진행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간이라는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 즉 공설운동장 자체가 비일상성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수원역 광장은 일상의 공간이다. 수원은 서울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도시였기에 특히 서울과 연결된 전철 정거장으로서 수원역의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 일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비일상적 군중대회는 더욱 큰 스펙터클의 경험으로 각인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의 공간이 주는 장소성은 익숙하다 못해 진부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진부한 공간이 전혀 낯선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일상성이 파괴되고 고양된 집단의 열정이 분출되는 장소로 전변되는 경험은 분명 많은 이들에게 특이한 경험으로 기억될 것이 분명했다.

이러한 반공의 스펙터클은 역설적으로 공산주의의 현존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국전쟁 이후 실질적으로 한국사회에서 공산주의와 공산당은 공적 영역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공산주의는 오직 북한 지역에만 현존하며 이따금 ‘간첩’의 형태로 남쪽 지역에 출몰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보통사람들의 일상과는 별다른 관련을 가지기 힘든 예외적인 사건이었다. 물론 박정희 정권은 잦은 간첩사건을 통해 주민들의 반공의식을 제고하고 긴장상태를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간첩은 공산주의의 현존을 증거하기보다는 외부의 침략을 상징하는 측면이 더 강했다고 보인다. 즉 간첩은 남한 내부의 존재라기보다는 북한이라는 외부 침략의 일환으로 재현되었다.

남한 내부의 공산주의는 오히려 반공주의라는 거꾸로 된 형태로 현존했다고 하겠다. 즉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공격하기 위해 모든 주민집단에게 공산주의를 알리고 선전해야만 했다는 역설이 성립하게 된 것이다. 반공의 가장 확실한 상태는 공산주의의 박멸 내지 소멸일 것이기에 공산주의에 관한 그 어떠한 정보나 지식도 차단되고 금지되어야 했다. 주지하듯이 공산주의 관련 서적이거나 출판물, 관련 자료 일체는 한국에서 최고의 금기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반공을 위해 공산주의를 알리고 설명해야 된다는 역설 속에 전도된 공산주의가 현존하게 된 것이다. 공산주의를 아무리 악마화한다고

해도 반공주의는 공산주의를 선전할 수밖에 없는 자기모순에 빠진 셈이었다.

이러한 자기모순 속에서 반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의 악마화가 필수적이었다. 한국사회에서 공산주의를 넘어서는 악마적 대상을 찾기는 매우 힘들다. 그 절정은 비인간화였다. 공산당은 인간이 아니며 그 형상조차 머리에 뿔이 나고 시뻘건 피부색을 가진 짐승의 무리로 재현되었다. ‘붉은 이리떼’라는 상투어는 공산주의의 비인간화의 대표적 어구였다. 이러한 비인간적 존재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유신체제기에 극성을 부린 총력안보론은 바로 악마화한 공산주의로부터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강요되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학도호국단 관련 사진들이었다. 이승만 정권기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4·19 이후 폐지되었던 학도호국단을 부활시킨 박정희 정권은 이것을 반공과 안보의 아이콘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학도호국단은 학생이라는 미성년을 대상으로 권력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집중적으로 주입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77년 5월 24일 수원 공설운동장에서 진행된 수원시 고교 교련대회는 이러한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다. 군대식으로 편제된 고등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공설운동장에 도열해 있고 스탠드 또한 제복을 입은 학생들이 줄지어 앉아 있는 모습은 쫓겨대회와는 또 다른 스펙터클을 보여 준다. 쫓겨대회도 일정한 질서가 없는 것은



교련대회장에 쓰인 총력안보(1977년,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시청 소장)

아니었지만 그 정도가 교련대회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특히 수원역 광장에서의 켈기대회는 공설운동장의 그것과 달리 군중 내에 질서가 크게 강조되지 않았다. 그러나 교련대회는 모든 것이 오와 열을 맞추어 진행되면서 지극히 질서정연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이 질서야말로 박정희 정권이 희구해 마지않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권력의 입장에서 보건대 군중이 집합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치안의 기본원칙은 다수 군중의 집결을 금지하는 것이다. 군중의 집합이 내용적으로 권력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변화될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치안의 기본은 집합군중의 방지가 된다.

그러나 군중을 집합시키지 않고서는 동원의 정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일한 해결책은 군중 사이에 질서를 심는 것이다. 그 질서는 물론 내용적으로도 확보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형식적 질서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형식적 질서야말로 군중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요건이기 때문이다.

학도호국단의 교련대회는 바로 이 형식적 질서의 구체적 모습을 보여 준다. 모든 참가자는 개별자로 호명되는 것이 아니라 군대 질서를 그대로 대입한 학도호국단의 집단 질서의 부속처럼 배치된다. 학년과 반 그리고 번호로 편제된 학교의 질서 형식은 군대의 소대-중대-대대-연대로 이어지는 조직 질서와 연동되어 학생들을 전체의 일부로 편제해 낸다. 교련대회는 이것을 대중적으로 현시하는 시공간이 되는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40대 이상의 한국 남성들이라면 누구나 교련수업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교련수업이 있는 날이면 책가방에 교련복과 각반 그리고 교련화를 챙겨야 했고 혹여 하나라도 빠트린 날이면 군인 출신의 교련선생으로부터 가해질 폭력의 공포를 견뎌야 했을 것이다. 목총을 들고 먼지 풀풀 나는 맨땅에서 진행된 분열연습과 총검술이 지긋지긋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탠드에 가득 들어찬 관중의 시선을 한몸에 느끼며 분열을 하고 사열을 받으면서 묘한 집단감정에 빠져들기도 했을 것이다. 개체의 나약함과 한계를 넘어 거대한 집단의 일원이 된다는 기분은 곧 묘한 희열을 동반하는 것일 수 있었다.

즉 그것은 자신의 신체를 넘어서는 어떤 거대한 힘과 위력에 압도당하는 경험일 수 있었다. 곧 집단이 자신의 연장처럼 느껴지고 자아가 확대되며 비루한 일상의 개체가 숭고한 집단으로 비약하는 경험이었을지도 모른다. 억압과 질서에 주눅 들고 학교의 일상적 폭력에 길들여지면서도 또 그것을 지켜워했던 어린 학생들에게 수많은 시선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괜한 우월감을 심어 줄 수도 있었다. 평소에 맞보기 힘들었던 이 묘한 집단적 정체성의 기억은 쉽게 잊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그것이 집단의 광기로 연결될 수도 있는 위험한 감각이라는 생각은 가지기 힘들었다. 게다가



수원천변 점포 철거(1972년, 수원시청 소장)
질서가 아름다움으로 연결되고 무질서가 추한 것으로 재현됨으로써 대중의 미적 감각이 재구성되고 국가주의적 미학이 이를 선도하였다. 이것이 '거리미화', '환경미화' 등과 같은 미학적 질서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 미학이 정치적인 것임은 분명하다. 거리미화의 명목으로 노점상과 도시빈민을 축출하고 단속하는 것은 거리의 아름다움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된다. 그러나 그것은 도심 한복판에 거주하는 하층민의 폭도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치와 치안의 관점이 내포된 것이기도 했다.

곧이어 군대 경험이 부가되면서 한국의 남성들은 누구보다 집단의 질서와 감각에 익숙한 존재로 구성되었다.

이 질서는 또한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으로 각인되어야 한다. 질서가 아름다움으로 연결되고 무질서가 추한 것으로 재현됨으로써 대중의 미적 감각이 재구성되고 국가주의적 미학이 이를 선도하였다. 이것이 '거리미화', '환경미화' 등과 같은 미학적 질서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제 질서는 권력이 부여한 강제적 규제라는 자신의 기원으로부터 편하고 효율적인 것이라는 기능적 의미를 통과한 다음 마침내 아름다운 것이라는 미학적 차원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이 미학이 정치적인 것임은 분명하다. 거리미화의 명목으로 노점상과 도시빈민을 축출하고 단속하는 것은 거리의 아름다움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된다. 그러나 그것은 도심 한복판에 거주하는 하층민의 폭도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치와 치안의 관점이 내포된 것이기도 했다. 1971년 8월의 광주대단지사건은 거리미화의 대상들이 어떻게 군중봉기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 주었다. 거리의 무질서야말로 권력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경험이었다. 박정희는 1960년 4·19혁명 당시 부산 지역 계엄사령관으로서 거리의 군중을 목격한 바 있었는데, 그는 그 경험이 매우 두려운 것이었음을 토로했었다.

교련대회 관련 사진들이 보여 주는 질서의 미학은 예비군이라는 반민-반군의 존재로도 확장되었다. 1978년 4월 1일 거행된 예비군의 날 기념식은 이를 잘 보여 주

는 장면이다. 예비군은 학도호국단을 뛰어넘을 정도의 군대 조직임이 분명했다.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사실상 군대였고 전시에는 즉각적으로 동원되어야 하는 예비군 대였다. 예비군과 학도호국단 모두 유사한 얼룩무늬 위장복을 제복으로 삼았는데, 군과 민간 사이의 접이지대처럼 보이는 상징이었다.

반민-반군의 이 조직들은 군대의 질서를 민간 속으로 관찰시키는 주요한 통로가 되었음이 분명했다. 군대의 질서는 근대적 질서의 정점을 이룬다고 하겠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공장의 질서도 사실상 군대의 질서를 모방 이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학도호국단과 예비군은 그것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군대의 질서를 도입했다. 즉 근대 사회 최고의 질서로 취급되는 군대의 질서가 사회의 기강을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로 활용된 것이다.

이러한 질서가 민방공 훈련으로 확장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전 주민은 당시의 표현대로 군-관-민이 일체가 된 유기적 신체로 거듭나야 했으며 그 신체는 무엇보다 군대로부터 기원한 질서의 체현자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 질서의 집단은 모든 외부적 침입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운명체처럼 상상되었고 그 작동은 철저하게 질서정연한 기계적 작동이어야 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민방공 훈련은 이 질서의 주기적 체험이었다.

이렇게 외부의 적을 상징한 군대 질서의 도입은 곧 내부적 통합을 위한 장치로 확장되었다. 오히려 외부의 적은 내부의 적을 통해서만 의미화되는 것이기도 했다. 학도호국단, 예비군, 민방위대 등은 모두 외부의 침입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처럼 등장했지만 실상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부의 위협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질서의 상징들이었다. 내부의 적은 다름 아니라 무질서였고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불온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학도호국단과 예비군, 민방위대는 단순한 군사화의 산물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곧 내부의 무질서를 넘어 질서를 심기 위한 권력의 전략적 실천의 산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반공과 안보의 스펙터클을 연출하는 것은 실제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을 때 극대화된 효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소재는 역시 한국전쟁이었다. 한국전쟁이야말로 한국의 반공 이데올로기의 영원한 마르지 않는 저수지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전쟁의 기억은 희미해질 것이기에 현장감과 생생함 또한 반감될 수밖에 없다. 실제 전쟁만큼 이 질서를 잘 작동시킬 만한 대상은 없다고 하겠는데, 베트남 전쟁이 그 역할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다 귀국한 병사들에 대한 환영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는데, 수원시도 예외가 아니었다. 수원 시내에서 진행된 카퍼레이드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군용트럭을 타고 퍼레이드를 하는 군인들은 수많은 시민이 나와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환영하는 인파 앞에서는 학생으로 보이는 취주악대도 보인다. 베트남전쟁이라는 실제 전쟁이 수원시와 시민들 속으로 행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쟁 스펙터클의 대미는 1971년 6월 15일 진행된 파월전상자 합동결혼식이었다. 전쟁의 상처를 신체에 각인하고 있는 전상자들의 결혼이야말로 전쟁의 상흔이 깊게 각인되어 있는 일상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것은 전쟁 모델에 입각해 진행된 한국의 돌진적 근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하겠다. 목숨을 건 전쟁은 곧 일상의 생활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 전쟁에서 살아남아야만 했던 것이 모두의 운명이었다. 이 전쟁 같은 근대화의 모습은 경제전의 양상을 띠었다. ‘사는 게 전쟁’인 세상이 도래하고 있었다.

3. 경제개발, 근대화의 이미지 전략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본격적인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경제개발이야말로 박정희 정권 최고 최대의 치적으로 회자된다. 경제개발은 모든 사람의 삶을 근저에서 변화시켰던 거대한 변화를 수반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흐름으로부터 비껴서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는 세상 속에 스스로를 적응시키지 못한다면 삶은 불가능해질 것이었다.

산업화 과정은 곧 이촌향도의 역사이기도 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농촌에서의 삶을 접고 모든 것이 낯선 도시공간으로의 이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복합적인 감정을 맛보게 했을 것이다. 도시로의 이주는 곧 공장의 삶을 의미했다. 논과 밭 대신 주어진 일터는 공장이었다. 적게는 서너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인원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계로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는 기계제 대공장의 경험은 농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일 수 있었다.

공장은 공간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매우 낯선 것이었다. 수원 지역에서도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거대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1971년 4월 1일에는 수원 연초제조창 준공식이 거행되었다. 백두진 국무총리와 박정훈 전매청장을 비롯해 이병희 의원 등의 내외 귀빈과 수많은 인파가 참석한 준공식은 일대 장관을 이루었다.²⁾ 전매청은 기공식에 큰 공을 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로서는 거액

2) 『경향신문』, 1971년 4월 1일.

이었던 1,000만 원을 들여 6만여 명의 시민을 초청하기로 했었다. 참석자에게는 기념타월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는데, 대대적인 행사준비였음이 분명했다.³⁾

실제로는 4만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고 준비했던 기념타월 5만 장이 순식간에 동나 이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항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여러 장씩 타월을 타 가면서 나타난 사태였다. 이에 10리 거리를 걸어온 촌로들이 준공식 참석을 거부하겠다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⁴⁾ 수원 같은 지방도시에서 4만의 군중이 운집한다는 것은 대단한 행사임이 분명했다. 1967년부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자 475만 달러와 내자 42억 원을 들여 최신설비를 갖추고 준공된 연초제조창은 수원의 산업화 역사에 빠질 수 없는 장면일 것이다.⁵⁾

그러나 준공식은 타월 시비와 함께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행사에 참석한 백두진 당시 국무총리는 이병희 의원이 연초제조창 유치에 큰 공을 세웠다고 강조하여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시비가 일기도 했던 것이다.⁶⁾ 1971년은 대통령 선거와 총선거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이 있었던 해였기에 공장 준공이라는 경제적 사건도 정치논리와 무관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자체가 고도의 정치행위의 연장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사실 일개 공장 준공식에 6만 명 동원계획을 세우고 실제 4만 명이나 운집했다는 것은 지금의 시각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공장이라 해도 4만 명의 군중이 동원된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닐 수 없었다. 전매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왜 이렇게 대규모 군중을 동원하고자 했을까?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이유는 정치 상황이었다. 제7대 대통령 선거가 4월 27일에 치러질 예정이었고 곧이어 제8대 총선도 5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1971년의 양대 선거는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간담이 서늘해질 만큼 아슬아슬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김대중의 맹렬한 추격을 받아 급기야는 향후 대선 불출마 선언까지 해야 할 정도로 위기의식에 휩싸여 있었다. 총선도 각종 관권을 동원해 막대한 여권 프리미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는 19개 지역구 중 단 1석만 건질 정도로 참패였다. 여촌야도(與村野都) 덕분에 전체 의석수는 간신히 야당을 앞서기는 했지만 서울의 선거결과는 극심한 위기의식을 불러올 만큼 충격적이었다.

서울은 단지 일개 도시에 불과한 곳이 아니었다. 정권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였던

3) 『경향신문』, 1971년 3월 24일.

4) 『경향신문』, 1971년 4월 2일.

5) 『매일경제』, 1971년 4월 1일.

6) 『동아일보』, 1971년 4월 1일.



경제개발의 효과가 집중된 곳이자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몰려 있기에 한국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곳이었다. 특히 문제는 이촌향도 현상이 점점 더 강화되면서 농촌 인구는 줄어드는 대신 도시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서울로 상징되는 도시는 한국의 미래를 보여 주는 시공간이었던 것이다. 이촌향도 앞에 여촌야도는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정치구도가 될 수 없었다. 결국 안정적 권력재생산에 심각한 위기를 느낀 박정희 정권은 1년 뒤 유신체제 선포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다.

이러한 정치 상황이었기에 정권과 전매청은 최대한 대규모 군중 동원을 통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 것임이 분명했다. 자신들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제개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대중적으로 확인시켜 주면서 자신들의 지배의 정당성을 확인받고 싶었을 것이다. 기념타월은 바로 이 경제적 성취를 상징하는 선심일 것이다. 요컨대 대규모 공장을 통해 근육질의 근대화 성취를 현시하면서 대중들의 경외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장의 위력을 최대한 증폭시켜 대중들에게 보여 주어야 했다.

준공식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면 공장 규모의 거대함과 수많은 군중에 놀라게 된다. 특히 4만 명의 군중은 그 자체로 놀라운 스펙터클임에 틀림없었다. 당시 수원 인구는 17만 명에 불과했는데 4만 명이 운집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인근 농촌

수원연초제조창 준공
(1971년 4월 1일, 정자동,
국가기록원 소장)

연초제조창 준공식에 참석
한 수원시민들(1971년 4월
1일, 국가기록원 제공)

지역의 인구를 감안한다 해도 군중 규모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거대한 군중의 집결은 전근대 시기에는 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군중이 집결할 만한 일도 별로 없었거니와 그럴 만한 공간도 드물었다. 그렇기에 일개 공장 준공식에 4만 명이나 되는 군중이 집결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일대 사건이라 할 만한 상황임에 틀림없었다.

선거철이었기에 권력이 조직적 동원을 했다 해도 그 숫자가 주는 놀라움이 다 설명되는 것은 아니었다. 아무리 국가권력의 힘이 막강하다 해도 농사철을 앞두고 있는 농민들을 포함해 대규모 군중을 동원하는 것은 손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거대한 군중의 동원이 가능했던 것은 그것이 매우 진귀하고 경이적인 구경거리로 여겨졌다는 점을 보여 준다. 별다른 근대적 시설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 사람들에게 거대한 공장의 준공식은 그 자체로 구경거리가 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요즘 같은 시절에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 당시에는 가능했다.

공장이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낯설고 신기한 것이었다는 말이 될 텐데, 연초제조창은 그럴 만한 풍경을 보여 주었다. 드넓은 부지 위에 최신식 건물이 들어서고 앞마당은 잔디밭으로 조성되었다. 하늘에는 애드벌룬이 날고 수많은 군중이 공장으로 밀려들어오고 있다. 근대적 공장 경험이 없었던 대다수 군중에게 이러한 광경은 낯설고도 신기한 것일 수 있었다. 그들이 준공식에 참석하고자 10리 길을 마다않은 것은 다만 타월 한 장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곧 근대의 스펙터클의 한 장면이었다.

논과 밭이었던 대지가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로 전변하는 상전벽해의 경험은 곧 농민들의 삶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군중들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거역할 수 없을 것이며 그것은 공장을 논과 밭으로 되돌리는 것만큼이나 비가역적인 변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산업화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논과 밭이 거대한 공장으로 바뀌듯이 자신의 삶과 인생도 달라질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이 거역하기 힘든 변화를 추동하는 것이 국가라는 점도 새롭게 다가왔을 것이다. 전매청은 당시까지 국가기관이었고 연초제조창은 제2차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된 것이었다.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이 자신들의 삶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음이 확인된 것이었고 자신들의 삶이 그것에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임을 직감해야만 했다. 이는 다만 도시로 이주해 공장생활을 시작하는 농민에게 국한되지 않았다. 농촌에 남아 있는 농민들은 전매청의 수매를 거쳐 결국 연초제조창으로 보내질 담배를 경작해야 했다. 연초제조창은 농촌과 도시를 아울러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밀어붙였던 것이다.

즉 산업화는 다만 도시에 국한된 변화가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의 생활양식을 전

변시키고 있었다. 농업은 산업화 효과로 상품화폐관계에 깊숙하게 편입되었다.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종자 구입부터 비료, 농약 등의 농업부자재 구입은 물론이고 마지막 상품 판매조차 시장과 국가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농협 융자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농협과 정부에 밍보이면 생산한 농작물을 판매하기조차 힘들었다.

전매청의 담배 수매 등급에 목을 매달아야만 했던 것이 농촌에 남아 있는 농민의 운명이었다. 농민들이 판매한 담배는 연초제조창에서 말끔한 상품으로 제조되어 다시 농민들에게 판매되었다. 결국 남아 있는 논과 밭조차 공장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도시와 공장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삶을 의미했다. 공장과 농촌의 거래는 언제나 그랬듯이 공정하기 힘들었다. 싼 값에 담배를 팔고 비싼 값에 담배를 사 피워야 되는 것이 농민의 운명이었다.

공장은 한두 개가 아니었다. 이전부터 가동 중이던 선경직물 외에도 1970년대 들어 한일합섬이 들어왔고 필립스전자, 해태유업이 새로 공장을 지었는가 하면 마침내 삼성전자가 입주했다. 논밭 사이로 우뚝 솟은 선경합섬의 공장 건물과 굴뚝은 공장이 지배하게 된 수원의 현실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연초제조창에서 보았듯이

공장에서 노동하는 여성 노동자(1973년, 국가기록원 제공) 공장의 외관은 놀라울 정도로 말끔하고 세련된 근대성의 상징처럼 보였다. 그러나 공장 내부의 노동과정은 그리 아름다울 수 없었다. 기계의 소음은 고막을 찢는 듯하였고 각종 원료들에서 나오는 먼지는 나이 어린 여성 노동자들의 폐를 갇아먹었다.



공장의 외관은 놀라울 정도로 말끔하고 세련된 근대성의 상징처럼 보였다. 그러나 공장 내부의 노동과정은 그리 아름다울 수 없었다. 기계의 소음은 고막을 찢는 듯하였고 각종 원료들에서 나오는 먼지는 나이 어린 여성 노동자들의 폐를 갉아먹었다. 근대적 공장의 모습은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채 사람들의 삶을 장악해 갔을 것이다.

공장 안에서 바빠 움직이는 노동자들의 모습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논과 밭에서 일하던 바로 그 사람들일 것이다. 컨베이어벨트와 미싱을 상대로 분주히 움직이는 그들의 손은 얼마 전까지 호미로 밭을 매던 손일 것이다. 공장의 건설은 특히 나이 어린 여성 노동력을 대거 동원해 냈다. 섬유와 전자업종은 특히 여성 노동력을 대거 고용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산업화의 주된 동력이었음이 분명했다. 가부장적 억압이 자심했던 농촌 마을에서 여성들은 교육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일이 예사였기에 공장 취업은 일종의 해방의 경험이기도 했다. 엄격한 가부장의 굴레를 벗어나 독립적 경제 주체로 역할하게 된 것은 나름 큰 변화였다. 게다가 산업체 특별학급이나 야학을 통해 못다 한 교육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쥐꼬리만한 월급을 쪼개 고향의 부모형제에게 송금해야 하는 처지이기도 했다. 그 송금이 자발적이든 반강제적이든 산업화시대 여성 노동자들의 위치는 근대적 공장과 봉건적 가부장제 사이에 있었다. 어느 한 쪽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그들의 위치는 변화와 위기에 내몰린 산업화시대의 한 단면을 상징했다.

도시와 공장 그리고 농촌과 농민 간의 관계는 도시민들의 각종 농촌 지원행사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모내기부터 보리밟기와 벼 베기, 보리 베기에 학생과 군인을 비롯해 다양한 계층의 도시민들이 동원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권력 초창기부터 농공병진을 강조했고 도농 간의 유기적 연관을 강조했지만 현실은 도시에 의한 농촌 지배가 일반적 현상이었다.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도시로 집중되면서 농촌은 급속하게 쇠락하기 시작했고 농번기에 일손을 구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도시에 의한 농촌 살리기가 당시의 주요한 이미지로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촌향도와 도농격차가 점점 심해지면서 박정희 정권이 내놓은 해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새마을운동이었다. 새마을운동이 이촌향도를 멈출 수도 없었고 농가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것도 별로 없었음에도 그 기억은 매우 강렬하게 남아 있다. 새마을 노래는 농촌의 몰락을 애달파하는 장송곡을 닮았다.

이렇게 서울로 몰려가는 길을 상징하는 것이 고속도로였다. 수원은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위치에 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대 도로 건설의 상징과도 같았다. 고속도로는 단지 편리한 문명의 이기라는 도구주의적 의미로 국한되지 않는다. 고속도로는 근대화가 달성한 새로운 경관과 미학적 시선을 가능케 하는 것이었다.

전근대 시기의 도로는 대부분 좁고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졌다. 그것은 자연지형을 크게 거스르지 않았으며 산이 나오면 돌아가고 강이 나오면 길이 끊겨 나룻배로 옮겨 타야 되는 것이었다. 또 마을이 나오면 에둘러 가면서 자연스럽게 마을과 마을을 이어 주는 삶의 길이었다. 그러나 고속도로는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정복하여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다. 고속도로는 자연을 정복하고 착취하는 근대 자본주의를 닮았다.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곧게 내리뻗은 직선의 고속도로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단순화하고 동질화하여 서울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근대화의 삶을 만든 것처럼 보인다.

고속도로는 건설 과정에서 근대적 질서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다. 직선의 도로를 만들기 위해 앞을 가로막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은 거대한 근대적 기계의 몫이었다. 줄지어 늘어선 중장비들은 직선으로 쭉 뻗은 고속도로의 수직의 질서와 연결되는 것이었다. 즉 기계의 질서가 자연으로 투사되어 자연의 기계화가 진행된 셈이었다.

이는 곧 근대성의 과학이 자연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웅변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과학기술의 위력과 힘은 곧 미학적 시선으로도 확장된다. 무질서하고 난잡한 구래의 도로는 직선화로 질서정연한 고속도로로 대체되는데, 이는 곧 근대성의 미학이 근대성의 과학을 어떻게 숭고화하는지를 보여 준다.

거대한 쇠뿔치들로 구성된 근육질의 불도저는 곧 거친 자연을 다스리기 위한 인간의 위력을 재현하는 것이었으며 인간의 근육은 기계의 근육으로 연장되는 것이었다. 이 거대한 위력이야말로 근대성의 미학이 찬양해 마지않을 숭고함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거칠고 거대한 자연의 위력 속에 인간의 왜소함과 과학기술의 한계가 드러나는 이미지도 존재했다. 절개되고 파헤쳐진 산자락을 양 옆으로 하고 한가운데 흙더미를 밀어붙이는 불도저의 모습은 자연 속의 왜소한 인간과 기계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처럼 왜소하고 연약해 보이는 인간과 기계의 모습이야말로 다른 한편으로 근대화된 인간의 위대한 역능을 부조적으로 드러내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인간 능력의 위대함은 그 대상의 위대함을 넘어서고 마침내 정복함으로써 현시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행위 대상으로서의 자연의 위대함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 하나 자연은 척박하고 거친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이 무질서한 자연에 질서를 부여하는 근대성의 합리성을 현시하는 장치로도 배치되었다. 고속도로 공사장은 거칠고 난잡하고 흙먼지가 날리는 황야처럼 재현되었다. 그 속에서 발파와 굴착 등 거친 노동에 투입된 인간의 모습 또한 자연을 닮아 거칠고 지저분한 모습이다. 그러나 고속도로 개통식에 줄지어 서 있는 대중의 모습은 곧 무질서한 공사장을 대체한다.

이 인간의 질서가 곧 자연의 질서를 대체하게 되었음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근대성의 위력과 질서의 힘을 상징하는 것은 곧 최고 권력의 능력으로 전화되어야 한다. 경부고속도로 개통식에서 정부 요인과 공사 관계자들을 거느리고 개통 테이프를 절단하는 대통령의 모습이야말로 경부고속도로의 정치적 미학이 완성되어야 할 순간으로 배치된 것이다. 흙먼지와 각종 장비들로 어수선했던 공사현장과 대비되어 개통식장은 말끔하게 단장되고 포장되어 전혀 다른 세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대통령은 바로 이 전변의 정 중앙에 위치한 숭고한 대상처럼 재현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아주 인상적인 사진 두 장이 있다. 하나는 중장비를 동원한 공사가 한창인 곳에 갓을 쓴 노인 네 명이 한쪽에 쭈그러 앉아 공사를 구경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다. 지역 주민으로 보이는 노인들은 이 거대한 공사의 철저한 구경꾼에 불과했다. 공사의 주역은 근대성의 체현으로 나타나는 육중한 기계들로 보인다. 심지어 공사 노동자들도 진정한 주인공은 아닌 듯하다. 그들은 다만 육중하지만 또한 정교한 기계들의 보조 인력으로 배치된 것처럼 보였다. 하물며 구경꾼의 신세로 전락한 주민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불도저를 구경하는 촌로들
(작가 전용각, 소장 이문강)

사실 공사장이 된 그 대지의 주인은 바로 이들 주민들이었다. 거칠게 파헤쳐진 공사장은 원래 그들이 나고 자란 고향일 것이며 어린 시절 뛰놀던 들과 산일 것이다. 자



신들이 주인공이었던 대지가 어느 날 갑자기 낯선 기계들에 의해 파괴되고 전혀 다른 공간질서로 재편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들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공사를 주도하고 있는 기계들의 위력을 감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세상의 변화를 감당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진 것일까? 이도 아니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반추하고 있었을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촌로들의 상념이 아니었다. 그들의 상념을 전혀 꺾지 않으면서, 그들을 한갓 구경꾼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불도저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직선의 길을 만들고 있었다.

또 다른 사진은 불도저가 짓무개고 있는 대지의 한켠에 초가집 한 채가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었다. 초가집은 금방이라도 불도저에 의해 유린될 것만 같은 위태로운 모습이다. 불도저와 공사현장만 아니었다면 목가적이고 평화롭게 보이기만 했을 이 초가의 전경은 외려 마치 비탈에 선 나무들처럼 극한의 위기에 내몰린 듯하다. 이 사진이야말로 근대화의 파도 앞에 내몰린 전근대적인 것의 위기를 상징한다. 이미 미래로의 전망은 고속도로가 상징하고 있었고 그것을 건설하는 불도저야말로 새로운 경배의 대상일 것이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초가집 한 가운데 한 인간이 존재했다. 양 손을 허리에 받치고 두 다리를 굳게 버틴 모습으로 바로 집 앞까지 침범한 불도저와 공사현장을 미동도 없이 지켜보고 있다. 마치 더 이상 나의 영토로 불도저와 고속도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뿜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사진의 사내 역시 공사현



밀려나는 삶의 터전(작가 전
몽각, 소장 이문강)

장으로 시선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 시선은 앞서 보았던 촌로들의 시선과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 보인다. 앞의 시선이 구경꾼의 시선이었다면 이 사내의 그것은 응시의 눈빛으로 보인다.

그는 이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닐 것이다. 자기 집으로부터 불과 3~4m밖에 안 떨어진 곳에 불도저가 대지를 짓밟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이다. 이유가 어찌 되었건 사내는 아직 자기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계속 살 수도 없을 것이다. 이 진퇴양난의 곤경 속에 사내는 복잡한 심사로 공사장을 응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불도저를 대적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무력감 속에서도 사내는 고분고분할 수 없는 자신의 뒤틀린 심사를 뽐어내는 듯 보인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이미 평탄작업이 끝난 고속도로가 바로 앞마당과 붙어 있게 된 상황에 처한 집이 나온다. 사진 속 위태로운 집에는 기저귀로 보이는 흰 빨래가 널려 있고 한 아낙이 허리를 반쯤 구부린 채 등을 보이고 뒷마루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역시 고속도로 공사현장만 아니면 한가로운 농가의 한때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농가의 위기 또한 분명할 것이다. 오래 버틸 수 없는 상황임이 분명했고 사진의 중심

앞마당으로 들어온 고속도로
(작가 전용각, 소장 이문강)



이 도로인 것처럼 현실에서도 그럴 것이었다. 사진은 도로가 중앙에 배치되고 농가는 왼쪽 끄트머리에 절반쯤 잘린 채로 등장한다. 이미 삶의 절반이 무너져 내렸고 나머지 절반도 곧 고속도로에게 내줘야 될 것이다.

경제개발과 근대화를 상징하는 고속도로 공사는 곧 엄청난 파괴임이 틀림없었다. 한편에서 그것은 건설이고 발전이라고 주장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명백한 파괴였다. 새로운 건설을 위한 파괴라 해도 파괴는 파괴인 것이다. 그리고 파괴는 기필코 어떤 고통과 희생, 눈물을 강요하는 것임도 분명했다. 자신이 살아온 고향 마을이 파괴되고 정든 집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일상이 흩어져 버리는 이 상실의 경험은 삶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는 것이었음이 분명했다.

어떤 이들은 제법 큰돈을 보상금으로 받아 도시로 떠나고, 또 어떤 이들은 인근 마을로 이주하기도 했다. 어찌 되었건 간에 마을은 송두리째 사라졌고 사람 대신 자동차가 주인인 고속도로가 되어 버렸다. 이 되돌릴 수 없는 결정적 파괴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곧 오늘의 우리들일 것이다. 우리들은 이제 파괴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최초의 파괴를 경험한 이들이 그것을 고통과 상실로 느끼면서 개발과 발전의 가치를 받아들였다면, 오늘의 우리는 그 어떠한 고통 없이, 별다른 감정의 동요 없이 싸늘하게 개발의 이익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고속도로와 공장이 만 들고 싶었던 것은 곧 그러한 계산 가능한 주체들일 것이다.

4. 도시의 삶 : 성장 그리고 동원과 통제의 풍경

도시의 삶은 분명 낯설고 새로운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수천 년간 농촌의 삶은 농업 위주의 공동체적 생활 형태를 유지해 왔다. 소우주를 방불케 할 정도의 이 공동체는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구성원들을 단단하게 연결시켜 주고 있었다. 공동체의 토대는 일차적으로 공동노동에 기반한 생산과정이었다. 농업은 개별 노동 외에 집단적 노동력을 단시일 내에 투입해야 되는 공동노동을 통해 유지 가능했다. 특히 이양법의 보급에 따라 모내기가 일반화되면서 공동노동의 규정력은 더욱 커져 갔다.

이 외에도 농촌공동체는 지연과 혈연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동족촌락의 경우 지연에 더해 혈연관계까지 부가됨으로써 공동체의 결속력과 강제력은 더욱 강화되었다고 하겠다.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탄생과 죽음의 전 인생이 이미 결정된 것이나 진배없을 정도였다. 탄생, 성장, 결혼, 죽음의 모든 과정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생산과 일상, 각종 의례와 관습을 통해 촘촘하게 엮여 있는 농촌공

동체는 장구한 시간 동안 이 땅의 지배적 삶의 공간이었다.

산업화는 곧 도시화를 의미했고 수천 년간 지속되었던 농촌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했다. 한반도 주민 집단의 대부분이 불과 30~40년 만에 낯설고 이질적인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던져진 셈이었다. 도시에서는 더 이상 공동노동이 필요 없었고 혈연관계도 긴밀하지 않았으며 각종 의례나 관습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노동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 동네가 아니라 대부분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공장과 회사로 출퇴근을 반복하였고 결혼은 결혼식장에서 장례는 장례식장에서 치러야 했다. 무엇보다 수십 만 명이 넘는 대규모 군중의 집합은 농촌의 대면사회와는 전혀 다른 생활공간을 의미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 수 있었던 농촌공동체와 달리 도시는 옆집 사람도 알기 힘든 거대한 격벽의 공간이었다.

수원의 도시 성장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1967년 경기도청 이전이었다. 경기도청 이전으로 수원은 경기도의 수부 도시가 되었고 급속한 성장의 좋은 조건을 마련한 셈이었다. 인천과의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했던 수원시는 유치위원회를 조직하고 활발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도청 이전을 통해 가장 큰 정치적 수확을 거둔 것은 이병희 중심의 공화당 세력이었다. 사실 이들이 도청 유치를 가능케 했던 핵심 세력이기도 했는데, 박정희와 담판을 지어 수원 유치를 결정지었다는 설이 유력하게 나돌았다.

상황이 이러했기에 도청 이전 관련 사진의 대부분은 이병희 유족이 제공한 것이다. 도청 이전을 요구하는 대회 모습부터 유치가 결정되고 이를 환영하는 대회 등 다수의 사진 속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기공식 장면이다. 1964년 10월 15일 경기도청 부지에서 진행된 기공식은 대통령 박정희와 국회의장 백두진을 위시해 이병희 등 주요 인물들이 대거 참여한 성대한 행사였다. 치사를 통해 박정희는 “서울을 중심으로 그 주위의 소도시를 크게 발전시킬 장기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는데, 개발주의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이었다.⁷⁾ 단상에 늘어선 인물들은 개발의 주체가 누구 인지를 보여 주는 것이었고 박정희와 이병희는 서울과 수원의 상징이었다.

기공식의 가장 큰 특징은 수많은 군중의 집결이었다. 당시 신문보도에 따르면 무려 3만 명의 군중이 모였다고 했다. 1964년 수원의 인구는 불과 12만 명을 약간 넘는 정도였다. 전 인구의 4분의 1이 참여한 기공식 장면은 당시로서는 일대 장관이었다. 아마 한 집에서 한 명 이상의 참가자가 나왔다고 할 수 있기에 거의 수원 전체가 동원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1963년에 이미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1964년이라는 시점은 정치적으로 대중동원이 시급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7) 『경향신문』, 1964년 10월 15일.

렇게 거대한 군중이 모였다는 것은 개발과 발전에 대한 욕망이 매우 크게 작동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박정희 정권은 개발과 발전의 욕망을 대중적으로 자극하고자 했고 도청 이전은 그 중요한 계기로 배치된 셈이었다. 그것은 서울과 주변 도시의 발전을 강조한 박정희의 치사에서도 드러난다. 이 발전을 매개로 한 정치가 이병희가 수원의 확고부동한 정치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최고의 자원이었다. 그렇기에 도청 이전은 단순한 일개 행정기관의 유치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권력의 기획과 대중의 욕망이 결합된 일종의 발전주의 스펙터클을 이루었다고 하겠다.

기공식은 문화적 기획과 결합되어 진행되었는데, 제1회 화흥문화제가 기공식 전야제로 출발했다는 것이 대표적 증거였다. 화흥문화제가 기공식 전야제로 치러졌다는 것은 곧 문화조차 발전과 개발의 일환으로 배치될 수 있는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또한 악단이 동원된 기공식 축하공연도 진행되었다.

문화는 대표적인 구경거리 역할을 한다. 실용적 목적을 떠난 것으로 상정된 문화는 현실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오히려 현실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



경기도청사 기공식 및 제1회 화흥문화제 전야제 횃불 행진(이병희 유족 제공)

는 ‘카니발’의 역할을 떠맡기도 한다. 그러나 문화는 또한 주의 깊게 고안되고 프로그램된 실천이기도 하다. 기공식 전후로 배치된 문화행사들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문화 소비가 곧 발전을 위한 생산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요구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야제에서 진행된 햇불행진을 촬영한 사진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했다. 한밤중의 햇불행진은 곧 어둠의 과거를 불사르고 발전과 번영의 길을 밝히는 행위를 상징한다고 하겠다. 다음 날로 예정된 번영의 행사를 위해 밤의 어둠을 밝히는 햇불이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게다가 햇불을 든 것은 중학생 또래의 학생들이었다. 저발전과 후진의 과거를 대신할 번영의 미래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통해 재현되고 있다고 하겠다. 요컨대 아이들의 햇불은 발전과 번영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것이 곧 개발연대의 문화정치의 한 양상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살도록 주문받았다. 과거의 비루하고 남루한 삶과 단절하고 번영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라고 요구받았다. 낡고 빈곤한 과거와 세련된 미래의 번영 사이의 현재는 오직 땀과 고통과 눈물이 되어야 했다. 사람들은 밝은 미래를 보면서 현재의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고 강요된 셈이었다.

번영과 발전을 위한 실천은 곧 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다. 1970년대 수원은 거대한 공사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급속하게 늘어나는 인구는 주거, 교통, 교육 등 거의 모든 삶의 부면에 걸쳐 커다란 문제를 야기했다. “서울은 만원이다.”는 비명이 터져 나왔고 이는 곧 서울 위성도시들의 아우성으로 연결될 것이었다. 1970년대 말 서울의 인구가 800만을 넘어서게 되었고 수도권도 급속도로 팽창되고 있었다. 1960년 9만 명에 불과했던 수원의 인구는 1980년 무려 32만 명으로 폭증했다. 불과 20년 만에 세 배 이상의 인구가 증가했던 것이다.

시가지는 성문을 넘어 확대되었고 새로운 주거지들이 속속 들어섰다. 1970년에는 수원시 최초의 아파트인 서문아파트가 준공되어 분양되었다. 아파트는 도시의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곧 이어 도시의 욕망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3층 4개 동으로 이루어진 서문아파트는 소박하기 그지없는 초창기 아파트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 주변은 논밭과 야산이었고 시가 형성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아파트 4개동만 덩그러니 들어선 모양이었다. 1층에는 장독대도 보이고 평상도 놓여 있다. 요즘의 아파트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다.

그러나 1973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화서아파트는 1977년경이 되면 투기바람의 대상이 되었다. 아파트가 본격적인 투기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곧 도시민의 욕망의 집적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1970년대 서울의 강남개발을 전후해 불기 시작한 투기바람이 드디어 수원 지역까지 밀려들어 왔고 수원은 서울의 욕망을 닮아 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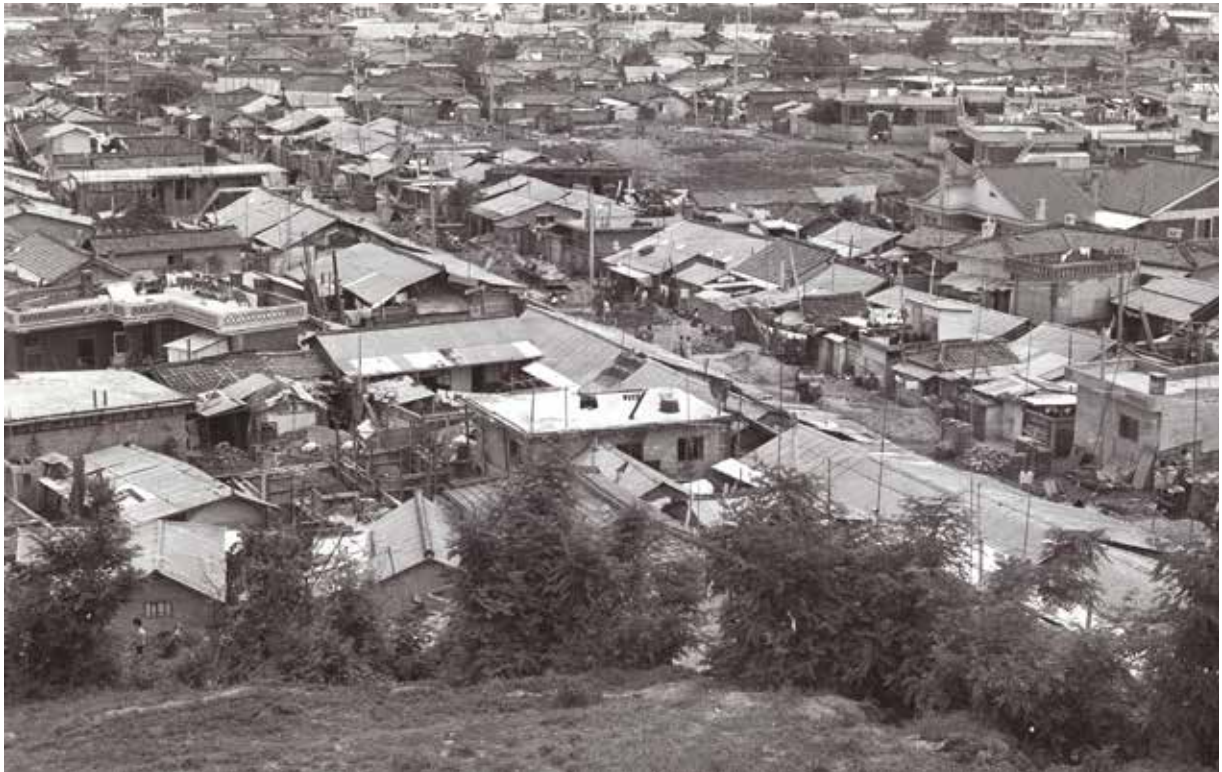


다. 1970년대 말이 되면 조원동과 영화동에 새로운 택지가 조성되었고 연무동이 재개발되는 등 끊임없이 공급이 확대되었지만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이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었다.

수원 시가지(중동사거리, 1978년, 수원시청 소장)

도시 규모가 확대되면서 도심에는 극장과 백화점이 들어서고 근교 지역에는 유원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도시는 이렇게 기능적인 분화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었다. 도심은 곧 중심을 의미했고 근교는 다른 말로 ‘변두리’였다. 도시는 수평적 공간의 기능적 분화가 아니라 수직적 질서를 닮아 갔다. 도심은 곧 ‘높은 곳’이었고 변두리는 낮은 곳일 수밖에 없었다. 현실에서 높은 곳은 ‘달동네’였지만 실은 가장 낮은 곳이었다. 서울이 중심이면 수원이 변두리였지만 수원 내에서도 중심과 변두리가 수직적으로 구분되었다. 서울이 노른자라면 수원을 비롯한 위성도시들은 흰자였는데, 이것이 수원 내부에서도 똑같이 반복된 셈이었다.

이와 같이 도시는 수평적 공간을 수직의 삶으로 재현해 내는 곳이었다. 그리고 이 수직의 공간 질서는 동원과 통제로 더욱 강박해져 갔다. 주지하듯이 1970년대 유신 체제는 한국현대사상 최고의 통제사회였다. 앞서 보았듯이 반공과 안보는 전 사회를



재개발지구(연무동, 1979년, 수원시청 소장)

도심은 곧 중심을 의미했고 근교는 다른 말로 '변두리'였다. 도시는 수평적 공간의 기능적 분화가 아니라 수직적 질서를 닮아 갔다. 도심은 곧 '높은 곳'이었고 변두리는 낮은 곳일 수밖에 없었다. 현실에서 높은 곳은 '달동네'였지만 실은 가장 낮은 곳이었다. 서울이 중심이면 수원이 변두리였지만 수원 내에서도 중심과 변두리가 수직적으로 구분되었다. 서울이 노른자라면 수원을 비롯한 위성 도시들은 흰자였는데, 이것이 수원 내부에서도 똑같이 반복된 셈이었다.

옥죄었다. 그것은 다만 국가의 공식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소소한 일상까지 규율하고 통제하는 것이었다. 오후 5시만 되면 어김없이 전 시내에 울려 퍼지던 애국가와 함께 국기하강식이 거행되었다. 역동적인 도시를 일순간에 멈춰 세웠던 국기하강식의 부동자세가 곧 통제도시의 규율화를 상징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영화 『꽃잎』에서 보이듯이 미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 농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표적인 도시의 특징 중의 하나가 국기하강식이었다.

정교한 통제와 미시적인 관리의 구체적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 1968년부터 시행된 주민등록제도였다. 이전까지 호적제도와 기류계를 통해 음성증성한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주민등록제도는 전 주민집단을 일련번호화하여 치밀하게 관리통제하기 위한 제도였다. 항상 휴대하도록 강제된 주민등록증은 조선시대의 호패와는 질을 달리하는 근대적 통제였다.

지문을 통한 식별법과 일련번호로 매겨진 주민번호를 통해 전 주민집단에 대한 계통적이고 행정적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하겠다. 만 20세가 되면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이야말로 국민의 자격증이었으며 이 증명서가 없다면 곧 국민이 아닐 수 있었다.



수원경찰서 용주사 이동파
출소 장발 단속
(1973년, 수원시청 소장)

주민등록증 발급
(1975년, 수원시청 소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만 했던 국민이 또한 신체와 취향의 자유조차 저당잡혔던 것이 유신체제였다. 장발 단속과 미니스커트 단속은 1970년대 도시의 익숙한 거리 풍경이었다. 개인의 머리 길이까지 통제하고자 했던 유신권력의 신경증이 도시 전체를 휘감고 있었다. 이 신경증은 도시 전체를 불온하게 바라보는 권력의 시선이었다. 도시는 유신권력에게 믿을 수 없는 공간이었다. 선거 때마다 서울은 여당보다 야당에 표를 던졌다. 산업화의 결과로 도시는 육일승천의 기세로 성장하고 있었기에 권력의 입장에서 도시에 대한 신경증은 불가피했었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도시화와 함께 진행된 대중사회화는 곧 서구 대중문화의 유입을 불가피하게 했고 서구의 스튜던트 파워가 유입될 위험도 다분했다.

권력의 신경질적 대응은 전 주민집단을 행정 통제망으로 인입시키고자 하였는데 반사회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일제시기 전시총동원체제의 애국반에서 기원한 것으로 평가받는 반사회는 권력의 행정관리의 침단이었다. 반사회를 통해 한 달에 한번 전 주민을 반사회에 집결시키고자 했던 권력의 불안감은 거리를 각종 캠페인의 물결로 가득 채우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도시의 광장과 거리는 캠페인의 공간이 되어 갔다. 농촌과 달리 도시의 거리는 엄격한 관리와 질서의 대상이었다.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고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나누어졌으며 관공서와 공공시설이 도시 전체를 관장하는 질서였다. 통상적으로 도시 군중들은 차도에 등장할 수 없었다. 이것이 도시의 일상 풍경이었다. 군중이 차도를



쥐잡기 캠페인
(1974년, 수원시청 소장)

점거한다는 것은 비일상적 예외상태임을 말해 주는 것이었다. 4·19의 거리를 가득 메운 군중이야말로 권력의 신경을 가장 날카롭게 건드리는 풍경일 것이다. 이 거리에 등장한 군중을 해산시키는 것이야말로 권력유지의 기본이었다.

그러나 군중을 거리에서 추방하는 것은 권력의 소극적, 방어적 전략일 것이다.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전략은 군중을 거리로 동원하는 것이었다. 단 거리의 군중은 권력의 군중이어야 했다. 권력은 본능적이라 할 만큼 군중의 거리 진출을 두려워한다. 이승만 정권은 한때 백골단, 맛벌떼, 민중자결단 등과 같은 거리의 대중정치를 시도했었다. 그러나 곧 이어 이러한 대중동원의 정치를 포기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거리의 군중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힘들었음을 반증해 준다. 즉 거리의 군중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길들여지지 않은 위험한 군중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신체제는 적극적으로 대중동원을 추진했다. 온갖 명목으로 군중을 거리로 불러냈다. 위 사진에 나오듯이 쥐를 잡는 것부터 가족계획, 저축장려, 거리질서 확립 등등 갖은 명목으로 군중을 거리로 호출했는데,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10년 이상의 통치경험을 통해 박정희는 대중동원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동적인 대중의 묵종을 넘어 적극적이고 능동

적인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렸을 것이다. 이것이 불온한 도시공간을 안전한 체제유지의 토대로 만들기 위한 권력의 신경증과 결합되어 1970년대 거리 캠페인의 풍경을 만들어 냈을 것이다.

그러나 거리가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님은 1979년 부마항쟁을 통해 거듭 확인되었다. 온갖 캠페인과 대중동원, 권력의 거리정치에도 불구하고 부산과 마산의 군중은 어느 날 갑자기 거리로 뛰쳐나옴으로써 다시 한 번 거리를 위협하고 불온한 것으로 만들어 도시 전체를 저항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5. 개발연대의 미망(迷妄)

오래 전 상영되었던 미드 중에 ‘형사 콜롬보’가 있었다. 그중 한 시리즈는 이미지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보여 주었다. 영화 상영은 통상 초당 24장의 프레임을 돌리는 것인데, 이 중에 영화와 전혀 무관한 한 장의 프레임을 삽입하면 관객은 그 프레임이 보여 주는 이미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24장마다 한 장씩 엉뚱한 프레임을 반복해서 삽입해 영화를 보여 주면 관객은 무의식적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영화 필름에 24프레임마다 한 장씩 물과 관련된 이미지를 삽입해 상영한다면 관객들은 무의식적으로 목이 마르게 된다는 것이다. 드라마가 보여 준 스토리는 범인이 무의식적 이미지 효과를 이용해 범행 대상 인물을 화장실로 유인해 살해한다는 것이었다.

박정희 체제는 일련의 스펙터클을 통해 이미지 정치를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발전과 건설, 반공과 안보를 위해 전 주민집단을 동원하고자 하였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권력 통치성의 강화로 모아지는 것이었다. 캠페인과 퍼레이드, 행진과 군중집회 등 다양한 대중동원 프로젝트는 권력의 통치성을 스펙터클로 현시하는 것이자 또한 대중의 실천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이었다. 대중 스스로가 스펙터클의 일부가 되게 함으로써 대중은 보이는 존재이자 보는 주체라는 이중적 위치를 부여받게 된 셈이었다. 권력의 시선을 따라 행진하면서 보고 보이게 되는 이 이중의 주체 위치는 대중의 국민적 주체화 과정으로 배치된 것이었다.

물론 권력의 프레임은 대중의 욕망과 중첩되는 것이었다. 권력의 프레임은 24장마다 대중의 욕망이 한 장씩 삽입된 것이었다. 따라서 권력의 스펙터클은 대중의 욕망이 비가시적으로 삽입된 것이 될 것이며 대중은 무의식적으로 욕망의 갈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국가의 발전주의 프로젝트 속에서 대중의 출세 욕망이 은밀하게 상연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점점 더 매우 곤란한 일이 되어갔다. 도시가 보여 주는 화려한 스펙터클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속으로 뛰어들어야 했다. 악마의 땃들은 이미 돌아가고 있었고 그로부터 벗어 날 길은 잘 보이지 않았다. 중세 유럽의 속담처럼 도시의 공기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도 했지만, 그 자유 속에는 굶어죽을 자유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개발 연대의 추억은 이 굶어죽을 자유를 지키기 위한 반공과 국가안보의 스펙터클로 점철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이 악몽의 추억은 기존의 삶을 허물고 새로운 삶의 장벽을 구축하는 것이기도 했다. 거대한 콘크리트로 상징되는 도시 공간이란 삶과 삶 사이에 단단한 격벽을 치는 것이었다. 도시 공간에서는 누구나 자유로운 타자가 되어야 했다. 타자의 공간을 침범할 수 없는 것처럼 나의 공간도 견고한 장벽으로 보호되어야 했다. 도시의 삶이란 곧 자유롭게 고립되는 것이었다. 오직 이 고립만이 자유를 보장할 터였다. 장벽은 어느덧 고립과 폐쇄의 이미지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 이미지가 되어 갔는지도 모른다. 나의 자유는 오직 이 장벽 속에서만 가능할 것이었다.

장벽이 고립과 격리가 아니라 보호와 자유의 느낌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근대화된 것이다. 이것이 조국 근대화를 외쳐 댄 권력의 욕망일 것이다. 격벽 속에 안전하게 고립된 이 자유로운 주체들을 거리로 호명하는 것은 오직 권력이어야 했다. 격벽과 장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은 오직 권력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어야 했고 우리는 질서정연하게 거리를 행진해야 했다. 거리의 질서야말로 도시의 굶어죽을 자유를 보장하는 관건이었다.

개발연대의 권력은 굶어죽지 않을 자유를 주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단 거리의 질서가 보장된다는 단서를 달면서 …… 굶어죽지 않을 자유를 위해 다른 모든 자유가 유폐된 거대한 콘크리트 격벽이 우리가 살아 낸 그리고 살고 있는 거처는 아닐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미래의 무덤을 살고 있는 셈이다. 이 거대한 무덤을 건설한 개발연대의 이미지가 오늘날 우리의 초상화가 되어야 할 것인가. 나치 선전상 괴벨스는 거대한 거짓말일수록 대중의 의심은 작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굶어죽지 않을 자유를 위해 굶어죽을 자유를 대가로 요구한 개발연대의 이미지가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마치 진실인 것처럼 …….

기획 김현미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논고 황병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사진목록 김영호, 어준일, 정명숙

수원시사 19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 1960~1970년대 수원

발행일
2014년 6월 25일

발행처
수원시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031-228-3475 / www.suwon.go.kr

디자인·인쇄
홍익문화사
서울 중구 을지로 12길 28
02-2274-8110 / www.honggeeg.com

발간등록번호
ISBN 978-89-87738-79-6
ISBN 978-89-87738-60-4(전 20권)